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14세기 초·중반 중앙티베트 정치사와 몽골제국

— 팍모두 萬戶長 장춥 갤챈의 행적을 중심으로 —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이 승 종

14세기 초·중반
중앙티베트 정치사와 몽골제국

— 팍모두 萬戶長 장춥 갤챈의 행적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석 환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이 승 종

이승종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8월

위 원 장 박 훈 (인)

부위원장 구 범 진 (인)

위 원 김 석 환 (인)

국문초록

티베트의 역사를 논할 때, 몽골은 티베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외부세력 중 하나로 간과할 수 없는 존재이다. 특히 중앙티베트는 몽골제국 시기(1206-1368)에 몽골의 정치적 지배를 받았고, 이 역사적 경험은 이후 티베트와 몽골 양측 모두에게 중요시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몽골제국 시기 중앙티베트의 역사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주로 몽골의 티베트 침공, 싸꺄 빤디따(1182-1251)와 팍빠(1235-1280)의 행적, 그리고 쿠빌라이 시기 티베트 정책 등 13세기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주목하였다. 일부 연구가 14세기 중앙티베트사를 다루었으나, 몽골제국시대라는 배경을 함께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고는 14세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팍모두 萬戶長 장춥 걜챈의 행적을 중심으로 몽골제국 시기 중앙티베트 역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

중앙티베트는 1240년 몽골과 처음 접촉하였고, 그 뒤 4대 대칸 憲宗 뭉케에 의하여 諸王에게 분봉되었다. 이때 훌레구에게 분봉된 팍모두 만호는 훌레구와의 정치적 관계를 활용하여 중앙티베트에서의 이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후 5대 대칸에 즉위한 世祖 쿠빌라이는 싸꺄파를 중심으로 중앙티베트를 재편하며 지배를 확립하였고, 팍모두 만호를 비롯한 중앙티베트의 만호들은 변화하는 정세에 맞추어 대칸을 정점으로 하는 元朝와 정치적 관계를 강화하였다.

1322년 11대 팍모두 만호장에 취임한 장춥 걜챈의 취임 과정은 이상 몽골제국이 중앙티베트에 구축한 정치 질서가 반영되어 있다. 그는 예기치 않게 팍모두 만호장이 되었기 때문에 현지에서 임명이 진행되었으나, 과거 만호장들이 모두 대칸을 통해 공인을 받았던 기존 방식을 따라 임명절차를 마무리하였다. 이처럼 장춥 걜챈은 원조의 권위를 바탕으로 정치 무대에 올랐으며, 만호장 초기 팍모두 만호를 둘러싸고 펼쳐진 챌파, 야상 등 주변세력들과의

갈등에서도 대칸, 鎭西武靖王, 宣政院 등의 권위를 활용하여 자신의 불리한 국면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장춥 걜챈의 정치적 성장도 몽골제국이라는 배경을 고려하였을 때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안정시키기 위해 꾸준하게 원조와 연락하며 대칸의 승인을 받고자 하였다. 그의 대표적인 별칭인 '大司徒'를 受封한 일도 1350년대 중앙티베트의 패권을 잡는 과정에서 유리한 정치적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그가 지속적으로 원조를 염두에 두어야 할 명분을 제공하였다. 그가 중앙티베트를 제패한 뒤에도 帝師에 의한 정치적 압박을 의식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한다.

이상 팍모두 만호장 장춥걜챈의 행적은 당시 중앙티베트의 역사에서 몽골제국이라는 배경이 중요한 요소였음을 환기한다. 즉, 13세기부터 시작된 몽골과 티베트의 역사적 관계는 14세기 초중반에도 중앙티베트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싸꺄시대에서 팍모두시대로 이행되는 14세기 중앙티베트사에서 몽골제국의 정치적 유산이 연속되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중앙티베트, 팍모두(phag mo gru), 만호장(萬戶長), 장춥 걜챈(Byang chub rgyal mtshan), 몽골제국, 원조(元朝), 대사도(大司徒)

학 번 : 2019-28823

목 차

국문초록 ····· i

서론 ····· 1

Ⅰ. 팍모두(phag mo gru) 만호와 몽골제국의 정치 관계 형성 ····· 11

1. 팍모두 만호와 몽골 諸王 간의 관계 ····· 11
2. 元朝의 중앙티베트 지배 확립 ····· 23

Ⅱ. 팍모두 萬戶長 장춥 걜챈의 초기 행적과 元朝 ····· 37

1. 장춥 걜챈의 팍모두 만호장 취임과 元朝 ····· 37
2. 중앙티베트 諸세력과의 갈등과 몽골의 권위 활용 ····· 44

Ⅲ. 1350년대 전후 장춥 걜챈의 행적과 元과의 관계 ····· 55

1. 세력 확대 및 장춥 걜챈과 팍모두의 부상 ····· 55
2. 大司徒 受封과 元朝와의 관계 ····· 66

결론 ····· 77

부록 ····· 80

참고문헌 ····· 83

Abstract ····· 92

표 목차

<표 1> 티베트 사료에서 확인되는 초기 팍모두 만호장과 任免 내용 ····· 29
<표 2> 쿠빌라이 즉위 후(1260)~1350년까지 챌파 세속수장(만호장)의 계보 ····· 32
<표 3> 元代 역대 帝師表 ····· 74

그림 목차

[도 1] 장춥 걜챈 家系 개요도 ····· 80
[지도 1] 14세기 중앙티베트 ····· 81
[지도 2] 야를룽지역 확대도 ····· 82

서론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곳까지”라는 말이 나오듯 과거 몽골제국의 말발굽이 유라시아 전역에 닿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1] 그 말발굽은 히말라야 자락에 위치한 티베트에도 닿았고, 이른바 “티베트-몽골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중앙티베트[2]는 11세기에 이른바 “後弘期(bstan pa phyi dar)[3]”라고 불리는 불교의 부흥기를 거친 뒤 각지에서 불교 교파를 중

---

1) ‘교황 인노켄티우스 4세에게 보낸 구육(Güyüg)의 친서’(카르피니 · 루브룩, 김호동 역주, 『몽골제국기행』, 까치, 2015, pp.445-447. 참고) 중 일부 발췌. 구육의 친서를 비롯하여 몽골제국 시기 대칸의 칙령발급에 관한 연구는 김석환, 「13~14세기 몽골제국 勅令制度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참조.

2) 본고에서 사용하는 ‘중앙티베트’의 지리적 범위는 1) 라싸(lha sa)를 중심으로 하며 몽골제국 시기 한문 사료에 주로 ‘烏思’로 음사된 위(dbus, 烏思) 지역, 2) 현재 티베트 제2의 도시인 시까쩨(gzhis ka rtse)를 중심으로 한 짱(gtsang, 藏) 지역, 3) 짱 지역 너머 서쪽의 아리(mnga' ris, 納里速), 4) 위짱 북부의 장탕(byang thang) 등을 아우른다. 역사적으로 티베트의 강역은 四川과 雲南 일부를 포함하는 캄(khams) 혹은 도캄(mdo khams) 지역과 靑海와 甘肅 일부를 포함하는 도매(mdo smad) 혹은 암도(a mdo) 지역이 있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티베트’ 내지는 ‘중앙티베트’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위에서 정의한 범위의 ‘중앙티베트’를 가리킨다. 이상의 중앙티베트에 대한 지리적 정의는 최소영, 「13세기 후반 티베트와 훌레구 울루스」,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1; 최소영, 「몽골제국 시기 티베트 승려에 대한 보시와 그 운송 문제 고찰」, 『중앙아시아연구』 26-2, 2021a, p.181.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3) 이하 본고에서 티베트어는 발음에 따른 표기를 국문으로 먼저 적고, 괄호에 티베트어를 이탤릭체로 표기하는 Wylie표기(철자를 모두 적는 학계의 일반적인 표기방식)를 덧붙였음을 밝힌다. 표기한 티베트어가 人名일 경우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였다. 티베트 문자 가운데 아충('a chung)은 ‘ ’ ’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티베트어에서 명사 접미사로 자주 활용되는 pa는 개인을 가리키거나 개인이 속한 집단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며, 문맥에 따라 그 활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싸꺄파(sa skya pa)의 경우 문맥에 따라서 싸꺄파의 교리를 따르는 집단 전체를 가리킬 때도 있고, 편의상 팍빠처럼 싸꺄파에 속하는 개인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본고에서는 사료 내에서 개인을 가리키는 뜻으로 pa가

심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유라시아를 제패한 몽골제국의 침입은 그 당시는 물론 이후의 티베트 역사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4)]

그렇다면 몽골의 침입을 겪고 난 뒤, 티베트인들의 행보는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가? 이러한 질문에 한 가지 답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大司徒(ta si tu 혹은 ta'i si tu)' 장춥 걜챈(Byang chub rgyal mtshan, 1302-1364)이다. 그는 중앙티베트에 위치한 팍모두(phag mo gru) 萬戶 출신으로, 생애 대부분을 팍모두 萬戶長(khri dpon)이라는 俗人 관료로 보냈다. 이 시기에 만호장으로 재임하였다는 사실은 그 지배층인 몽골인들과 정치적으로 긴밀할 수밖에 없었음을 시사한다. 중요한 것은 이 인물의 행적이 기존 불교적 관점에서 각색된 고승들의 행적과 달리 정치적이고 이해타산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즉, 이 인물은 몽골제국 시기 티베트 역사의 일면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위의 단상에서 비롯된 필자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중앙티베트 지배를 구축한 쿠빌라이(Qubilai, 元 世祖, r. 1260-1294) 사후 중앙티베트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14세기 중앙티베트와 몽골인 지배층 간의 정치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대사도 장춥 걜챈이라는 인물의 정치적 성장은 어떤 과정을 통해 가능하였는가? 본고는 이러한 의문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14세기 중앙티베트의 만호장 장춥 걜챈의 행적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티베트인 역사가이자 정치가인 샤깝파(Shakabpa)는 일찍이 장춥 걜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다.

사용된 경우 "빠"로, 집단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파(派)"로 번역하였음을 밝힌다.

4) 대표적으로 Turrel Wylie, "The First Mongol Conquest of Tibet Reinterpreted,"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37-1, 1977, pp.103-133; Stephan G. Haw, "The Mongol conquest of Tibet,"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4-1, 2014, pp.37-49; Christopher Atwood, "The First Mongol Contacts with the Tibetans," *Trails of the Tibetan Tradition: Papers for Elliot Sperling*, edited by Roberto Vitali, Dharamsāla, India: Amnye Machen Institute, 2014, pp.21-46; Luciano Petech, *Central Tibet and the Mongols : the Yüan-Sa-Skya period of Tibetan history,* Rome: Instituto italiano per il Medio ed Estremo Oriente, 1990.

장춥 걜챈은 티베트 역사에서 가장 다채로운 성격을 가진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네우동(sne'u gdong)에 있는 장춥 걜챈의 像은 축 처진 눈에 왜소하지만, 그는 매우 강인한 의지와 큰 자비를 가졌으며 깊은 통찰력과 커다란 사회적 책임을 지닌 인물이었다. 네우동의 장관(팍모두 만호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싸꺄파로부터 받은 학대는 그가 권력을 잡게끔 이끌었고, 역사 속 여러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그는 외세의 지원 없이 권력을 잡았다. 그는 全 티베트의 지배자가 되자 '팍모두 시대'에 기여하는 사회적 개혁을 진행하였고, 그 '팍모두 시대'는 200여 년 이상 지속하여 티베트 역사상 가장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시대였다.[5]

그는 장춥 걜챈에 대해 전통적인 티베트 관습에 기반하였으며, 외세의 지원을 받지 않은 채 싸꺄 정권을 타도한 인물이라며 높이 평가하였다.[6] 그가 티베트 망명정부 인사였다는 개인적인 배경은 민족적 관점에서 장춥 걜챈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러나 전근대의 티베트 사료들도 샤깝파처럼 장춥 걜챈의 정치적 성공을 중심으로 유사한 논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는 전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7] 장춥

---

5) Tsepon Wangchuk D. Shakabpa, "The rise of Changchub Gyaltsen and the Phagmo Drupa Period", *Bulletin of Tibetology* 17, 1981, p.23.

6) Tsepon Wangchuk D. Shakabpa, *One Hundred Thousand Moons: An Advanced Political History of Tibet*, translated by Derek F. Maher, Leiden : Brill, 2010, vol. 1, pp.263-264.

7) 대표적으로 5대 달라이라마는『티베트王臣記』에서 "티베트 全史에서 장춥 걜챈은 어떠한 인물이었는가?"라는 전제를 두고 장춥 걜챈을 평가하였다. 그는 장춥 걜챈을 송쩬감뽀(Srong btsan sgam po)와 같이 과거 토번제국의 유명한 法王들처럼 그 역시 법령을 세우고 중앙티베트 전역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존재로 묘사하였다. 이는 티베트 저작 가운데 "聖人傳(rnam thar)"으로 분류되는 것들과 유사한 작법으로, 5대 달라이라마는 장춥 걜챈의 성취를 부각시키고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군사적 행동들에 대해서는 티베트의 안녕을 위한 조치였다고 변호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장춥 걜챈을 불교 세계관의 수호자인 觀音菩薩의 化現이라고 칭송하였다. Ruth Gamble & Yangmotso, "Servant-like Lords and Heavenly Kings: Jangchup Gyeltsen and the Fifth Dalai Lama on Governance and Kingship", *Cahiers d'Extrême-Asie* 24, 2015, pp.148-155.

걜챈의 행적 중에서 주로 주목받은 부분은 중앙티베트를 평정한 뒤의 치적이었고, 시기상으로는 1350년대 중후반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무렵에 받은 '대사도'라는 별칭과 함께 이시기 가장 대표적인 티베트인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존 관점은 "만호장"으로서의 삶을 포함하여 그의 전반적인 행적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편, 장춥 걜챈이 활약한 14세기의 티베트사는 13세기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다. 근대 티베트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뚜찌(Tucci)의 저서[8] 이후, 티베트사 연구는 주로 몽골-티베트 관계가 처음 형성되고 제도가 정립된 13세기에 집중되었다. 예컨대 중국학계는 '티베트를 지배한 최초의 中原王朝'라는 인식 하에 이 시기 元朝의 티베트 지배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한문 사료에 기재된 帝師, 宣政院 및 宣慰使, 烏思藏十三萬戶 등 여러 통치제도의 연구로 이어졌다.[9] 그밖에 몽골제국사의 관점에서 티베트를 조명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스펄링(E. Sperling),

---

8) Giuseppe Tucci, *Tibetan Painted Scrolls*, Roma: La Libreria Dello Stato, 1949, vol. 1, pp.17-24; vol. 2, pp.673-674. 英譯된 부뙨의 편지는 Kurtis R. Schaeffer, Matthew T. Kapstein and Gray Tuttle eds., *Sources of Tibetan Tradi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3, pp.348-351에도 재수록되어 있다. 그는 저서에서 13~14세기 중앙티베트의 정세를 간략히 다루고, 아울러 당시 유명한 고승 부뙨 린첸둡(Bu ston rin chen grub)이 장춥 걜챈에게 보낸 서신을 소개하였다.

9) 대표적으로 陳慶英, 張雲, 沈衛榮 등은 티베트 사료와 함께『元史』,『永樂大典』 등 한문 사료에서 드러나는 여러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것들이 원조가 티베트 사이의 정치적 관계를 보여주며 원조가 티베트 통치를 공고히 하는 데 일조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陳慶英,「元代帝師制度述略」,『西藏民族學院學報』, 1984-1, pp.44-62;「元代烏思藏本欽紀略」,『元史論叢』 4, 1992;「元朝在西藏所封的白蘭王」,『西藏研究』, 1983-4, pp.29-33(이상 陳慶英,『陳慶英藏學論文集』,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2006에 재수록);「元代烏思藏薩迦政權及其與蒙古皇室的關系」,『青海社會科學』, 1986-3, pp.93-103; 張雲,『元代吐蕃地方行政體制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17; 沈衛榮,「元代烏思藏十三萬戶行政體制研究(一)」,『西藏研究』, 1988-1;「元代烏思藏十三萬戶行政體制研究(二)」,『西藏研究』, 1988-2(이상 沈衛榮,『西藏歷史和佛教的語文學研究』,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0에 재수록); 沈衛榮, 2010.

최소영 등은 13세기 티베트와 훌레구 울루스(Hülegü ulus)의 관계에 주목하여 몽골제국 시기 티베트의 정치상을 조명하였다.[10] 특히 이들은 팍모두 만호와 디궁('bri gung) 만호가 諸王 훌레구와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 점이 당시 중앙티베트 역사에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논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시간적 범위는 14세기까지 이어지지 못하였다.

이상 기존 연구를 되짚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는 14세기 초 중반 중앙티베트의 역사상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13세기가 지난 뒤 장춥 걜챈이 중앙티베트를 제패하는 1350년대 이전의 역사가 모호하게 되었고, 장춥 걜챈으로부터 비롯되는 팍모두 시대는 자연스럽게 직전의 싸꺄 정권기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 결과, 기존 연구들은 두 시기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파악할 수 있는 연속적인 측면에 주목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싸꺄파는 몽골이라는 외세의 힘을 바탕으로 중앙티베트를 장악하였다는 점이 부각되었고,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쿠텐(Köten, 闊端, 1206-1251)과 싸꺄 빤디따 뀐가 걜챈(Sa skya paN+Di ta Kun dga' rgyal mtshan, 1182-1251), 팍빠('Phags pa Blo gros rgyal mtshan, 1235-1280)-착나도르제(Phyag na rdo rje, 1239-1267) 형제와 쿠빌라이, 제사와 대칸 등 당시 티베트인과 몽골인과의 관계가 주로 언급되었다.[11] 반면 장춥 걜챈은 싸꺄 정권기를 살았던 당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元, 더 나아가 몽골제국이라는 역사적 배경과 함께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선행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다. 퀘입(Kuijp)은 일찍이 장춥 걜챈에 주목하여 그의 행적 전반을 조명하였다.[12] 그는 장춥 걜챈을 '14세기

---

10) Elliot Sperling, "Hulegu and Tibet", *Acta Orientalia Academiae Scientiarum Hungaricae*, Tomus XLIV, 1990; 최소영, 2010.

11) 『紅冊』(14c), 『야를룽敎法史』(14c), 『漢藏史集』(15c), 『싸꺄世系史』(17c) 등 시대를 막론하고 티베트 사료들은 몽골제국 시기 싸꺄파를 다룰 경우 싸꺄 빤디따와 쿠텐의 만남, 팍빠와 쿠빌라이의 만남을 중요한 사건으로 기술하였다. 특히 『싸꺄世系史』는 1240년 몽골의 티베트 침공 이후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쿠텐의 편지, 싸빤의 편지 등의 전문이 수록되어 있어 몽골제국 시기 싸꺄파와 몽골과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중요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Leonard W. J. van der Kuijp, "On the Life and Political Career of Ta'i si tu

에서 가장 흥미롭고 큰 영향력을 끼친 티베트인'으로 평가하며, 후대 티베트 사서가 장춥 걜챈의 중앙티베트 정복을 '완성'의 관점으로 본 것과 달리 당시 장춥 걜챈은 팍모두 만호의 불안정한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말년까지 노력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장춥 걜챈에 대한 연구를 환기시키고 그의 종합적인 생애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티베트사 연구에서 진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있다. 그렇지만 장춥 걜챈의 말년까지 지속된 정치적 배경인 몽골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면을 크게 할애하지 않았다.[13]

페텍(Petech)의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다.[14] 그는 몽골제국 시기 싸꺄(sa skya) 정권의 흥망을 다루었는데, 14세기를 '싸꺄 정권의 전성기 및 쇠락기'로 명명하고 팍모두파의 부상을 통해 이 시기를 서술하였다. 즉, 그는 몽골제국 시기 중앙티베트의 역사를 기존보다 거시적으로 다루면서도 그 초점을 몽골-티베트 관계에 두었다.[15] 그리고 퀘입과 마찬가지로 14세기 중앙

Byang chub rgyal mtshan (1302-?1364)", *Tibetan History and Language. Studies dedicated to Uray Géza on His Seventieth Birthday*, edited by Herausgegeben von Ernst Steinkellner, Wien: Arbeitskreis für Tibetische und Buddhistische Studien, Universität Wien, 1991, pp.277-327.

13) 오토사카 도모코(乙坂智子, 「サキャパの權力構造 : チベットに對する元朝の支配力の評價をめぐって」, 『史峯』 3, 1989, pp.21-46; 元朝チベット政策の始動と變遷」, 『史峯』 20, 1990, pp.49-65.)도 유사한 한계를 보여준다. 그는 싸꺄파 정권의 권력구조를 도식화하고, 그 흐름을 원대 후기까지 설정하여 권력구조의 변천 양상을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원의 티베트 정책의 변천을 살펴보며 世祖 쿠빌라이 이후 對티베트 정책의 변화 및 원인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티베트 지배와 불교 존숭 간의 균형 구도의 변화를 통해 이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원대 후기까지 연구 시기를 확장하여 14세기 중앙티베트사를 해명하는 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논의의 대상이 주로 싸꺄파에 집중되었고, 싸꺄파 외의 중앙티베트 세력과 원조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14) Luciano Petech, 1990, pp.71-137.

15) 이러한 고찰을 통해 페텍이 도출한 몽골-티베트 관계의 유산도 참고할 만하다. 즉, 몽골제국의 정복으로 인해 중앙티베트는 중앙정부라는 최고권력 체제를 겪었으며, 14~15세기 린뽕빠(rin spungs pa)-짱빠(gtsang pa) 정권, 17세기 달라이라마 정권 등 이후 등장한 티베트의 정치세력들도 그 영향을 받아 교파별로 난립해 있던 분열상태를 지양하는 대신 중앙권력을 지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티베트사의 주역으로 팍모두 세력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몽골-티베트 관계를 다룰 때 중심은 싸꺄 정권이었기 때문에 팍모두 만호와 몽골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점은 최근 차야(Czaja)의 연구에서도 반복되었다.[16)]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티베트 사료『司徒遺訓』에 드러나는 팍모두 만호장 장춥 걜챈의 행적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14세기 중앙 티베트 정치사에서 확인되는 티베트-몽골 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그의 행적은 당시의 다른 티베트 사료에서도 단편적으로 확인되지만, 무엇보다『司徒遺訓』을 통해 매우 가까이서 엿볼 수 있다.『司徒遺訓』의 원제목은『見卽獲益: 司徒 장춥 걜챈의 遺訓(Si tu Byang chub rgyal mtshan gyi bka' chems mthong ba don ldan)』으로, 그가 직접 자신의 가문인 랑(Rlangs)씨의 역사를 기록한『朗氏家族史(rlangs gyi po ti bse ru)』안에 속한 사료이다.『司徒遺訓』은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장춥 걜챈의 자서전으로 자신의 뒤를 이어 팍모두 만호장이 될 후계자들을 위한 유훈을 남길 목적으로 저술되었다.

Luciano Petech, 1990, p.142.

16) Olaf Czaja, *Medieval Rule in Tibet: The Rlangs Clan and the Political and Religious History of the Ruling House of Phag Mo Gru Pa : With a Study of the Monastic Art of Gdan Sa Mthil*, Wien: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2013, pp.109-204. 그는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司徒遺訓』을 바탕으로 장춥 걜챈의 일대기를 조명하였으며, 기존 연구에서 티베트 사료를 오역한 부분들을 상세히 짚어냈다. 또한 싸꺄 지배집단 내부의 여러 분파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쟁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각 분파들은 장춥 걜챈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달랐다는 점을 밝혔다. 하지만, 이상의 연구 모두 팍모두 만호가 몽골 지배 세력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였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으며, 따라서 장춥 걜챈의 정치적 성장배경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밖의 연구들에서도 유사한 한계점이 발견된다. 佐藤長,「パクモトゥパ政權初期のチベット狀勢」,『中世チベット史研究』, 京都: 同朋舍, 1986; 馬睿, 易奎伍,「元朝末期西藏地方政權盛衰與中央政府的關系」,『四川民族學院學報』25, 2016-4, pp.1-5; 山本明志,「「サキャパ時代」から「パクモドゥパ時代」へ-チベット語典籍史料における記述の変遷をめぐって-」,『東洋史研究』79, 2021, pp.1-34.

속인 관료가 자신의 정치적 일대기를 회고하였다는 특징은 높은 사료적 가치를 가진다. 예컨대 『司徒遺訓』에는 장춥 걜챈이 만호장으로 재직하면서 접촉한 都元帥, 宣慰使 등 한문 사료에서 확인되는 당시 관명들을 그대로 기록하여 높은 신빙성을 가진다.[17] 또한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팍모두 만호와 몽골과의 역사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데, 이를 통해 당대인의 정치적 관념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그는 자신이 겪은 여러 사건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회고하였기 때문에 당시 역사상을 파악할 때에도 도움이 된다. 환언하면 『司徒遺訓』은 14세기 중앙티베트의 정치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사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18]

사꺄 시대의 뒤를 이어 14세기부터 약 2세기 동안 지속된 것으로 알려진 '팍모두 시대'는 장춥 걜챈이 이룩한 정치적 업적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은 그동안 충분히 고찰되지 못한 중앙티베트의 역사를 잇는 연결고리로서 조명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몽골제국의 흔적을 탐구하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한 주

---

17) 해당 사료의 이러한 중요성과 특징을 활용한 연구도 최근 山本明志가 활발히 진행한 바 있다. 山本明志, 2021; 山本明志, 「モンゴル時代のチベットにおける都元帥」, 『チベット・ヒマラヤ文明の歴史的展開』, 京都: 臨川書店, 2018, pp.25-38.

18) 『司徒遺訓』의 판본은 크게 3종류가 있다. 출간순서대로 나열하면 1) 1974년 인도 뉴델리에서 출간되어 우메(dbu med, 즉 필기체본)로 작성된 *lhag rigs rlangs kyi rnam thar*(직역하면 『天孫朗氏傳記』) 안에 수록된 것(1974뉴델리본), 2) 1986년 西藏人民出版社에서 출간되어 우쩬(dbu can, 즉 인쇄체)로 작성된 *rlangs kyi po ti bse ru rgyas pa*(『朗氏家族』) 안에 수록된 것(1986라싸본), 3) 1989년 서장인민출판사에서 출간되어 우쩬으로 작성된 *ta si byang chub rgyal mtshan gyi bka' chems*(『大司徒・絳曲堅贊遺教』) 등이다(1989라싸본). 본고에서 활용한 『司徒遺訓』은 西藏檔案館 필사본의 오류를 점검하여 『司徒遺訓』 부분만 출간한 1989라싸본의 2013년 재판본(Byang chub rgyal mtshan, *ta si Byang chub rgyal mtshan gyi bka' chems mthong ba don ldan*, Lhasa: Bod-ljongs mi dmangs dpe skrun khang, 1364/2013)을 저본으로 삼았으며, 1986라싸본을 저본으로 하여 1988년 출간된 중역본의 2020년 재판본(大司徒 絳求堅贊 著, 贊拉阿旺, 佘萬治 譯, 陳慶英 校, 『朗氏家族史』, 拉薩 : 西藏人民出版社, 2020)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이하 2013년 재판본은 *si tu bka' chems*으로 표기하겠다.

제로서 중앙티베트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앙티베트는 1240년 돌라다이(Doladai)의 침공을 계기로 몽골과 접촉하게 되었고, 싸꺄 빤디따가 대표로 涼州(byang ngos)에 있는 우구데이의 次子 쿠텐을 방문하였다. 이때 그와 함께한 팍빠는 이후 潛邸 시절의 쿠빌라이를 방문하게 되었고, 이후 쿠빌라이가 대칸[19]에 즉위하고 난 뒤 그의 조정에서 활약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팍빠는 1264년 중앙티베트로 귀환하여 뭉케의 형제들에게 분봉한 만호를 재편하여 싸꺄파가 대표로 관리하는 체제를 수립하였다.[20] 따라서 14세기 중앙티베트의 정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이전 중앙티베트의 만호가 몽골 지배층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먼저 Ⅰ장에서는 팍모두 만호를 중심으로 중앙티베트 만호가 몽골인 諸王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 그리고 쿠빌라이의 원조가 어떻게 중앙티베트의 지배를 확립하였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장춥 걜챈의 등장 배경 및 만호장 재임 초기 그를 둘러싼 중앙티베트의 정세를 살피고, 그 과정에서 몽골의 권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분석을 시도하겠다. 마지막으로 Ⅲ장에서는 장춥 걜챈이 중앙티베트의 일인자로 발돋움하는 과정과 대사도 수봉을 살피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원조와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

19) 몽골제국, 특히 쿠빌라이 집권 이후의 왕조를 '元朝'로 지칭하는 것은 자칫 몽골제국의 대칸이 기존 몽골제국을 포기하고 중국의 한 왕조로 정체성을 바꾸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쿠빌라이가 至元 8년 11월(1271년)에 채택한 것으로 알려진 '大元'이라는 국호는 예케 몽골 울루스(yeke mongγol ulus)의 한자식 표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이해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호동, 「몽골제국과 '大元'」, 『歷史學報』 192, 2006 참고. 본고에서 다루는 중앙티베트 만호들도 대원 건원 이전부터 몽골제국의 지배층들과 역사적 관계를 맺었다. 따라서 본고에서 편의상 사용하는 元, 元朝 등은 모두 몽골제국의 대칸이 직접 통치하는 카안 울루스 및 카안의 조정을 지칭하는 것이며 한자식으로 표기하는 황제들도 대칸 내지는 카안을 의미하는 것임을 미리 밝힌다.

20) 최소영, 「대칸의 스승: 팍빠('Phags pa, 八思巴, 1235-1280)와 그의 시대」, 『동양사학연구』 155, 2021a, pp.129-158; Luciano Petech, 1990, pp.5-31.

이상의 논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존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한 14세기 중앙티베트의 정치사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몽골제국의 영향력이 14세기 티베트 역사에서 어떠한 형태로 남게 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5대 달라이라마와 구시칸의 관계처럼 14세기 이후의 역사에서 유사하게 등장하는 몽골과 티베트의 관계를 이해할 때에도 하나의 참고로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Ⅰ. 팍모두(phag mo gru) 만호와 몽골제국의 정치 관계 형성

1. 팍모두 만호와 몽골 諸王 간의 관계

팍모두 만호는 중앙티베트의 여러 불교 교파 중 팍모두파(phag mo gru pa)를 중심으로 형성된 만호이다. 팍모두파는 까귀파(bka' brgyud pa) 계열의 불교 교파로, 12세기 開祖 도르제 걜뽀(Rdo rje rgyal po, 1110-1170) 이래 라싸(lha sa, 拉薩)에서 동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야를룽(yar rlung)계곡 하류 유역을 근거지로 삼았다.[21] 팍모두파와 몽골과의 관계도 싸꺄파(sa skya pa), 까르마파(kar ma pa) 등 다른 교파와 마찬가지로 1240년 몽골장수 도르따(dor ta, 즉 돌라다이)의 티베트 침공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司徒遺訓』에 의하면, 팍모두파는 憲宗 뭉케(Möngke, r.1251-1259)가 대칸에 즉위한 뒤 실시한 티베트 분봉에서 그의 동생인 훌레구(Hülegü)의 관할지가 되었다.[22]

---

21) 9세기 중반 토번제국이 멸망하고 2세기가 지난 11세기 무렵부터 티베트에서는 불교가 다시금 부활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인도의 후기 密敎가 몇몇 수행자들을 거치며 티베트로 전승되었고, 그 과정에서 감뽀빠 닥뽀 하제(Sgam po pa Dwags po lha rje, 1079-1153)를 통해서 티베트의 주류 교파인 까귀파(bka' rgyud pa)가 탄생하였다. 까귀파는 이후 4대 분파와 8대 지파로 분류가 되는데, 팍모두파는 4대 분파 가운데 감뽀빠의 제자 팍모두빠 도르제 걜뽀를 祖宗으로 삼았으며, 8대 지파의 대부분은 이 팍모두파로부터 파생되었다. 팍모두파의 본산은 본문에 서술한 야를룽 계곡 하류(현 西藏自治區 山南市 乃東區 일대)이며, 대표사원은 댄사틸(gdan sa mthil)이다. 자세한 내용은 石濱裕美子 編著, 김한웅 역, 『티베트, 달라이라마의 나라』, 이산, 2007, pp.60-64 참조. 이하 지명에 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없는 한 Karl Ryavec, *A Historical Atlas of Tibet*,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5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22) 최소영, 2010, p.12. 중앙티베트의 만호 설립 시점은 일반적으로 『漢藏史集』에 명시된 13만호를 기준으로 삼아 그 戶計조사가 이루어진 1268년으로 본다. 沈衛榮, 1988a. 하지만, 『司徒遺訓』에는 1268년 이전부터 댄마 곰쬔(Ldan ma

世祖 쿠빌라이는 즉위 후 뭉케가 실시한 분봉을 재편하면서 형제들에게 분봉된 중앙티베트를 회수하였다. 주목할 점은 이때 훌레구만 유일하게 중앙티베트에서 군대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훌레구가 뭉케 사후 벌어진 쿠빌라이와 아릭 부케(Ariγ böke) 간의 대칸 계승분쟁에서 쿠빌라이를 지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23] 쿠빌라이는 치열한 계승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친동생인 훌레구의 정치적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가 대칸에 즉위한 뒤 중앙티베트의 관할권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훌레구의 권한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몽골 지배세력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중앙티베트가 정략적 대상지가 되었고, 팍모두파는 뭉케 재위 이후 꾸준히 훌레구와 정치적인 관계를 맺었다.

훌레구는 자신의 티베트 관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팍모두파의 主 사원 댄사틸(gdan sa mthil)에 직속시켜 팍모두 만호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케식(kešig, 怯薛)의 한 사람이었던 쿠쿠추(Küküčü)를 다루가치(daruγači, 達魯花赤)로 파견하여 감독하였다.[24] 이상의 행위는 몽골이 침

---

sgom brtson), 도르제 뻴(Rdo rje dpal) 등이 만호장을 역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다른 티베트 사료에서도 이 내용이 확인된다. 따라서 최초의 만호는 1268년 이전, 즉 뭉케가 대칸에 즉위하고 기존 쿠텐 가문의 중앙티베트 관할권을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톨루이계 諸王를 중심으로 1차적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張雲의 주장처럼 뭉케 시기에 13만호 전체가 성립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張雲, 2017, pp.112-115). 대표적으로 야상 만호는 이후 쿠빌라이에 의해 독립 만호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뭉케 시기 초보적인 단계의 만호가 만들어졌고, 이후 쿠빌라이 시기에 13개의 만호가 완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중앙티베트에 설치된 萬戶 편제의 최소단위는 1몽골戶(hor dud)라고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1땅고(rta mgo=50몽골호)를 제외하면 십진법으로 점증하여 1개의 만호가 형성되었다(10호-50호-100호-1,000호-10,000호). 그리고 각호의 수장 역시 10호장-50호장-100호장-1,000호장-10,000호장 순으로 올라가는데, 이상 티베트 만호는 몽골제국의 호계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므로 몽골의 전통적인 병사편제의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앙티베트 만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최소영, 「15세기 티베트 저작 『漢藏史集(Rgya bod yig tshang)』譯註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pp.311-316 참조.

23) 최소영, 2010, p.18.

24) 최소영, 2010, p.35.

공 후 피정복민의 정치적 복속을 받아낸 뒤, 정복지의 재지세력을 활용하여 지배하는 일반적인 패턴을 보여준다. 이때 훌레구의 近侍인 케식이 티베트에 파견되었다는 점이 쿠빌라이에게 뜻밖의 소식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기존의 지적은 그만큼 훌레구와 팍모두파의 관계가 예상 외로 긴밀하게 전개되었음을 시사한다.[25]

선행연구에서는 훌레구의 입장에서 쿠빌라이 즉위 이후에도 그가 중앙티베트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팍모두 만호의 입장에서 볼 때 중앙티베트에서 유일하게 군대 관할권을 가진 몽골 제왕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 역시 중요하였다.

> **우리들에게는 地方保衛者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왕자(훌레구) 측에 "金字使臣이 나타나도 무릎을 꿇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보위자를 청합니다."라고 하였고 "쿠쿠추가 가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다.[26]

위의 기록을 볼 때, 쿠쿠추의 파견은 훌레구가 선제적으로 실시한 것이 아니라 팍모두 만호의 요청에 응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팍모두 만호가 쿠빌라이 집권 후에도 훌레구와의 관계를 활용하여 자신들을 지키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대칸이 파견하는 金字使臣이 오더라도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을"만큼 고위직 인물을 파견해 달라고 한 것은 당시 팍모두 만호가 훌레구의 높은 정치적 지위를 염두에 두고 보낸 요청임을 짐작케 한다. 이는 팍모두 만호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하여 몽골 제왕의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하는 모습을 잘 드러낸다.

---

25) 최소영, 2010, pp.26-28.

26) *si tu bka' chems*, p.11.13-16, "**rang re la yul srung dgos par 'dug pas/** rgyal bu'i drung du gser yig pa su byung kyang pus mo mi 'dzugs shing/ gral 'gor bsdod pa'i yul srung gcig zhu byas pas/ go go che 'gror chug gsung ba'i lung byung 'dug pa/", 『朗氏家族史』, p.84. 이하 티베트어 사료의 쪽수를 표기할 때에는 'p.쪽.줄'의 형태로 표기함을 밝힌다. 예컨대 위의 p.11.13-16은 11쪽 13번째 줄에서 16번째 줄까지를 가리킨다.

이러한 정치적인 관계는 팍모두파의 종교적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댄사틸 사원의 座主가 남긴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1233년부터 1267년까지 댄사틸 사원의 좌주를 역임한 "톡둑빠(Thog brdugs pa)" 닥빠쬔뒤(Grags pa brtson 'grus, 1203-1267)가 1265년경[27] 쿠빌라이 앞으로 작성된 서신은 이 사실을 증명한다.

> 특히 民戶에서, **홀레구의 몫[인] 이 萬戶 하나에** 지금 저희 아래엔 단지 5천 호가 있는데,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며 저희는 황실의 형제들을 대신하여 꾸준히 기도하는 조정의 승려로서 보좌하는 업무를 지켜왔으므로 **저희는 다른 이에게 할당되지 않은 民戶를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만일 [이 제안이] 수용될 수 있다면, 저희가 직접 홀레구 측에 보고하겠습니다**...(후략).[28]

---

27) 해당 서신은 쿠빌라이에게 보낸 것으로, 서신의 내용 중에서 "걜뽀첸뽀 고뻴라(rgyal po chen po go pe la)", 즉 "대칸 쿠빌라이"를 명확하게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서신은 쿠빌라이가 즉위하고 난 뒤인 1260년 이후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당 서신의 내용 중에는 서신이 작성된 해에 팍빠가 중앙티베트에 도착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팍빠가 1247년 싸꺄 빤디따를 따라나선 이후 중앙티베트에 도착한 일은 총 2번으로, 1265년과 1274년이다. 그리고 톡둑빠는 1267년에 圓寂하였기 때문에 그가 말한 팍빠의 중앙티베트 방문은 1265년을 가리키는 것이 되고, 따라서 그가 쿠빌라이에게 작성한 서신 역시 1265년에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팍빠의 전반적인 행적에 대해서는 최소영, 2021a 참고.

28) *rgyal po chen po go pe la phul ba* in *Phag gru'i spyan snga rgyal ba thog brdugs pa'i bka' 'bum las, 'Bri gung du slob dpon rnam gnyis la springs pa, in 'Bri gung bka' brgyud chos mdzod chen mo*, Lhasa: 'bri gung mthil mgon, 2002, vol. 43, pp.235.6-236.2, "bye brag tu mi sde'i phyogs la **hu la hu'i skal ba mi sde khri bskor 'di la/** da lta nged kyi 'og na steng bskor lnga yod pas de bzhing par thugs la btags nas/ rgyal po spun pho bo nu bo la smon lam 'debs kyin yod zla mchod kyi lam la bsdad nas **mi bde gzhan la ma gtogs pa gcig zhus nas/ e 'thad de 'thad na hu la hu'i phyogs su yang nged rang gis zhu ba lags/**"(이하 *thog brdugs pa'i bka' 'bum*); Jampa Samten and Dan Martin, "Letters to the Khans, Six Tibetan Epistles of Togdugpa Addressed to the Mongol Rulers Hulegu and Khubilai, as well as to the Tibetan Lama Pagpa," *Trails of the Tibetan Tradition- Papers for Elliot Sperling*, edited by Roberto Vitali, Dharamsala, India: Amnye Machen Institute, 2014, pp.321-323.

위 대목은 해당 서신이 작성된 목적을 드러내는 부분으로, 팍모두 만호에 추가적인 民戶 사여를 통해 세력을 증대시켜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고승이 정치에 관여하는 모습은 일찍이 諸王 쿠텐의 요청에 응하여 涼州로 파견된 싸꺄 빤디따의 사례만 보더라도 이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전술하였듯 쿠빌라이는 중앙티베트를 재편하여 자신을 정점으로 두는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팍모두 만호가 관련 사무를 쿠빌라이에게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톡둑빠가 명확하게 "이('di)", 즉 팍모두 만호를 "훌레구의 몫"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여전히 팍모두 만호가 훌레구와 계속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위 인용문 후반부에 관련 사무를 훌레구에게 요청하여 진행하겠다는 대목은 훌레구가 팍모두 만호에 가진 권한이 단순한 명분에 그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상은 쿠빌라이의 중앙티베트 재편 뒤에도 한동안 훌레구와 팍모두 만호의 관계는 정치적으로도 긴밀하였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준다.

팍모두 만호와 훌레구의 관계는 이후 장춥 걜챈이 제기한 정치적 주장에서도 합법적인 근거로서 활용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그가 훌레구 시기 팍모두파의 영역을 언급하며 당시 싸꺄파의 관할 영역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결코 작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29] 또한 그가 주변 만호와 벌어진 관할지 분쟁에서 과거에 훌레구에게 속했던 법도를 내세운 것도 팍모두 만호가 훌레구 시기부터 해당 관할지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기 위함이었다.[30]

종교적 측면에서도 팍모두 만호와 훌레구의 관계는 가까웠다. 훌레구는 1255년 海雲禪師가 개최한 법회에 참석한 이래 서아시아 일대로 서방 원정을 떠나기 전까지 그와 연락계속하였을 만큼 불교에 관심을 드러내었다.[31] 그리고 팍모두 만호의 근간이 되는 팍모두파는 불교 교파로서 훌레구에게 종

---

29) Elliot Sperling, "Hulegu and Tibet", *Acta Orientalia Academiae Scientiarum Hungaricae*, Tomus XLIV, 1990, pp.150-151; 최소영, 2010, pp.30-31.

30) *si tu bka' chems*, p.92.20-21,『朗氏家族史』, p.146.

31) Jampa Samten and Dan Martin, 2014, p.305.

교적인 부분을 충족시켜 주었다. 전술한 톡둑빠의 서한 중 훌레구에게 보낸 편지에는 훌레구가 在家信徒로서 수행해야 할 布薩(Upavasatha)의식을 설명하고 그 규율을 따를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32] 이처럼 불교를 매개로 한 교류는 서방으로 이동한 훌레구가 팍모두 만호와 소통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었고, 그 소통의 일환인 서신과 보시들은 자연스럽게 중앙티베트에서 훌레구의 존재감을 상기시켰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티베트 사료에서 드러나는 훌레구의 불교 친화적인 태도는 정치적 분봉지이자 종교적 시주처로서 깊은 관계를 맺은 팍모두 만호에게 큰 정치적 자산이 되었을 것이다.

훌레구의 뒤를 이은 일칸들의 경우는 어떠하였을까. 그들 역시 불교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훌레구의 뒤를 이어 즉위한 2대 일칸 아바카(Abaqa)는 이란 북서부에 위치한 타흐티 슐레이만(Takht-i Sulaimān)에 자신의 夏營地를 건설하면서 여러 불교건축물을 함께 건립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이 건축물에 대하여 그가 당시 불교도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지적되었다.[33] 특히 4대 일칸 아르군(Arghun)은 뚜렷하게 불교에 호의를 드러냈는데, 『集史』에는 그가 부처의 사리를 가지고 온 노카이 울루스(Noqai ulus)의 사신들을 영접하고 이를 기념하여 며칠 동안 연회를 베풀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34] 그밖에도 아르군은 "박시(Bakhshī)들과 그들의 도(道)를 대단히 신임하여 항상 그 무리를 후원하고 지원해주었다"고 평

---

32) *bsnyen gnas yan lag brgyad pa'i cho ga rgyal bu byang chub sems dpa' hu la hu la gdams pa* in *thog brdugs pa'i bka' 'bum,* p.189.2-4; Jampa Samten and Dan Martin, 2014, pp.314-315. 훌레구가 이처럼 불교에 관심을 보인 배경으로 당시 몽골이 벌인 지속적인 전쟁과 살육에 대한 반성적 태도가 지적되었다. 즉, 그는 몽골인이 여러 정복전을 거치며 야기한 살육과 피해에 대하여 회의감을 가졌고, 이에 대하여 불교는 그의 죄를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일례로 훌레구 앞으로 작성된 톡둑빠의 16번 서한에서는 인도의 정복왕 아자타사트루(Ajatasatru)의 불교 개종과 보살행 일화를 언급하며 훌레구의 행위를 정당화하기도 하였다. Jampa Samten and Dan Martin, 2014, pp.304-307.

33) Roxann Prazniak, "Ilkhanid Buddhism: Traces of a Passage in Eurasian History",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56, 2014, p.666.

34) 라시드 앗딘, 김호동 역주, 『集史-일 칸들의 역사』, 파주: 사계절, 2018, p.289.

가되었을 만큼 불교와 가까웠다.[35] 이렇듯 훌레구의 후계자들이 불교에 친숙한 모습을 보인 것은 바로 훌레구가 이란 지역에 정착한 뒤에도 꾸준히 불교와의 접점을 유지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때 일칸들의 조정에 적지 않은 "박시(Bakhshī)", 즉 불교 승려들이 활동하였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 박시들 가운데에는 티베트인 승려가 포함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36] 앞서 훌레구 앞으로 작성된 톡둑빠의 여러 서신은 정황적 증거로서 훌레구의 주변에 티베트어로 작성된 서신을 통·번역하고 그에게 전달할 티베트인 승려가 존재하였음을 시사한다. 특히 아르군의 동생이자 5대 일칸인 게이하투(Gaikhatu)의 이름은 더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集史』에는 그의 이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 **박시들**은 그(게이하투)에게 **이린친 도르지(Irinchin Dorji)**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의 이름으로 소개된 "이린친 도르지"는 티베트 단어 "린첸 도르제(Rin chen rdo rje)"를 기록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박시들"이 게이하투에게 티베트어로 된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점으로, 이는 일칸 주변에 티베트어와 불교에 모두 익숙한 인물이 활동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티베트어가 훌레구의 서방 원정 전부터 이란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던 언어가 아니라면, 이들은 훌레구와 함께한 티베트인 승려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또한 이들은 지도자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는데, 앞서 훌레구 대부터 정치적,

---

35) 『集史-일 칸들의 역사』, p.309.

36) 14세기 페르시아 지역에서 쓰인 "Bakhshī"라는 표현이 티베트 불교 전통에서 유래하였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었다. 원래 "박시"라는 표현은 7세기 위구르집단에서 불교와 관련된 표현으로 사용되긴 하였으나, 몽골인들이 "박시"를 사용할 때에는 불교에 한정되지 않고 전반적인 지식인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集史』에서 "박시"는 일관되게 각종 의례를 거행하는 佛僧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Roxann Prazniak, 2014, pp.662-663.

종교적으로 가까운 불교 교파였던 팍모두파를 떠올리게 한다. 종합하면『集史』곳곳에 등장하는 “박시” 중에는 훌레구 일가와 가까운 티베트인 승려가 존재하였으며, 훌레구와 팍모두파의 관계를 상기한다면 팍모두파 출신 승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을 것이다.[37]

한편, 팍모두 만호와 관련된 또다른 제왕으로 쿠빌라이의 직계 제왕을 꼽을 수 있다. 쿠빌라이는 1260년 대칸에 즉위한 뒤, 至元 6년 10월(1269년)에 자신의 7子 오로치(奧魯赤)를 西平王에 임명하였다.[38] 오로치는 쿠빌라이의 명을 따라 티베트에 군사 작전을 펼쳤는데,『元史』에는 그가 至元 12년 3월(1275년)에 토번(吐蕃)[39], 즉 암도(a mdo)지역을 공격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40] 이때 쿠빌라이가 安西王 망갈라(Mangala), 諸王 지빅 테무르(ǰibig

---

37) 또한 1297년 이후 팍모두 만호장 쇤누 욘땐(Gzhon nu yon tan)의 파직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임시로 팍모두 만호의 사무를 관장한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등장하는 쿠쿠추의 아들 도르제 얄룽빠(rdo rje yar lungs pa) 역시 훌레구 울루스 소속 다루가치의 후손인 점을 감안한다면, 훌레구 울루스와 팍모두 만호의 정치적 관계는 1290년대까지도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소영, 2010, pp.55-58. 도르지 얄룽빠가 팍모두 만호장의 사무를 임시로 관장할 수 있었던 것이 당시 일칸 가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당시 중앙티베트에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였던 鎭西武靖王 혹은 싸꺄 뻰첸에 의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당시 쇤누 욘땐의 파직을 집행한 주체가 鎭西武靖王이었기 때문에 그가 임시조치로써 팍모두 만호에 일정 권한을 가지고 있던 인물들을 지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8) 宋濂 等 撰,『元史』(北京: 中華書局, 1976) 卷6,「世祖本紀」, 至元六年, p.123, “賜諸王奧魯赤駝鈕金鍍銀印.”『元史』 卷108,「諸王表」, p.2746에 수록된 ‘駝紐金鍍銀印-西平王’ 항목에는 오로치와 관련하여 “至元□年封”이라는 기록이 있으므로 오로치가 타뉴금도은인을 수여받은 至元 6년조 기사의 내용이 西平王 봉작임을 알 수 있다. 張雲은 1269년 오로치를 出鎭시킨 쿠빌라이의 조치를 이듬해 팍빠의 帝師 임명과 함께 吐蕃지역에 새로운 국면을 형성시킨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張雲, 2017, p.19.

39) 이 시기 ‘吐蕃’이 가리키는 지리적 범위는 吐蕃等處宣慰司가 관할하는 도매(mdo smad), 즉 오늘날 靑海-甘肅 및 四川 일부 지역을 아우르는 곳을 가리킨다. 당시 중앙티베트는 ‘烏思藏’으로 지칭하였기 때문에 오로치가 중앙티베트까지 진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대 티베트 각 지역의 명칭과 지리범위에 관하여는 김성수,「明朝와 番僧」,『명청사연구』 40, 2013, pp.147-155. 참고.

40)『元史』 卷8,「世祖本紀」, 至元十二年, p.164, “仍敕安西王忙兀剌, 諸王只必帖

temür), 駙馬 長吉 등에게 오로치를 따르게 한 점으로 볼 때 오로치가 티베트 관련 군사 사무를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集史』에 그는 "오룩치(Oğrûqchî)"로 등장하며 쿠빌라이로부터 티베트 지방을 위임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元史』에 기록된 오로치의 티베트 관련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41] 티베트 사료인 『漢藏史集』에도 그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漢地와 티베트 경계에 머물면서 위짱(dbus gtsang, 즉 중앙티베트)에도 와서 많은 반란을 진압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즉, 오로치가 티베트와 관련된 사무를 맡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문-페르시아-티베트 사료가 모두 일치하고 있다.[42] 다만, 티베트 사료나 한문 사료에서 보이는 오로치의 모습은 『集史』의 서술대로 티베트 전역을 위임받아 관할한 것이 아니라 유사시 군사적인 부문에서만 한정적으로 개입하였음을 시사한다.

오로치의 자손들 역시 중앙티베트의 군사 사무를 담당하였다. 오로치의 長子 테무르 부카(Temür buqa)는 大德 元年 3월(1297년) 成宗 테무르(Temür, r.1294-1307)로부터 鎭西武靖王에 봉해졌다.[43] 이는 오로치의 후손이 대대로 티베트의 군사 사무를 전담하였음을 의미한다. 주목할 점은 티베트 사료에서 드러나는 테무르 부카의 모습인데, 『漢藏史集』에는 그가 "大寺院과 법률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였다"는 기술을 남겼다.[44] 이는 그가 중앙티베트에서 군사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종교, 사법 등 영역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漢藏史集』에 기술된 팍모두 만호에 관련 기록 중에는 그가 1299년에 팍모두 만호장 쇤누 욘땐(Gzhon nu yon tan)의 파직과 관련된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45] 그리고 이 사건의 전말은 『司徒

木兒, 駙馬長吉, 分遣所部蒙古軍從西平王奧魯赤征吐蕃."

41) 라시드 앗딘, 김호동 역주, 『集史-칸의 후예들』, 파주: 사계절, 2005, p.364.

42) 최소영, 2019, pp.310-312.

43) 『元史』 卷19, 「成宗本紀」, 大德元年, p.410, "丁丑, 封諸王鐵木而不花爲鎭西武靖王, 賜駝紐印."

44) 최소영, 2019, p.312.

45) G.yas ru Stag tshang pa Dpal 'byor bzang po, *Rgya Bod kyi Yig tshang mkhas pa dga' byed chen mo 'dzam gling gsal ba'i me long*, edited by Kunsang

遺訓』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 그 뒤, "首長 도르제 뻴(Rdo rje dpal)의 조카다"라고 하여 쉰누 욘땐이 만호장을 6년 하였는데, 酒色에 중독되고 무능하게 이 사원의 敵을 만들었으니, 타르마의 보리밭에 말을 묶어놓고, 젖을 바치는 牧戶를 없앴으며, 댄사텔(댄사틸) 사원에 **왕자 테르무르보카(테무르 부카)**의 말 사료를 보내게 하는 등의 사건들이 기억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욀자두 걜뽀(Ol ja du, 즉 Ölǰeitü=成宗 테무르)와 라마 닥빠외세르(Grags pa 'od zer. 5대 帝師)의 때에 여기에서, **왕자 티무르보가와 뾘첸 렉빠뻴(Legs pa dpal)의 面前에서** 돼지해(1299년)[46]에 갸마와 팬월, 궁탕(지역)에서 시와르 섹빠(Zhi bar gshegs pa = 닥빠 린첸)가 고소를 하시어 쉰누 욘땐은 만호장의 직무에서 내려왔고 인장을 빼앗겼다. 조정에 보고하는 자로 上師 췰괸(Mtshul mgon)을 보냈고 조정[의] 施主-福田[관계]으로 詔書, 法旨를 받아서 [시와르 섹빠가] 라뾘(bla dpon)[으로] 12년 재임하셨다.[47]

Topgyel and Mani Dorji, Thimphu, Bhutan, 1454/1979, smad cha(vol. 2), pp.341.1-4(이하 *rgya bod yig tshang*); 達倉宗巴 · 班覺桑布, 陳慶英 譯, 『漢藏史集』, 西寧: 青海人民出版社, 1454/2013, p.309.

46) 티베트에서는 랍중(rab byung)이라고 불리는 60년 주기 역법을 사용한다. 랍중의 첫해는 불-토끼해(me yos)이며 六十甲子로는 丁卯年이고 西曆 1027년에 해당한다. 이하 티베트 사료에서 등장하는 연도의 서력환산은 이하를 참고하여 비정하였음을 밝힌다. 西藏自治區藏醫院 編著, 『公元1-2100年六曆對照西藏萬年曆(3)』, 拉薩: 西藏人民出版社, 2016.

47) *si tu bka' chems*, pp.13.19-14, "de rting dpon rdo rje dpal gyi tsha bo yin zer nas/ gzhon nu yon tan gyis khri dpon lo drug byas dug pa de/ chang nag gi dbang du song nas ma pher gdan sa 'di'i dgra byas/ thar ma'i gsol zhib zhing la rta brten pa/ gsol zho ru ba phyag pa/ gdan sa thel du/ **rgyal bu ther mur bo kha**'i rta gzan gtong ba la sogs dran pa la lhag ma ma bzhag pa'i don la/ ol ja du rgyal po dang/ bla ma grags pa 'od zer gyi dus su/ '**dir rgyal bu thi mur bo ga dang/ dpon chen legs pa dpal gyi drung du**/ phag lo la/ rgya ma dang/ 'phan yul grung thang du zhi bar gshegs pas thugs gsher mdzad nas/ gzhon nu yon tan khri dpon gyi las ka las phab cing/ lag rtags blangs/ gong du zhu ba la slob dpon tshul mgon btang nas/ gong ma yon mchod kyis 'ja' sa 'bka shog thugs la btags/ bla dpon lo bcu gnyis mdzad/"; 『朗氏家族史』, p.86.

위 내용을 통해 테무르 부카가 중앙티베트 만호장의 파직에 관여하였음이 분명하게 확인되며, 이는 鎭西武靖王이 군무 외적으로도 중앙티베트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때 팍모두 만호의 문제가 그를 통해 처리된 이유는 鎭西武靖王이 기본적으로 유사시 티베트에 개입할 수 있었고, 만호장 파직은 군사적인 문제는 아니나 비정상적인 상황에 해당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48] 결과적으로 쿠빌라이계 제왕이 책임자로서 중앙티베트 사무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앞서 팍모두 만호가 훌레구계와 이른 시기부터 정치적 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당시 중앙티베트의 정치적 지형이 변화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팍모두 만호가 훌레구계 제왕이 아니라 쿠빌라이계 제왕에게 직접 사무를 처분받고 있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해당 사건이 벌어진 1299년 무렵에는 쿠빌라이계 제왕이 훌레구의 관할지에도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테무르 부카의 次男 최뻴(Chos dpal. 搠思班) 역시 『集史』와 『元史』에 모두 등장하는 인물로 西番, 四川, 西域 등지의 군사 작전에 활발히 참여하였다. 또 『漢藏史集』에 의하면 최뻴은 부친 테무르 부카와 함께 서부 몽골(stod hor)군을 몰아내고 디궁 곰빠('Bri gung sgom pa)를 처벌하였는데, 이는 1285~1290년에 걸쳐 발생한 '디궁의 난'을 진압한 사실을 가리킨다.[49] 이처럼 西平王-鎭西武靖王으로 이어지는 쿠빌라이의 직계 제왕은 13세기 후반부터 중앙티베트에 정치적, 군사적인 실력을 행사하였으며, 훌레구계와 가

48) 장춥 걜챈이 전임 만호장을 부정적으로 기술한 것에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차야의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즉, 장춥 걜챈과 家系상 거리가 있는 쉰누 욘땐, 걜챈 걉(Rgyal mtshan skyabs) 계열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을 통해 장춥 걜챈 가문이 만호장에 취임하게 된 이유를 정당화하고,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더욱 강조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 Olaf Czaja, 2013, pp.112-114.

49) 최소영, 2019, pp.306-307. 디궁의 난은 싸꺄파의 중앙티베트 지배로 인하여 영지 상실, 팍모두 사원 住持 인선 개입 등 큰 피해를 입은 디궁파 측이 서부 몽골군을 중앙티베트로 불러들여 싸꺄를 공격한 사건을 가리킨다. 이때 서부 몽골군에 대해서는 훌레구 울루스라는 지적이 있다. 사건의 자세한 경과는 최소영, 2010, pp.46-54. 참고

까웠던 팍모두 만호도 새로 부상한 몽골 지배세력을 간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50]

훌레구계 제왕과 쿠빌라이 직계 제왕은 제왕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훌레구는 훗날 쿠빌라이에 의해 권한을 보장받기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뭉케 시기에 쿠빌라이와 동등한 입장에서 중앙티베트를 분봉받았다. 따라서 훌레구는 분봉지 관할의 측면에서 팍모두 만호의 경제권을 조정하고 다루가치를 파견하였다. 반면, 西平王 및 鎭西武靖王은 쿠빌라이의 직계자손으로서 기본적으로 대칸의 명령을 받아 유사시 티베트에 개입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鎭西武靖王은 위짱지역의 행정에 일부 관여할 수는 있었지만 徵稅, 驛站 등 구체적인 경제 사무까지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된 바 없으며, 그 분야는 宣政院을 필두로 한 조정에 예속되어 있었다.[51] 그럼에도 불구하고 鎭西武靖王은 쿠빌라이의 집권이 공고해질수록 중앙티베트에서 영향력이 강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와 대조적으로 중앙티베트에서 특권을 부여받은 훌레구 가문의 지배권이 점차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디궁의 난 때 鎭西武靖王 최뻴이 디궁의 난을 진압하고 디궁파를 지원하러 온 서부 몽골(stod hor)군대마저 격퇴한 사실은 이 역학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52]

결국 팍모두 만호는 대칸의 힘을 업고 중앙티베트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鎭西武靖王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西平王과 鎭西武靖王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티베트에는 원조의 정치적 지배가 자리하게 되었는데, 다음 절에서 이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50) 앞서 제시한 사료에서 쇤누 욘땐의 비위 가운데 하나로 테무르 부카에게 보낼 말 사료가 언급된 사실을 볼 때 鎭西武靖王이 티베트에 왕래 시 팍모두 만호를 비롯한 중앙티베트 만호가 그 물품 등을 조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51) 張雲, 2017, p.25.

52) 이와 관련하여 최소영은 훌레구 울루스가 14세기까지도 華北 彭德路에 분봉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13세기 말까지 쿠쿠추의 아들 도르제 얄룽빠(Rdo rje Yar rlung pa)가 활동하였음을 근거로 훌레구 울루스 세력이 중앙티베트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졌을 것이라는 견해에 반대하였다. 최소영, 2010, pp.55-59.

2. 元朝의 중앙티베트 지배 확립

西平王과 鎭西武靖王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元, 즉 카안 울루스는 쿠빌라이 재위기에 중앙티베트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해 나갔다. 쿠빌라이는 1264년 國師 팍빠('Phags pa)를 중앙티베트로 귀환시킨 뒤 조정에 (釋敎)總制院을 설치하고 국사 휘하로 두어 불교와 중앙티베트 사무를 관할케 하였다.[53] 이 시기 팍빠는 대부분의 시간을 大都, 上都 등 수도가 아니라 현 甘肅-靑海 일대인 암도(a mdo)지역에서 보냈다. 그럼에도 조정에 총제원이 설치된 것은 중앙에서 티베트 사무를 관리하려는 의지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54] 이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기구는 宣政院이다. 선정원은 1288년 총제원에서 개칭되었는데, 과거 唐에서 吐藩의 사신을 宣政殿에서 맞이한 데에서 기원하였고 당시 總制院使였떤 桑哥의 주청에 의해 이루어졌다.[55] 『元史』「百官志」에 따르면 宣政院은 從1品 기관으로, 吏部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때 宣政院 관원 인선에서 僧俗並用을 원칙으로 제사가 추천한 인물이 임명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제사가 宣政院 사무에 관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56] 또한 티베트에 소요가 발생

---

53) Luciano Petech, 1990, p.33; 『元史』 卷87, 「百官三」, p.2193, "至元初, 立總制院, 而領以國師."

54) Luciano Petech, 1990, p.34. 이러한 의도는 「釋老傳」에도 잘 드러난다. 즉, 쿠빌라이는 티베트를 지배하기 위해 팍빠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元史』 卷202 「釋老傳」, p.4520, "及得西域, 世祖以其地廣而險遠, 民獷而好鬪, 思有以因其俗而柔其人, 乃郡縣土番之地, 設官分職, 而領之於帝師."

55) 『元史』 卷97, 「桑哥傳」, p.4574, "桑哥又以總制院所統西蕃諸宣慰司, 軍民財穀, 事體甚重, 宜有以崇異之, 奏改爲宣政院, 秩從一品, 用三臺銀印."

56) 『元史』 卷202, 「釋老傳」, p.4520, "乃立宣政院, 其爲使位居第二者, 必以僧爲之, 出帝師所辟舉, 而總其政於內外者, 帥臣以下, 亦必僧俗並用, 而軍民通攝. 於是帝師之命, 與詔敕並行於西土." 티베트어 사료에서는 종종 제사와 대칸의 관계가 욘최(yon-mchod), 즉 施主-福田이라는 특수한 종교적 관계로 묘사된다. 그러나 여기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내포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는 기왕의 지적을 고려하면, 원조의 지배자인 대칸이 욘최라는 특수한 관계를 통해 티베트를 政-敎 양 측면에서 지배하고자 하였음을 지적할 수 있다. 沈衛榮, 「中世紀西藏

할 경우 티베트 현지에 分院을 설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57]

宣政院이 티베트와 관련된 사무를 직접 담당한 사실은 한문 사료에서 확인된다. 宣政院은 至元 29년 9월(1292년) 중앙티베트에 烏思藏納里速古魯孫等三路宣慰使司都元帥府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고, 해당 기관은 宣政院의 하위 기구로 설치되었다.[58] 또, 仁宗 아유르바르와다(Ayurbarwada. r.1311-1320)는 至大 4년 8월(1311년) 西番의 군사사무를 宣政院에 예속시켰는데, 이는 선정원이 가진 티베트 관할업무에서 군사적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59] 또한 宣政院은 티베트 지역의 驛站을 관리하고 그 운영을 담당하였다. 앞서 언급한 鎭西武靖王 최뻴은 皇慶 2년 12월(1313~1314년) 宣政院에 티베트 지역 역참의 열악함을 보고하며 賑濟를 요구하였다. 해당 보고를 받은 宣政院은 中書省과 논의하여 中統鈔를 지급하고, 필요시 宣政院이 관할하는 물자까지 활용하여 티베트의 역참을 진제하는 것으로 사무를 처리하였다.[60] 또한 延祐 6년 4월

史家筆下的蒙元王朝及其與西藏關系」,『重新講述蒙元史』, 張志强 主編, 北京 : 三聯書店, 2016, pp.151-153; 沈衛榮,『大元史與新淸史』,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2019, pp.94-95.

57) 『元史』 卷87, 「百官三」, p.2193, "宣政院, 秩從一品. 掌釋敎僧徒及吐蕃之境而隸治之. 遇吐蕃有事, 則爲分院往鎭, 亦別有印. 如大征伐, 則會樞府議. 其用人則自爲選. 其爲選則軍民通攝, 僧俗並用."

58) 『元史』 卷17, 「世祖本紀」, 至元二十九年, p.367, "丁亥, 從宣政院言, 置烏思藏納裏速古兒孫等三路宣慰使司都元帥."

59) 『元史』 卷24, 「仁宗本紀」, 至大四年, p.546, "敕西番軍務隸宣政院."

60) 『永樂大典』(明鈔本, 四庫全書存目叢書補編, 濟南: 齊魯書社, 2001) 卷19421, 「站赤六」, "初皇慶二年十二月, 搠思班武靖王令旨言於宣政院, 謂烏思藏, 朶甘思, 朶思麻三路站赤, 近年以來馬匹病死, 人戶貧乏, 請聞奏賑濟事. 本院啓奉皇太后懿旨, 令與都省同議賑濟之宜. 檢會得至元二十九年, 元貞二年, 小只愛亦伯朶甘思烏思藏等站經值寇攘, 中書亦嘗給降馬牛寶鈔, 差官接濟. 今烏思藏等, 除小站七所勿論, 其大站二十八處遞送西番布施, 來往之使實繁, 人户數少. 驛程近者不下三五百里, 年深未曾給惠. 省院公議, 依例接濟. 又爲在京錢物不敷, 定擬二十八站各給中統鈔三百錠, 總計八千四百錠. 若或不足, 就於宣政院所轄西番課程錢物內斟酌增給. 都省官啓奉皇太后懿旨. 宣政院官暗普等言, 前站重困, 非增多賑濟不可. 宜支鈔一萬錠以與之. 至如西番出産物貨及供奉於我者亦可增與整治站赤. 敬此. 奏奉聖旨, 準上給降賑濟去訖." 이 기록은 宣政院의 역참 관련 사

(1319년) 아유르바르와다가 직접 宣政院에 토번의 역참 진휼을 명령하였다.[61] 이상을 통해 선정원이 14세기 초에도 티베트 사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宣政院은 티베트 사무를 담당하는 조정의 최고기관으로서 14세기에 들어서도 그 역할과 위상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宣政院 아래에 처음 설치되었던 烏思藏宣慰[使]司 역시 원조의 중앙티베트 지배 확립의 증거로 볼 수 있다. 『元史』에 따르면 漢地에 설치된 宣慰司는 직급상 郡縣과 行省 사이에서 군사 및 민사 업무를 관장하였으며, 변경지역에서 군사연락기능이 필요한 경우에는 都元帥府를 겸하여 설치되었다.[62] 중앙티베트에서는 1270년대 말 발생한 반란과 1280년 팍빠의 사망을 계기로 烏思藏宣慰司가 1281년경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63] 오사장선위사는 한지처럼 行省에 속하지 않고 宣政院(總制院)에 직속되었으므로 직제상의 차이는 존재하나, 이상 선위사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오사장선위사도 총제원 휘하에서 중앙티베트의 군정 및 민정을 관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앙티베트는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宣政院과 중앙티베트 간의 연락도 담당하였을 것이다.[64]

오사장선위사는 전술한 것처럼 烏思藏納里速古魯孫等三路宣慰使司都元帥府로 한 차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 기관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짱-아리3圍(烏思-藏-納里速古魯孫, 즉 dbus－gtsang-nga' ris skor gsum), 즉 중앙

무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鎭西武靖王 최뻴이 직접 티베트 현지의 사정을 파악하여 중앙에 보고하는 모습도 확인되므로 티베트에서 鎭西武靖王이 가진 영향력을 보여준다.

61) 『元史』 卷26, 「仁宗本紀」, 延祐六年, p.589, "丙午, 命宣政院賑給西番諸驛. "

62) 『元史』 卷91, 「百官七」, '宣慰司', p.2308, "宣慰司, 掌軍民之務, 分道以總郡縣, 行省有政令則布於下, 郡縣有請則爲達於省. 有邊陲軍旅之事, 則兼都元帥府, 其次則止爲元帥府."

63) 陳得芝, 「再論烏思藏"本欽"」, 『蒙元史研究叢稿』, 北京: 人民出版社, 2005a, p.303.

64) 陳慶英, 「夏魯的元朝帝師法旨」, 『西藏民族學院學報』 1988-4, p.44.(陳慶英, 『陳慶英藏學論文集』,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2006, p.383.)

티베트 지역을 관할범위로 명시하고 있다.[65] 또한 기존 선위사에 도원수부가 더해진 것은 해당 기관이 설치되기 직전 중앙티베트에서 일어난 디궁의 亂(1285-1290)을 겪으며 군사적 필요성이 증대된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다.[66] 그리고 『元史』「百官志」에서 烏思藏納里速古魯孫等三路宣慰使司都元帥府 휘하에 중앙티베트 만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도 중앙티베트가 宣政院-宣慰司를 통하여 중앙조정에 분명히 예속된다는 점을 드러낸다.

중앙티베트로 눈을 돌리면, 원조가 현지 행정을 담당한 싸꺄 뻰첸(dpon chen)을 중앙의 제도권으로 넣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67] 원래 "뻰첸"이라는 명칭은 티베트불교의 高僧을 의미하는 라마(bla ma)의 侍從으로서 사원의 세속업무를 담당하는 수장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싸꺄파는 몽골과 접촉한 이후 싸꺄 빤디따, 팍빠 등 교파를 대표하는 고승들이 떠나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다. 그리고 그들이 몽골 지배층으로부터 중앙티베트의 관할권을 받게 되자 현지에 남아 있던 싸꺄 뻰첸의 직능이 자연스럽게 확대되었고 중앙티베트의 행정 전반을 관할하게 되었다.[68]

『紅冊(deb ther dmar po)』에 기술된 싸꺄 뻰첸들의 기록과 원조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初代 싸꺄 뻰첸으로 기록된 싸꺄 상뽀(Sha+kya bzang po)는 烏思藏三路軍民萬戶(dbus-gtsang zam klu gun min dbang hu)라는 명칭의 인장을 수여받았다.[69] 이는 싸꺄 뻰첸이 일찍부터 원조로부터 오사장, 즉 중앙

---

65) 『元史』 卷17, 「世祖本紀」, 至元二十九年, p.367; 卷87 「百官三」, pp.2198-2200, "烏思藏納裏速古魯孫等三路宣慰使司都元帥府....其屬附見...(후략)".

66) 최소영, 2019, p.311.

67) 張雲은 '뻰첸=宣慰[司]使'로 보고, 뻰첸이라는 명칭은 중앙티베트에서 宣慰[司]使를 가리키는 俗稱으로 간주하여 '뻰첸=선위사'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張雲(2017), p.25. 뻰첸과 선정원 및 선위사의 정확한 관계는 규명의 여지가 있지만, 싸꺄 뻰첸이 원조와 관련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므로 어느 입장이라도 본고의 논지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뻰첸과 원조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학계 간의 입장에 대해서는 乙坂智子, 「元朝の對チベット政策に關する研究史的考察」, 『横浜市立大學論叢』, 55, 2004, pp.247-266. 참고

68) 최소영, 2019, pp.318-319.

69) 『紅冊』 시킴본에 기록된 dbang hu는 발음상 "왕후"로 읽히고, 일역본에서는 이

티베트의 행정 전반을 관할하는 역할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5대 싸꺄 뻰첸 장춥 린첸(Byang chub rin chen)은 쿠빌라이에 의하여 宣慰司의 長官(zon wi si'i mi dpon)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13대 싸꺄 뻰첸 외세르 셍게('Od zer seng ge) 역시 "宣政院의 인장(swon ching dben gyi dam kha)"을 받았다는 기록이 확인된다.[70]

다른 싸꺄 뻰첸들의 경우 宣政院 내지는 宣慰司와의 관련 여부가 기술되지는 않았으나, 여러 단편적인 사료들을 종합해 보면 선행연구의 주장처럼 중앙티베트에 선위사가 설치된 이후 모든 싸꺄 뻰첸이 宣慰使에 임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71] 예컨대 『元史』「世祖本紀」에는 至元 25년 10월(1288년) "烏思藏宣慰使 軟奴汪朮"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은 『漢藏史集』에 따르면 당시의 싸꺄 뻰첸이었으며 『紅冊』에 등장하는 7대 싸꺄 뻰첸 쇤누왕축(Gzhon nu dbang phyug)이다[72]. 또한 9대 싸꺄 뻰첸 악렌(Ag len)은 *Tibetan Painted Scrolls*에 수록된 샬루(zha lu)문서 2호 法旨(1295년 발급)에서 "악렌과 야왜오쾰을 필두로 하는 선위사 관원들"이라는 문구로 확인되므로 그 역시 선위사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73] 그리고 전술한 외세르 셍

를 "王府"로 재구하였다. Tshal pa Kun dga' rdo rje, *Deb ther dmar po*, Gangtok: Namgyal Institute of Tibetology, 1363/1961, p.48.2-3(이하 *deb ther dmar po*); 稻葉正就, 佐藤長 譯, 『フゥランテプテル: チベット年代記』, 東京 : 法藏館, 1964, pp.125-126.(이하 『フゥランテプテル』) 반면 『漢藏史集』에서는 싸꺄 상뽀가 받은 칭호를 zam ru gun ming dben hu로 기록하였다. 최소영, 2019, p.355. dben hu는 "웬후"로 발음되고 "萬戶"로 재구된다. 이후 싸꺄 뻰첸들이 중앙티베트 만호를 관할하였기 때문에 dbang hu는 만호를 옮긴 것으로 보는 편이 적절하다.

70) *deb ther dmar po*, 1363/1961, p.48.5-6, 48.8; 『フゥランテプテル』, p.126.

71) 陳得芝, 「元代烏思藏宣慰司的設置年代」, 『蒙元史研究叢稿』, 北京 : 人民出版社, 2005b, p.111.

72) 『元史』 卷15 「世祖本紀」, 至元二十五年, p.315, "烏思藏宣慰使軟奴汪朮嘗賑其管內兵站饑戶, 桑哥請賞之, 賜銀二千五百兩."

73) 陳得芝, 2005b, p.111; 陳慶英, 1988-4, pp.41-45(陳慶英, 2006, pp.380-384); Giuseppe Tucci, 1949, pp.747-748, "ag len dang ya was o khol gyis mgo byas/ swon hu si'i mi dpon rnams".

게도 샬루문서 5호 法旨(1316년 발급)에서 “외세르 셍게를 필두로 하는 선위사의 관원들”로 등장하고 있다.[74] 또한 장춥걜챈과 동시기에 싸꺄 뻰첸을 지낸 걜와 상뽀(Rgyal ba bzang po)도 『元史』에서 文宗 툭 테무르(Tuγ temür. r.1328-1330/1330-1332) 연간에 烏思藏宣慰使都元帥로 재직하였음이 확인된다.[75] 마지막으로 『漢藏史集』에서는 싸꺄 상뽀 이후 “다른 대다수의 뻰첸들에게는 等三路宣慰使都元帥라는 호칭과 虎頭六陵銀印을 하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76] 여기서 등삼로선위사도원수는 烏思藏納里速古魯孫等三路宣慰使司都元帥府를 지칭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역대 싸꺄 뻰첸들이 꾸준하게 선위사도원수에 임명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상을 볼 때 싸꺄 뻰첸은 중앙티베트의 행정을 관할하는 首長으로서 선정원의 관원에 임명되는 것으로 원조의 공인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77]

그밖에 『司徒遺訓』에 등장하는 ‘都元帥(du dben shwa)’들 역시 싸꺄 뻰첸처럼 원조로부터 관직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야마모토 메이시는 티베트 인명을 가진 도원수들이 만호장(khri dpon), 싸꺄 뻰첸 등 현지세력과 가계상 연관성을 가졌다는 점을 밝혔다.[78] 예컨대 『司徒遺訓』에 등장하는 도깝(Rdo skyabs) 도원수는 자신의 출신을 챌파(tshal pa)라고 직접

---

74) 陳得芝, 2005b, p.111; Giuseppe Tucci, 1949, pp.749-750, “'od zer seng+ges g+ho byas swon wi swi'i mi dpon”.

75) 『元史』 卷34 「文宗本紀」, 至順元年, p.750, “乙酉, 以西僧加瓦藏卜, 蘸八兒監藏並爲烏思藏土蕃等處宣慰使都元帥.”

76) 최소영, 2019, p.318; *rgya bod yig tshang*, stod cha(vol. 1), pp.387.6-388.1.

77) 沈衛榮, 2019, pp.108-109.

78) 그는 『司徒遺訓』에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는 여러 都元帥는 모두 宣慰使라고 주장하였다. 그가 제시한 근거는 『元史』 「百官志」에 烏思藏納里速古魯孫等三路宣慰使司都元帥府에 소속된 宣慰使가 5명이라는 기술(卷87, 「百官三」, P.2198), 그리고 『大元聖政國朝典章』(元刊本, 北京: 中國廣播電視出版社, 1998, 이하 『원전장』) 吏部-官制-職品-內外文武職品-從2品-外任-軍民職에서 烏思藏納憐悚古里孫等處路의 관원 명칭이 “各處宣(尉)[慰]司[都]元帥”로 기술되어 있는 점 등이다. 그 가운데 싸꺄 뻰첸은 티베트 사료에서 도원수보다 높은 지위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5인의 宣慰使 가운데서도 제일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보았다. 山本明志, 2018, pp.28-33.

밝히고 있다. 챌파는 중앙티베트 13개 만호 가운데 하나로서, 위(dbus)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 다른 도원수인 도르제 괸뽀(Rdo rje mgon po)의 부친은 전술한 싸꺄 뾘첸 악렌의 아들로 소개되어 있다.[79] 따라서 원조는 도원수라는 관직을 통해 중앙티베트의 재지세력을 조정과 연결시킬 수 있었고, 중앙티베트에 대한 정치적 장악력을 높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조의 중앙티베트 지배 양상은 만호장 임면 내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여러 티베트 사료에서 확인되는 초기 팍모두 만호장들과 그 임면에 관련된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티베트 사료에서 확인되는 초기 팍모두 만호장과 任免 내용

『漢藏史集』[80]	1.댄마 곰쬔	2.도르제 뻴 (1254-1266)	3.쇤누 걜챈 (1266-1269)	4.장쇤 = 장춥 쇤누	5.쇤누 욘땐	6.린뽀체 쭝갸
	7.걜챈 뻴	8.닥상 = 닥빠 상뽀	9.걜챈 꺕			
『紅冊』[81]	1.곰쬔 = 댄마 곰쬔	2.도르제 뻴	3.쇤누 걜챈	4.장쇤 = 장춥 쇤누	5.쇤누 욘땐	6.린뽀체 쭝갸
	7.걜챈 뻴	8.닥상 = 닥빠 상뽀	9.걜챈 꺕			
『司徒遺訓』[82]	1.댄마 곰쬔	2.도르제 뻴	3.쇤누 걜챈	4.캔뽀 린걜	5.장쇤 =장춥 쇤누	6.쇤누 욘땐 (1294-1299)
	7.시와르 섹빠 =닥빠 린첸 (1299-1310)	8.걜챈뻴 상뽀 (1310-1316)	9.닥빠 상뽀 (1316-1318)	10.걜챈 꺕 (1318-1322)		

종합	1.댄마 곰쬔	2.도르제 뻴	3.쇤누 걜챈	4.캔뽀 린걜	5.장춥 쇤누	6.쇤누 욘땐
	7.닥빠 린첸	8.걜챈뻴 상뽀	9.닥빠 상뽀	10.걜챈 꺕		

*숫자는 만호장 재임순서.

*원조를 직접 방문하거나 조정 측에 주청한 뒤 만호장에 임명된 경우가 확인된 인물 = ▨

*쇤누 욘땐(▨)은 비위 문제로 피소되어 조정의 보고를 통해 만호장에서 파면됨.

*사료에서 직접 재임 연도 혹은 재임 기간을 명시한 인물들의 연도는 괄호 안 숫자로 별기.

---

79) 山本明志, 2018, pp.33-35.

80) *rgya bod yig tshang*, smad cha(vol. 2), pp.338.1-342.4;『漢藏史集』, pp.308-309.

81) *deb ther dmar po*, 1363/1961, pp.73.9-74.9;『フゥランテプテル』, pp.190-191.

82) *si tu bka' chems*, pp.8.4-5, 12.18-19, 13.9, 13.13, 13.19, 14.2, 14.16, 23.9, 27.1.

이상의 표는『漢藏史集』,『紅冊』,『司徒遺訓』 등 티베트 사료에 기록된 장춥 걜챈 직전까지의 팍모두 만호장 계보를 정리한 것이다. 여러 사료의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初代 팍모두 만호장 댄마 곰쬔(Ldan ma sgom brtson)[83] 부터 걜챈 깝(Rgyal mtshan skyabs)까지 총 10명의 팍모두 만호장 가운데 조정에 의한 임면이 확인되는 인물은 총 9명으로 집계된다. 쇤누 욘땐(Gzhon nu yon tan)의 경우 만호장 임명에 관한 언급은 없지만, 세 사료 모두 鎭西武靖王 테무르 부카(Temür buqa)의 티베트 방문 시 피소되어 재판을 통해 파면되었다고 기술하였다. 특히『漢藏史集』과『紅冊』에서는 쇤누 욘땐의 파직이 조정에 보고된 뒤에 이루어졌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당시 진서무정왕이 대칸의 명을 받아 티베트 사무에 개입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고려하면 만호장 쇤누 욘땐의 파면도 조정의 의지가 관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팍모두파 측의 사료인『司徒遺訓』에서는 앞선 두 사료와 달리 캔뽀린걜(Mkhan po rin rgyal)이라는 또 한 명의 만호장을 더 기술하고 있다(<표 1> 중『司徒遺訓』4번 인물). 다만, 이 인물은 불과 2년 만에 만호장직에서 내려왔다는 기술이 덧붙여져 있기 때문에 다른 교파 측의 사료에서는 그의 짧은 재직기간으로 인해 만호장 재직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9대 만호장 닥빠 상뽀(Grags pa bzang po)도 조정에 의한 임명이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싸꺄파에 청한 뒤에 만호장에 임명되었다"는 기술이『漢藏史

83) 차야는 곰쬔이 만호장으로서 虎頭印과 같은 인증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으며, 쨴아의 연대기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료에서 萬戶長(khri dpon)으로 지칭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댄마 곰쬔을 공식적인 팍모두 만호장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Olaf Czaja, 2013, pp.98-99. 하지만『漢藏史集』에는 댄마 곰쬔이 만호장직을 달았다는 기록이 분명히 존재하며("댄마 곰쬔이라는 자가...하부 몽골에 복속하여 만호장의 이름을 달았다"), 곰쬔이 속한 디궁파의 자료에서만 그를 '만호장'으로 지칭하였다는 점은 오히려 곰쬔이 실제로 만호장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rgya bod yig tshang*, smad cha(vol. 2), pp.338.6-339.1;『漢藏史集』, p.308.『司徒遺訓』에 따르면, 팍모두파는 도르제 뻴(Rdo rje dpal) 이전에 만호의 상태로 훌레구에게 귀속된 상태였으며 도르제 뻴이 곰쬔의 대체자로 임명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팍모두 만호를 최초로 관리한 인물, 즉 초대 만호장을 댄마 곰쬔으로 간주해도 무리는 없다. *si tu bka' chems*, pp.7.20-8.15;『朗氏家族史』, pp.81-82.

集』과 『紅冊』에 공통적으로 기술되어 있다(<표 1> 중 『紅冊』-『漢藏史集』 8번 인물).[84] 싸꺄파가 팍빠 이래로 중앙티베트 현지의 행정을 담당한 사실[85]과 싸꺄 뾘첸이 중앙티베트 선위사에 임명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닥빠상뽀는 싸꺄파를 거쳐 원조로부터 공식적으로 만호장에 임명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상 팍모두 만호장의 사례는 중앙티베트의 만호장 임면이 기본적으로 현지에서 처리되지 않고 대칸의 공인을 거쳤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는 중앙티베트의 만호가 宣慰司를 거쳐 宣政院에 소속된다는 『元史』의 기술과도 호응한다.

이러한 모습은 팍모두 만호에만 그치지 않았다. 위(dbus) 지역 라싸 일대를 근거지로 삼은 챌파 만호 역시 몽골제국 시기 자신들의 세속수장, 즉 챌파 만호장들의 임명을 기술하였다.[86] 아래는 18세기 챌파 측 사료 『궁탕志

---

84) Olaf Czaja, 2013, p.113; *deb ther dmar po*, 1363/1961, p.74.8; *rgya bod yig tshang*, smad cha(vol. 2), p.342.3, “grags bzang sa skya pa la zhus nas bskos.”

85) Luciano Petech, 1990, pp.33-36.

86) 챌파 측 사료인 『궁탕志』(gung thang dkar chag)에 따르면, 챌파(tshal pa)의 고승 궁탕빠(gung thang pa)는 쿠빌라이가 대칸에 즉위하기 전에 그가 대칸이 될 것을 예언하고, 훗날 챌파를 잘 대우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궁탕빠(gung thang pa)는 그의 제자 고벨라(go be la, 쿠빌라이)왕자가 훗날 카안에 즉위할 것을 알고 다음과 같은 예언들을 하였다: “너는 훗날 카안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그때 챌 궁탕(tshal gung thang)이라고 불리는 나의 本寺가 존속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최선을 다해 여기에 지원을 해야 한다” 고벨라 왕자는 몸을 떨며 “고귀한 라마시여, 그러한 큰 말을 하지 마십시오! 훗날 그런 때가 온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압니다” (등등). 직후에 고벨라는 카안으로 즉위하였고, 그는 몽골(hor)의 쎄첸 황제(se chen rgyal po)가 되었다. 그는 35년간 재위하였다. 세첸 황제는 즉위하기 전 라마 궁탕빠의 예언들에 따라 챌 궁탕과 챌파의 가르침의 근본을 이루는 승려집단(僧伽)을 소유하였다.”, 'Jog ri ba Ngag dbang bstan 'dzin 'phrin las rnam rgyal, *Gung thang dpal gyi gtsug lag khang byung rabs dang bcas pa'i dkar chag 'gro mgon zhal lung bdud rtsi'i chu rgyun*, Lhasa: tshal gun thang mgon, 1782/2016, pp.30b.6-31a.3(이하 *gung thang dkar chag*); Per K. Sørensen & Guntram Hazod, *Rulers on the Celestial Plain: Ecclesiastic and Secular Hegemony in Medieval Tibet: A Study of Tshal Gung-thang*, Wien: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vol. 1, p.151.

(gung thang dkar chag)』에 기재된 쿠빌라이 이후 챌파 만호장들의 만호장 취임과 관련한 연도들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2> 쿠빌라이 즉위 후(1260)~1350년까지 챌파 세속수장(만호장)의 계보[87]

이름	5. 린걜와 (Rin rgyal ba)	6. 니마 셰랍 (Nyi ma shes rab)	7.가데 뻴와 (Dga' bde dpal ba)	8. 린첸 셍게 (Rin chen seng ge)	9. 묀람 도르제 (Smon lam rdo rje)	10. 뀐가 도르제 (Kun dga' rdo rje)
생몰년	1233-1289	1253-1279	1254/1256 -1310	1278-1299	1284 -1346/1347	1309 -1364/1365
세속수장 (dpon sa) 재직기간	1254(1255)-1279	1269-1279	1268-1310	1295-1299	1303-1323	1323-1350
조정방문 시점	1260	1272	1271(1281)	1297	1308	1325

*위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수장직(dpon sa)에 오른 뒤 조정에 가서 황제의 환대를 받았으며, 詔書('ja' sa)를 받고 중앙티베트에 돌아왔다는 설명이 기술되어 있음.

*7대 세속수장 가데 뻴와의 경우, 사료상으로는 세속수장 재임(15세) 이후 3년 뒤(18세)에 조정에 가서 황제의 조서를 받아왔다고 되어 있으나, 선행연구에서 1281년으로 비정하여 우선 이를 따름.

87) *gung thang dkar chag,* p.31a.4, 31b.4, 32a.1, 35b.1-2, 36b.3-4. 이 중 린걜와-니마 셰랍 · 가데 뻴와 / 가데 뻴와-린첸 셍게 · 묀람 도르제 / 묀람 도르제-뀐가 도르제의 재임기간이 겹치는데, 재임기간이 겹치는 인물 간의 관계는 모두 父子 관계이다. 이는 부자간의 동시 재임기간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서 Per K. Sørensen and Guntram Hazod, 2007, p.184, 194. 참고. 만호장 계승 하한선을 뀐가 도르제까지 설정한 이유는 그가 1350년경 장춥 걜챈에게 패배하게 되면서 챌파의 권리를 팍모두 만호에게 넘겨주어 사실상 만호장으로서의 힘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한편, 가데 뻴와의 조정 방문 시점에 관하여 『궁탕志』에서는 "그의 나이 16세에 조정에 가서"라고 명기하고 있어 그가 1271년경에 방문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연구서에서는 조정 방문 시점을 1281년으로 비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점도 표에 병기하였다. 다만, 해당 연구가 『궁탕志』의 상기한 대목을 근거로 연대를 추산하였기 때문에 1271년을 단순히 오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챌파의 세속수장들은 5대 세속수장 린걜와(Rin rgyal ba)부터 세속수장으로 뽑힌 뒤 漢地, 즉 카안 울루스로 가서 대칸을 알현하였다.[88] 이 양상은 14세기에도 마찬가지였고, 武宗 카이샨(Qaišan, r.1307-1311)은 챌파를 싸꺄파와 비교하며 "특별한 가족"이라고 하였을 만큼 챌파와 사적인 친밀감도 드러냈다[89]. 그리고 위 표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챌파 만호장들은 모두 임명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카안을 직접 알현하였으며, 많은 보시와 함께 챌파에 속한 민호들의 관할권을 조서를 통해 재확인받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앞서 팍모두 만호장도 대체로 챌파 만호장과 마찬가지로 대칸을 알현하고 난 뒤 만호장에 임명되었다. 필자는 이상의 공통점이 두 만호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당시 중앙티베트의 모든 만호장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절차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두 만호를 제외한 다른 만호장들의 임면 내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대칸이 중앙티베트 만호의 존속을 직접 다룬 사례가 있다. 『디궁法嗣』('bri gung chen po'i gdan rabs)에 따르면, 디궁의 난이 진압된 이후 디궁사원의 좌주 일행은 본래 근거지를 떠나 꽁뽀(kong po, 지도 1 참조)지역에서 3년간의 망명생활을 하였다. 디궁의 난은 쿠빌라이의 명을 받은 몽골군의 개입으로 진압되었기 때문에 디궁파의 망명은 쿠빌라이의 처분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 디궁파에서 자발적으로 반란분자들을 처결하고 서부 몽골군(stod hor)을 격퇴하는 군공을 세우자 쿠빌

---

88) 『궁탕志』에는 린걜와가 1259년 쿠빌라이의 南詔 원정에 종행하여 군사적으로 기여하였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쿠빌라이의 大理원정은 1253년에 이루어졌으므로 1259년은 오기로 보인다. 챌파는 린걜와의 공적에 힘입어 "세첸 황제의 館(se chen gyi pho brang)"이라고 불리는 사적인 성격이 강한 사원도 가지고 있었다. Per K. Sørensen & Guntram Hazod, 2007, pp.42-43.

89) *gung thang dkar chag*, p.34a.3; Per K. Sørensen & Guntram Hazod, p.191. 사료에서는 "몽골 황제"로만 등장하지만, 인용한 대사를 건넨 시점이 티베트력 원숭이해(1308년) 이후이므로 이 황제를 武宗 카이샨으로 비정할 수 있다. 참고로, 『紅冊』 말미에 남아 있는 불교 보호를 위한 聖旨의 발급 주체도 카이샨으로 본다면, 여러 티베트 사료에서 카이샨의 친불교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deb ther dmar po*, 1363/1961, pp.77.4-78.6; 『フゥランテプテル』, pp.194-195.

라이는 다시 디궁사원에 1만 호의 속민들을 사여하고, 신속히 사원을 재건할 것을 명령하여 디궁 만호가 복구되었다.[90] 이러한 디궁 만호의 사례는 전술한 중앙티베트의 만호장 임면과 함께 원조의 정치적 영향력이 중앙티베트에 뿌리내린 모습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몽골 황실이 싸꺄파의 핵심가계인 쾬('khon)씨를 대상으로 수여한 白蘭王도 원조의 티베트 지배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백란왕은 쾬씨 가문 중 출가하지 않은 俗人 남자를 대상으로 수여되었으며, 이들은 몽골인 공주를 아내로 맞아 몽골 황실의 부마가 되었다. 한문 사료 및 티베트사료에서 확인되는 백란왕은 총 4명[91]이며 이들은 티베트 관할권을 가진 것으로 서술되었다.[92] 그러나 이미 쿠빌라이는 제도적으로 宣政院을 통해 티베트를 관할하는 체제를 확립해 나갔으며, 西平王과 鎭西武靖王을 河州에 출진시켜 티베트 사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따라서 사실상 백란왕이 중앙티베트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작았을 것이다. 『司徒遺訓』, 『궁탕志』, 『디궁法嗣』 등 싸꺄파를 제외한 여러교파의 티베트 사료에서 같은 王號를 가진 진서무정왕의 행적은 적지 않게 확인되지만, 백란왕에 관한 기록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은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만약 백란왕이 권력을 행사한다면 그 근거는 王爵과 降嫁를 통한 몽골 황실의 지지라고 볼 수 있겠으나, 몽골 황실은 이미 백란왕과 같은 집안 출

---

90) 'bri gung che tshang bzhi pa bstan 'dzin pad+ma'i rgyal mtshan, *nges don bstan pa'i snying po mgon po 'bri gung pa chen po'i gdan rabs chos kyi byung tshul gser gyi phreng ba*, Lhasa: bod ljongs bod yig dpe rnying dpe skrun khang, 1803/1989. p.125.12-23; 直貢・丹增白瑪堅參, 克珠群佩 譯, 『直貢法嗣』, 拉薩: 西藏人民出版社, 1995,p.110.

91) 착나 도르제(Phyag na rdo rje), 쇠남 상뽀(Bsod nams bzang po), 뀐가 렉빼 걜챈 뻴 상뽀(Kun dga' legs pa'i rgyal mtshan dpal bzang po), 닥빠 걜챈(Grags pa rgyal mtshan).

92) 이와 관련하여 최소영은 중앙티베트의 중층적인 권력구조로 인하여 백란왕의 실질적인 권한은 불분명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최소영, 2019, pp.15-16;「몽골제국 시기 티베트 승려에 대한 보시와 그 운송 문제 고찰」,『중앙아시아연구』 26-2, 2021b, p.182.

신의 고승을 帝師로 존숭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란왕이 독보적인 권력 배경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정리하면 백란왕은 권력구도상 많은 경쟁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티베트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반면 몽골 황실의 입장에서 백란왕은 특별한 존재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백란왕은 투르각(turγaγ, 禿魯花), 즉 子弟入質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屬國의 지배자 일가와 통혼시키는 몽골제국 고유의 관행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93]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백란왕이라는 존재는 몽골 황실에 의해 만들어진 왕으로서 몽골제국의 관행이 중앙티베트에서도 관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환언하면 백란왕은 몽골제국의 티베트 지배가 지속되고 있음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몽골 지배층에게 정치적인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94]

이상에서 원조가 중앙티베트를 정치적으로 장악해 나간 모습을 티베트 사료와 한문 사료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뭉케 시기 제왕들에게 분봉된 중앙티베트는 쿠빌라이가 즉위한 뒤 점차 대칸의 관할지로 재편되어 갔다. 그 결과 원조는 중앙티베트 현지의 만호장 임면에도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높은 정치적 장악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상의 조치가 확립된 이후 14세기 중앙티베트의 정세는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특히 1320~1330년대 원조에서 南坡之變, 兩都內戰과 같은 정치적 혼란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중

93) 김웅학, 「몽골제국의 고려 지배와 王綧의 정치적 위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5-17.

94) 이와 관련하여 陳慶英은 백란왕이라는 존재는 몽골 지배세력이 쾬씨 가문과 혈연적 관계로 맺어 티베트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둔 것으로 보았다. 陳慶英, 1983, pp.32-33. 하지만 그가 지적한 것처럼 백란왕은 티베트에서 눈에 띄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점차 그 존재감이 옅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 말까지 존재했다는 사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점이 있다. 물론 몽골 황실이 백란왕을 통해 쾬씨 가문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두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국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몽골이 특정 가문을 통제하여 현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보다 과거에 존재하지 않던 왕을 새로 만든 뒤 그 직위를 끝까지 유지시킨 것이 상징적인 측면에서 제국적 지배를 더 부각시키는 측면도 있다.

앙티베트는 어떠하였는가? 다음 장에서는 팍모두 만호장 장춥 걜챈의 행적을 중심으로 이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Ⅱ. 팍모두 萬戶長 장춥 걜챈의 초기 행적과 元朝

1. 장춥 걜챈의 팍모두 만호장 취임과 元朝

14세기 팍모두파의 역사를 비롯하여 당시 중앙티베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장춥 걜챈(Byang chub rgyal mtshan, 1302-1364)은 11대 팍모두 만호장으로서 본격적인 행보를 내딛었다. 그의 만호장 취임과정은 전임 팍모두 만호장들의 임면과 마찬가지로 당시 중앙티베트에서 몽골이 가진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준다.

우선, 『司徒遺訓』에 기록된 그의 취임 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장춥 걜챈의 직전 만호장이었던 걜챈 꺕(Rgyal mtshan skyabs)은 대칸을 3차례 알현한 적이 있는 걜뻴(Rgyal dpal)이라는 자를 죽였다. 이 살인이 문제가 되어 1322년 8월 帝師 뀐가 로되 걜챈 뻴 상뽀(Kun dga' blo gros rgyal mtshan dpal bzang po. 이하 뀐가 로되)의 주관 하에 재판이 이루어졌고, 걜챈 꺕은 만호장직에서 해임되었다.[95] 일반적으로 제사는 조정에 머무르기 때문에 중앙티베트 현지에서 재판을 직접 주관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당시 뀐가 로되는 具足戒를 받는다는 이유로 잠시 大都를 떠나 티베트에 체재 중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주관할 수 있었다.[96] 이와 관련하여 『司徒遺訓』에서는 제사와 함께 온 "司徒 린첸닥(Rin chen grags), 뻴댄 주웬(Dpal ldan ju

95) *si tu bka' chems*, p.27.6-12; 『朗氏家族史』, pp.96-97.

96) *deb ther dmar po*, 1363/1961, p.9.6-7; 『フゥランテプテル』, p.32; A myes zhab Ngag dbang Kun dga' bsod nams, *Dzam gling byang phyogs kyi thub pa'i rgyal tshab chen po Dpal ldan Sa skya pa'i gdung rabs rin po che ji ltar byon pa'i tshul gyi rnam par thar pa ngo tshar rin po che'i bang mdzod dgos 'dod kun 'byung,* Delhi: Tibetan Bonpo Monastic Centre, 1629/1975, pp.304.3-305.2(이하 *sa skya'i gdung rabs*); 阿旺貢噶索南 著, 陳慶英, 高禾夫, 周潤年 譯註, 『薩迦世系史』, 北京: 中國國際廣播出版社, 2016, p.199; 최소영, 『보시, 티베트와 몽골을 잇다』, 경인문화사, 2022, pp.106-109.

dben) [등] 宣政院 分院[97]의 인장을 가진 일행이 (티베트에) 이르셨을 때 재판을 하여"라는 기록이 덧붙여져 있다. 선정원 분원, 즉 조정 측의 인물이 만호장과 관련된 재판에 참여하는 사례는 이때가 처음이 아니다. 이전 장에서 보았듯 6대 팍모두 만호장 쇤누 욘땐의 파직을 위한 재판에서도 鎭西武靖王 테무르 부카와 싸꺄 뻰첸 렉빠 뻴(Legs pa dpal)이 관여하였다.

전임 만호장이 뜻밖의 사건으로 파직된 상황은 그의 뒤를 이은 장춥 걜챈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리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장춥 걜챈은 걜챈 걉이 서력 1322년 8월에 만호장직에서 파직된 뒤 한 달여 만인 1322년 9월 9일에 팍모두 만호장에 취임하였다.

> 大라마(帝師)와 관인들이 짼아 데와르 셱빠(Spyan snga bde bar gshegs pa, 즉 닥빠 걜챈)에게 말씀하시기를, "린뽀체 당신께서는 숙부의 사례처럼 라뻰

---

97) 티베트 사료에 등장하는 표현을 와일리 표기로 옮기면 hun dben으로, "휀웬" 또는 "훈웬"으로 읽을 수 있다. 중역에서는 이를 分院으로 비정하고『元史』를 근거로 유사시 티베트에 파견되는 宣政院 分院의 관인으로 추정하였다(각주 57번 참고). 본고에서는 이를 따랐으며, 다른 표현으로 등장하는 dben pa(웬빠) 역시 구체적인 직급은 불확실하나 宣政院의 관인으로 추정하였다. 자히룻딘 아흐마드(Zahiruddin Ahmad)은 hun dben의 발음을 재구하면서 hun은 "軍"을 음역한 것이며, dben은 "將"을 의역한 것으로 보고 "뻴댄주웬將軍"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외래어 단어를 음역과 의역을 혼합하여 만들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장군에 대응하는 단어를 표기하고자 하였다면 티베트에서는 당시에 빈번하게 사용되던 dmag dpon(military-head, 즉 군사지도자)이라는 고유한 단어도 존재하였다. 따라서 "hun dben=將軍"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5th Dalai lama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gangs can yul gyi sa la spyod pa'i mtho ris kyi rgyal blon gtso bor brjod pa'i deb ther rdzogs ldan gzhon nu'i dga' ston dpyid kyi rgyal mo'i glu dbyangs*, in *gong sa lnga pa chen po'i gsung 'bum*, Gangtok: Sikkim Research Institute of Tibetology, vol. 19(pod dza pa), 1643/1993, p.152.3(이하 *gangs can yul gyi rgyal blon gtso bor brjod pa'i deb ther*); 5th Dalai lama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The Song of the Queen of Spring or A History of Tibet*, translated by Zahiruddin Ahmad, New Delhi: International Academy of Indian Culture and Aditya Prakashan, 2008, p.219 note 998.

(僧俗겸임수장)[98]을 하시기를 청합니다"라고 말씀하셨으나, "나의 동생 장춥 걜챈이라는 자, / 싸꺄의 게셰[99]를 가진 그자를 [팍모두 만호장으로] 임명하시기를 청합니다"라고 청한 까닭으로 / **[나에게] 라마의 명령문(法旨)과 / [宣政院] 分院 관인의 箚付**를 내려주었고 / 명령문, 차부를 선포하는 金字使臣, 侍從 쇠남따시(Bsod nams bkra shis)와 / 따시(Bkra shis) 都元帥의 사람, / 招討 따시뗀(Bkra shis brten)과/ 꺄걜(Brkya rgyal)이 [네동에] 와서 / **물-개해(1322) 9월 9일 / 명령문, 차부들이 선포되었고 / 14일 네동(네우동)을 장악하였다**.[100]

위 인용문은 몇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먼저 장춥 걜챈은 처음부터 차기 팍모두 만호장으로 낙점된 인물이 아니었다. 걜챈 꺕의 파면을 처리한 제사 뀐가 로되는 장춥 걜챈의 이복형이자 당시 팍모두파의 주 사원인 댄사틸(gdan sa mthil)의 주지를 맡고 있던 쨴아 데와르 섹빠에게 만호장직을 겸임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쨴아 데와르 섹빠가 그 제안을 거절하였고, 자신의 이복동생 장춥 걜챈을 추천함으로써 장춥 걜챈이 차기 만호장으로

98) 티베트어 bla dpon. 사원의 고승을 뜻하는 bla ma와 首長의 뜻을 가진 dpon을 합친 단어로, 고승이 세속수장의 역할을 겸하게 되면서 붙여진 칭호이다. 팍모두 만호의 경우, 전술한 장춥 걜챈의 숙부 닥빠 린첸(Grags pa rin chen)이 1297년부터 1309년까지 약 12년 동안 댄사틸 사원의 주지와 팍모두 만호장을 동시에 담당하였기에 라뻰으로 불렸다. 위 사료에서 관인들은 이 사실을 근거로 데와르 섹빠에게도 숙부처럼 승속업무를 겸임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99) 티베트 불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불교지식을 가진 승려에게 내려주는 일종의 학위. 오늘날에도 승려 가운데 학당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창(grwa tshang)에서 顯敎의 가르침을 모두 숙달한 승려들에게 게셰를 내려준다. 출팀깰상, 테즈카 토시아키 編, 차상엽 譯,『티벳문화입문』, 씨아이알, 2011, p.109.

100) *si tu bka' chems*, p.27.13-20, "bla chen po dang/ mi cpon rnams kyis/ spyan lnga bde bar gzhegs pa la gsung byon nas/ khyed rang rin po che khu bo'i lugs bzhin/ bla dpon sbrags dgos gsung ba'i gsung byon 'dug na'ang/ nged kyi bu bo byang chub rgyal mtshan zer ba/ sa skya'i dge bshes gcig yod pa de la bsko bar zhu zhus pa'i don la/ bla ma'i bka' shog dang/ hun dben pa'i bca' hu gnang/ bka' shog bca' hu sgrog pa'i gser yig pa nye gnas bsod nams bkra shis dang/ bkra shis du dben shwa'i mi/ tsha'o ta'o bkra shis brtan dang/ skya rgyal yongs nas/ chu pho kyi lo zla ba dgu pa'i tshes dgu'i nyin/ bka' shog bca' hu rnams bsgrags/ tshes bzhi'i nyin sne dong blangs/";『朗氏家族史』, p.97.

낙점되었다.[101]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만호장으로 임명되는 구체적인 과정이다. 먼저 차기 만호장으로 낙점된 장춥 걜챈에게는 帝師의 法旨와 宣政院 分院의 箚付가 발급되었다. 다만, 이전 장에서 다룬 챌파(tshal pa) 만호의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대칸에 의한 승인, 즉 임명조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장춥 걜챈이 만호장에 취임할 당시 대칸의 임명조서가 없었다는 점은 그가 취임 직후 팍모두 만호의 관할지를 규정한 근거문서를 열거할 때에도 대칸의 문서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차 확인된다.[102] 다시 말해 이때 장춥 걜챈은 팍모두 만호장으로 임명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대칸의 승인은 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차야는 대칸의 임명조서 보유 여부를 강조하며 장춥 걜챈의 1322년 임명을 비공식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103] 하지만 제사에 의한 만호장 임명이 공식적인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제사는 직제상 중앙티베트 만호장의 상관에 해당하는 宣政院使를 천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제사의 명령, 즉 法旨가 詔勅과 병

---

101) 장춥 걜챈이 만호장 후보로 거론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상과 같이 자신의 이복형 닥빠 걜챈이 댄사틸의 주지를 맡고 있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또한 그는 1315년 이복형들에 의해 싸꺄로 보내져 불교를 수학하였으며, 그곳에서 印章 관리를 맡기도 하였다. Olaf Czaja, 2013, p.112. 그는 1318년경 네우동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3년 동안 싸꺄에 머물렀으며, 네우동으로 돌아올 때에는 당시 싸꺄 사원의 座主 상뽀 뺄(Bzang po dpal)로부터 팍모두 만호의 사람들이 자신을 존숭할 것을 명시한 문서를 받았다고 기록하였다. 따라서 장춥 걜챈은 이 경험으로 인해 싸꺄파와 접점을 가지게 되었으며, 만호장 인선에 이점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파직된 걜챈 꺕의 뒤를 이어 다시 린첸 꺕(Rin chen skyabs) 가문이 만호장 자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같은 가문 출신이자 싸꺄파와도 면식이 있던 장춥 걜챈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도 1 참고). 한편, 당시 싸꺄파는 장춥 걜챈의 사례처럼 중앙티베트의 고위직 자제를 싸꺄로 오게 하여 복무를 시켰는데, 이는 싸꺄파가 몽골의 케식을 본떠 시행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소영, 2022, p.201.

102) *si tu bka' chems*, p.39.5-8;『朗氏家族史』, p.106.

103) Olaf Czaja, 2013, p.115.

행하였다는『元史』「釋老傳」의 기록을 참고하면 제사가 내리는 명령이나 문서에도 조정의 공신력은 담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104] 따라서 제사에 의한 만호장 임명을 비공식적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역대 팍모두 만호장들을 살펴보았을 때, 거의 대부분이 조정을 방문하거나 조정에 보고한 뒤에 만호장직을 공인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지에서 제사와 선정원 분원에 의하여 선제적으로 만호장에 임명된 장춥 걜챈의 상황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춥 걜챈은 이전 팍모두 만호장들과 마찬가지로 대칸의 공인을 받기 위해 움직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 불-쥐해(1324) 가을, 쇤누 욘땐(Gzhon nu yon tan)과 괸뽀 걜챈(Mgon po rgyal mtshan)이 **나의 임명 詔書와 大라마 뀐로(帝師 뀐가 로되)의 명령(法旨), 왕자 최뻴(Chos dpal)의 令旨**를 가지고 돌아왔다.[105]

> 大라마 뀐로(뀐가 로되)께서 티베트에 오셨을 때, 걜챈 걉이 파면되어 [장춥 걜챈이] 만호장에 임명되었는데, 후에 **찡왕(Rtsing dbang) 황제의 조서**를 얻었다.[106]

장춥 걜챈이 만호장에 취임한 뒤 시행한 조치 중 하나로 자신의 부하를 조정에 파견하여 황제의 조서를 받아왔다는 점이 주목된다.『司徒遺訓』은 이 황제의 정체를 명시하지 않았으나,『紅冊』에서는 "찡왕 걜뽀(Rtsing dbang

---

104) 『元史』 卷202, 「釋老傳」, p.4520, "乃立宣政院, 其爲使位居第二者, 必以僧爲之, 出帝師所辟舉...(중략)...於是帝師之命, 與詔敕並行於西土."

105) *si tu bka' chems*, p.39.16-18, "me pho byi ba lo'i ston gzhon nu yon tan dang/ gdon po rgyal mtshan gyis/ rang re'i bskos 'ja' dang/ bla chen kun blo'i bka' shog(/) rgyal bu chos dpal gyi ling ji gdan drangs nas slebs/";『朗氏家族史』, p.107.

106) *deb ther dmar po*, 1363/1961, p.75.1, "bla chen kun blo bod du byon dus rgyal mtshan skyabs phab nas khri dpon la bskos/ rting la tsing dbang rgyal po'i 'ja' sa thob/";『フゥランテプテル』, p.191.

rgyal po)", 즉 "찡왕 황제"로 등장하였으며 일역본에서는 이를 晉王으로 번역하였다[107]. 위 인용문에서 언급되는 1324년 시점의 대칸은 泰定帝 이순 테무르(Yisün Temür, r.1323-1328)로, 그는 1323년 9월 전임 英宗 시데발라(Šidebala, r.1320-1323)가 피살되는 南坡之變을 계기로 즉위하였다. 이순 테무르는 즉위 전 부친 晉王 캄말라(Qamala)의 작위를 이어받은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紅冊』에 기술된 "찡왕"이라는 명칭은 "진왕"을 티베트어로 음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두 사료의 서술은 이순 테무르 재위기에 장춥 걜챈이 조서를 받았다는 내용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108]

중앙티베트 현지에서 이루어진 만호장 임명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임명조서가 내려진 것은 그 과정에서 제사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장춥 걜챈의 만호장 임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대칸의 허

---

107) 각주 106번 참조.

108) 다만, 『司徒遺訓』에 기록된 "불-쥐해(1324년) 가을"이라는 시점은 장춥 걜챈의 휘하가 중앙티베트에 도착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장춥 걜챈은 그보다 일찍 휘하를 조정으로 파견하였다고 보는 편이 적절하다. 즉, 장춥 걜챈이 취임 직후(1322년 하반기) 대칸의 공식적인 승인을 얻기 위해 쇤누 욘땐 일행을 파견하였다면 시기상 영종 시데발라에게 파견한 것이 되고, 2년 뒤에 이순 테무르의 조서를 얻게 된 상황은 南坡之變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지체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춥 걜챈이 취임 직후에는 먼저 팍모두 만호 내부를 진정시키고, 조정의 변란이 어느 정도 수습된 상황, 즉 이순 테무르의 재위 이후에 조정에 부하를 파견하여 임명조서를 받아왔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순 테무르의 즉위 전에 팍모두 만호장으로 임명된 장춥 걜챈이 이순 테무르의 임명조서를 받은 상황은 이순 테무르가 이전 대칸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순 테무르는 직전 대칸이 암살을 당하여 즉위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국을 안정시킬 필요성이 더욱 컸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2대 대칸 우구데이의 즉위 과정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칭기스 칸(Činggis Qan, r.1206-1227)의 三男 우구데이(Ögüdei, r.1229-1241) 역시 2년의 空位 기간을 겪고 대칸이 되었기 때문에 정국을 안정시킨다는 관점에서 기존에 발급된 勅令의 권리를 그대로 인정해주어 정권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김석환(2019), pp.39-42. 남파지변의 전개와 이순 테무르의 즉위 과정에 대해서는 권용철, 『원대 중후기 정치사 연구』, 온샘, 2019, pp.157-207 참고.

락을 받아야만 가능했다. 그가 1322년 만호장에 임명되고 2년 뒤 사신을 파견하여 대칸의 공인을 받은 것은 기존 중앙티베트에서 통용되는 만호장 임명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장춥 걜챈의 만호장 임명은 예기치 않은 임명과 제사 체류라는 사안의 특수성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중앙티베트에서 원조가 구축한 정치 질서가 유효하였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대칸의 조서와 함께 제사의 法旨와 제왕의 令旨를 모두 수령하여 온 사실도 특기할 만하다. 앞서 대칸의 문서만 언급한 챌파 만호와 달리 장춥 걜챈은 티베트와 관련된 모든 지배층의 문서를 수령하였다. 특히 여기서 등장하는 왕자는 鎭西武靖王 최뻴(Chos dpal)로, 그의 부친은 이전 장에서 다룬 테무르 부카이다. 최뻴은『元史』에서 "搠思班"으로 등장하며 大德 10년(1306년)부터 至順 2년(1331년)까지 西番-四川-西域 등지에서 벌어진 군사작전에 다수 참여하였다.[109] 이는 당초 쿠빌라이가 의도하였던 鎭西武靖王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것이다. 그는 티베트 사료『漢藏史集』에서도 鎭西武靖王(tsing dbang)으로 소개되었으며 중앙티베트에 직접 방문하여 서부 몽골군(stod hor)을 제압하고 디궁 만호의 행정관직인 곰빠(sgom pa)를 처벌한 행적이 확인된다.[110] 그밖에도 그는 챌파와도 시주관계를 맺는 등 종교적으로도 당시 중앙티베트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111] 장춥 걜챈이 이러한 지배층의 문서를 받아온 사실은 자연스럽게 팍모두 만호의 수장이 자신이라는 점을 환기시켰을 것이다. 이상 장춥 걜챈의 행동은 이례적으로 임명된 자신의 만호장직을 확고히 만들기 위해 움직인 결과로 보인다.

---

109) 『元史』 卷21, 「成宗本紀」, 大德十年, p.468; 卷21, 「武宗本紀」, 至大二年, pp.512-513; 卷26, 「仁宗本紀」, 延祐六年, p.588; 卷28, 「英宗本紀」, 至治三年, p.629; 卷29, 「泰定帝本紀」, 泰定二年, p.655; 卷33, 「文宗本紀」, 天曆二年, p.728, 730; 卷34, 「文宗本紀」, 至順元年, p.759, 768; 卷35, 「文宗本紀」, 至順二年, p.775, 776, 780, 782, 783.

110) 최소영, 2019, pp.310-312.

111) *gung thang dkar chag*, pp.35b.6-36a.1; Per K. Sørensen & Guntram Hazod, pp.196-197. 그 외에도 최뻴은『司徒遺訓』,『賢者喜宴』(mkhas pa'i dga' ston),『漢藏史集』등 여러 티베트 사료에서 적지 않게 발견되는데, 이는 그가 중앙티베트에서 커다란 존재감을 가졌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장춥 걜챈의 만호장 취임 배경에는 전임 팍모두 만호장의 비위 문제가 있었다. 그 결과로 팍모두 만호장의 교체가 일어났고, 장춥 걜챈이 이례적으로 현지에서 차기 만호장에 임명되었다. 그 결과, 그의 최초 취임과정에서는 제사와 선정원 분원에 의한 공인이 있었지만 대칸의 공인이 생략되었다. 이에 장춥 걜챈은 취임 후 전례대로 사행을 통해 대칸의 임명조서를 수령하여 만호장 임명을 완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대로 중앙티베트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진서무정왕의 영지를 함께 수령한 사실은 만호장의 지위를 확고히 만들고자 한 정치적 행동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이상 장춥 걜챈의 팍모두 만호장 임명과정에는 쿠빌라이 이래 원조가 중앙티베트에 확립한 정치적 장악이 반영되어 있다.

2. 중앙티베트 諸세력과의 갈등과 몽골의 권위 활용

14세기 중앙티베트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면 이른바 '13만호'의 역사적 전개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료의 문제로 인해 이 시기 만호들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일부 만호는 특정 교파와 관계가 깊어 이 시기 역사는 高僧들의 事跡을 위주로 기술되었고, 만호의 경영을 담당한 세속수령의 경우 그 계보를 열거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1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중앙티베트의 역사가 현지의 만호, 원조, 그리고 싸꺄 뻰첸 등의 정치세력들을 중심으로 복잡하게 전개되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 절에서는 장춥 걜챈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드러나는 당시 중

112) 팍모두 만호를 제외한 챌파 만호, 야상 만호의 경우 세속수령들의 계보가 기록으로 남았다. 그러나 챌파 만호의 계보는 만호장들이 대칸의 조정을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중시하였을 뿐 현지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는 지면을 크게 할애하지 않았다. 야상 만호장의 계보는 그 계승순서만 짤막하게 서술하고 있다. *gung thang dkar chag*, pp.28b.1-42a.4; *Civilization at the Foot of Mount Sham-po*, edited by Tsering Gyalbo et al., Wien: Verlag der Ö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2000, pp.96-98.

앙티베트사의 일면을 살피고, 나아가 그가 몽골의 정치적 권위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살펴볼 것이다.

장춥 걜챈은 만호장 재임 초기부터 팍모두 만호가 주변의 간섭으로 인해 피해받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주장하였다. 대표적으로 그는 팍모두 만호의 남쪽에 위치한 야상(g.ya' bzang) 만호를 자주 거론하였다(지도 2 참조). 『司徒遺訓』에 따르면 야상 만호는 훌레구가 팍모두 만호를 관할하던 시절에 팍모두 만호로부터 독립하였는데, 장춥 걜챈은 야상 만호에 대하여 "훌레구를 속여 독립 만호가 되었다"며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내었다.[113] 또한 그가 정리한 주변 인물 및 세력에 대한 평가에서도 "야상 사람들은 우리의 영원한 적이니, 반드시 정복해야 한다."며 적대적인 인식을 숨기지 않았다.[114]

장춥 걜챈이 야상 만호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배경에는 상기한 역사적 인식 외에도 그의 만호장 재임 시절 팍모두 만호와 야상 만호 간의 정치적 분쟁이 지속되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司徒遺訓』에는 장춥 걜챈이 팍모두 만호의 관할지를 둘러싸고 야상 만호와 분쟁을 벌이는 모습이 여러 차례 서술되어 있다. 1322년 帝師와 宣政院은 장춥 걜챈을 새로운 팍모두 만호장에 임명하면서 디디(gri gri), 쑥(shug), 추씨(chu srid), 체뽕(tshe spong), 쎄르카(gser kha), 나모(sna mo), 대모('bras mo) 등의 지역[115]을 팍모두 만호가 관할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모, 디디, 쑥, 추씨 등지를 장악하고 있던 야상 만호는 팍모두 만호에게 해당 지역을 넘기지 않았다. 이에 장춥 걜챈은 자신의 부하들을 해당 지역의 관리자로 임명하는 강경책을 취하였으나, 쎄르카 지역의 경우 팍모두 측과 야상 측이 각각 절반씩 관

113) 최소영, 「13세기 후반 티베트와 훌레구 울루스」, 『중앙아시아연구』 17-1, 2012, p.32.

114) *si tu bka' chems*, p.205.1, "g.ya' bzang pa 'di/ rang re'i gtan dgra yin pas 'dul dgos shing/"; 『朗氏家族史』, p.230.

115) 현재 확인되는 지명은 체뽕 1곳으로, 이곳은 야상 만호와 팍모두 만호 사이 접경지역인 야를룽(yar rlung) 계곡 상부이면서 야상 만호의 본거지로부터 북서쪽 약 10km 떨어진 지역이다. 체뽕과 함께 언급된 지역들 역시 야상 만호와 팍모두 만호 사이 교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할하게 되는 등 더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결국, 장춥 걜챈은 이를 타개하고자 두 해에 걸쳐 야상 측과 무력 충돌을 벌였지만, 오히려 패배하였다.[116]

장춥 걜챈이 야상과의 직접 충돌을 무릅쓰면서 관할지 분쟁을 벌인 이유로는 팍모두 만호장으로서의 정치적 정당성 외에도 현실적인 이익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해조드(Hazod)는 이 시기 야상 만호와 팍모두 만호의 분쟁에서 핵심 지역은 디디와 체뽕이었는데, 이곳에는 金이라는 경제적 이권과 속민 200호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접경지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주장하였다.[117] 금은 물론, 중앙티베트 만호의 실제 평균 호구 수가 3,000여 호 내외였음을 감안하면 분쟁 지역에 있던 속민 200호는 경제적으로도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118] 특히 장춥 걜챈은 만호장에 취임한 직후부터 팍모두 만호의 경제적 궁핍을 목도하였기 때문에 더욱 이 지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을 것이다.[119] 다시 말해 장춥 걜챈의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악감정이 있던 야상 만호에게 경제적 이익이 큰 관할지를 빼앗긴 셈이었다.

게다가 야상 만호의 배후에는 위(dbus)지역의 유력 세력인 챌파 만호, 그리고 싸꺄파가 있었다. 당시 이들 세 세력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장춥 걜챈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16) *si tu bka' chems*, p.39.5-15;『朗氏家族史』, p.107.

117) Guntram Hazod, “A Note on the g.Ya’-bzang/Phag-mo-gru-pa Border Dispute in the 14th Century”, *Civilization at the Foot of Mount Sham-po*, edited by Tsering Gyalbo et al., Wien: Verlag der Ö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2000, pp.198-199.

118) 최소영, 2019, p.313.

119) 장춥 걜챈은 취임 직후 네우동의 內庫에는 화구, 불탑 등 기본적인 도구들이 없던 상황을 한탄하며, 그나마 있던 식량과 재산도 휘하 관인들의 무능으로 인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회고하였다. 예컨대 댄사틸(gdan sa mthil)의 식량 관리자였던 쇤누 외(Gzhon nu 'od)는 식량을 측정하는 됫박을 크게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측정한 양보다 더 많이 빌려주게 되어 만호에 손해를 입혔다. 또한 관원들은 역참세나 창고세 등 여러 세금을 기한 안에 보내주지 않았다. 최소영, 2022, pp.218-221.

“大라마(帝師)와 챌파, 야상 측 사람 셋이 논의했고, 당신에게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야상과 팍모두가 충돌이 생기더라도 잠시 머리를 감싸고, 발을 집어넣고 대응하지 말아라. 당신의 사람 100명이 죽더라도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대라마가 나쁘더라도 방법이 없다. 당신이 야상 측 사람 2명을 죽인다면, 그 2명의 수장이 조정으로 [가서] 대라마에게 연락해서 “장걜(장춥 걜챈)은 나쁜 반역자입니다. 황제의 법을 수행하는 사람을 죄 없이 죽였으니 처벌을 청합니다”라고 청하면, **[황제가] “[그렇게] 하라!”는 성지를 내릴 것이니 당신은 죄인이 될 것이다**.“[120]

위 내용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훗날 제사가 되는 뀐가 걜챈(Kun dga' rgyal mtshan)은 1331년경 大都로 가면서 자신의 호송임무를 맡은 장춥 걜챈에게 최('phyos)와 묀가르(mon mgar) 지역[121]을 싸꺄파의 분파 가운데 자신이 속한 하캉라당(lha khang bla brang)에게 넘길 것을 종용하였다.[122] 이에 장춥 걜챈은 뀐가 걜챈의 명령을 거부하며 도망을 쳤는데, 이때 宣慰使司의 수령 데걜 외(Bde rgyal 'od)가 장춥 걜

---

120) *si tu bka' chems*, pp.44.20-45.3, “**bla ma chen po dang/ tshal pa g.ya' bzangs pa gsum po gros byas nas/ khyod la bzang po mi sems par 'dug/** g.ya' phag 'khrugs pa byung yang re zhig mgo khob/ rkang pa bskum/ ya bo ma byed/ khyod kyi mi brgya shi yang ci skyon/ bla ma chen pos ngan ci'ang byed thabs med/ khyod kyis g.ya' bzang pa'i mi gnyis bsad par song na/ mi gnyis po'i mgo de gong du bla ma chen po la bskur nas/ byang rgyal ngo log nag po yin/ rgyal po'i khrims las sgrub pa'i mi sde nyes med bsad/ rtsa ra zhu zhus na/ **rgyob gsung ba'i lung 'bud pas/ khyod nyes 'gro ba yin**”; 『朗氏家族史』, p.111.

121) 최는 네동에서 서남쪽으로 20km 떨어진 부근이며, 묀가르는 최와 인접한 묀카르(mon mkhar)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묀카르는 네우동에서 서쪽으로 30km 떨어진 지역이다.

122) 앞서 제사 뀐가 로되가 티베트를 방문하였을 때, 그는 싸꺄사원의 권력집단을 라마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4개로 나누었다. 각 집단의 명칭은 시똑라당(bzhi tog bla brang), 하캉라당(lha khang bla brang), 뒤최라당(dus mchod bla brang), 린첸강라당(rin chen sgang bla brang)이었다. 각 라당은 기존 싸꺄파의 권력을 나누어 가졌으며, 이는 싸꺄파가 내홍을 겪으며 그 권세가 약해지는 원인으로 손꼽힌다.

챈을 설득하며 한 말이다. 장춥 걜챈에 따르면, 뀐가 걜챈은 당시 싸꺄 뻰첸이었던 왼쮠(Yon btsun)을 매개로 전임 만호장인 걜챈 꺕 가문을 지지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압력을 넣은 것이었다.[123] 즉, 뀐가 걜챈은 자신이 지지하던 걜챈 꺕이 물러나고 그의 뒤를 이어 팍모두 만호장이 된 장춥 걜챈을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았으며, 자연스럽게 장춥 걜챈과 경쟁하는 야상 만호를 지지하였을던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위 인용문의 발화자인 데걜 외가 선위사사 관원이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때 데걜 외가 속한 선위사사는 Ⅰ장에서 살펴본 烏思藏納裏速古魯孫等三路宣慰使司都元帥府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元史』「百官志」의 기록처럼 중앙티베트의 만호가 직제상 烏思藏納裏速古魯孫等三路宣慰使司都元帥府 휘하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14세기 중반에도 이 직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 즉 뀐가 걜챈이 대도로 이동하여 제사에 취임하는 시기[124]를 전후하여 원조에서는 대칸의 계승권을 두고 치열한 갈등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순 테무르 死後 대칸의 계승권을 두고 이른바 大都派와 上都派가 맞붙은 兩都內戰, 明宗 코실라(Qošila, r.1329)의 암살로 대표되는 天曆의 내란, 그리고 이를 관통하는 權臣 엘 테무르(El temür)의 권력 장악 등 조정 내의 정치적 갈등이 연이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대칸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갔다.[125] 그러나 위 대목을 통해 중앙티베트에서는 대칸의 정치적 권위가

---

123) *si tu bka' chems*, p.42.8-15, 44.17; 『朗氏家族史』, pp.109-110, 112. 차야는 뀐가 걜챈의 모친과 두 부인이 왼쮠과 같은 라뙤장(la stod byang) 가문 출신일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Olaf Czaja, 2013, pp.117-119.

124) 퀘입은 뀐가 걜챈의 帝師 취임 시점에 대하여 기존에 『佛祖歷代通載』(釋念常, 『佛祖歷代通載』(北京圖書館古籍珍本叢刊,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88)의 기사를 근거로 비정한 1333년 7월 19일(卷22, 癸酉, "今上皇帝萬萬歲, 六月初八日登寶位, 改元統元年. 禮請公哥兒監臧班臧蔔爲帝師.") 대신, 『뮈첸빠(Mus chen pa)傳記』에 전재된 뀐가 걜챈의 法旨 3건을 근거로 취임일보다 이른 1332년 후반기에 이미 대도에 있었음을 논증한 바 있다. Leonard W. J. van der Kuijp, "The Kālacakra and the Patronage of Tibetan Buddhism by the Mongol Imperial Family", *The Central Eurasian Studies Lectures* 4, 2004, pp.41-43.

계속해서 존중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126]

한편, 위 대목을 통해 장춥 걜챈이 1322년 만호장에 즉위한 뒤 약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도 야상 만호와 챌파 만호의 견제를 받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새로 취임할 제사도 야상 만호를 지지하였기 때문에 장춥 걜챈은 티베트 내부에서 자신을 보호해줄 세력을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장춥 걜챈으로 하여금 과거의 권위, 그리고 티베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층의 권위에 기대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건이 쎄르카(gser kha) 지역의 귀속 문제이다. 쎄르카 지역은 앞에서도 밝혔듯 원래 팍모두 만호의 관할지로 규정된 곳이었지만, 야상 만호와의 분쟁과정에서 싸꺄 뻰첸 왕축 뻴(Dbang phyug dpal)이 임시로 관할권을 보유한 채 팍모두 만호 측에 넘겨주지 않고 있었다.[127] 장춥 걜챈은 그에게 금 80냥을 바치면서까지 문제를 마무리하고자 하였지만

---

125) 대표적으로 권용철은 원대 중후기 중앙조정의 정치사를 다루면서 이 시기에는 독자적인 군사력을 지닌 권신이 출현하여 모든 정무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분석하였고, 이를 '全權 權臣'의 시대라고 명명하였다. 권용철, 2019, pp.211-212.

126) 『紅冊』에 기술된 3대 까르마빠 랑중 도르제(Rang byung rdo rje)의 행적을 살펴보면 1331년 7월 이후 제사 뀐가 걜챈 일행과 만나 라싸 북쪽의 담('dam), 즉 현재 담슝현(當雄縣)에 이르렀으나, 랑중 도르제는 자연재해를 통해 대칸의 신변이상을 예측하여 동행을 멈추고 다시 되돌아왔다. 위의 내용을 감안하면 랑중 도르제가 만난 뀐가 걜챈의 일행은 제사를 역임하기 위해 대도로 가던 중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뀐가 걜챈 일행은 중간에 되돌아온 랑중 도르제와 달리 대도에 도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랑중 도르제가 예측한 대칸의 신변이상은 文宗 툭 테무르-英宗 이린지발-順帝 토곤 테무르로 이어지는 대칸위 교체과정을 지칭한 것이다. Tshal pa Kun dga' rdo rje, *deb ther dmar po*, Lhasa: Mi rigs dpe skrun khang, 1363/1981, p.101.12-17; 蔡巴·貢噶多吉 著, 东噶·洛桑赤列 校注, 陳慶英·周潤年 譯, 『紅史』, 北京: 中國國際廣播出版社, 2016, p.91; 최소영, 2022, pp.126-128.

127) 쎄르카라는 이름을 직역하면 "金"으로, 해당 지역은 금이 나는 지역 혹은 金鑛이 있던 곳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왕축뻴이 이 지역을 장악한 채 장춥 걜챈에게 넘기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금이라는 경제적 이권이 달려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실패하였다. 그러자 왕축 뻴이 쎄르카 귀속에 미온적이라고 판단한 장춥 걜챈은 여러 차례 직접 조정에 보고하여 왕자의 令旨와 宣政院의 箚付를 얻어냈다.[128]

장춥 걜챈에 따르면, 그의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야상 만호는 이미 쎄르카 지역을 군사적으로 점거한 상태였지만, 당시 팍모두 만호의 군세는 나약하고 해이하여 야상 만호와 물리적인 대치가 불가능하였다.[129] 결과적으로 쎄르카 지역의 분쟁은 중앙티베트를 관할하는 싸꺄 뻰첸에 의한 중재도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만호 간 자체적인 해결도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춥 걜챈이 왕자, 즉 鎭西武靖王과 宣政院의 문서를 받아온 것은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수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춥 걜챈은 같은 맥락으로 과거 대칸이 팍모두 만호에 내려준 문서들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1345년경 조정에서 司徒 다르마 걜챈(Dar ma rgyal mtshan), 도르제 꺙(Rdo rje skyang) 副使, 에센 부카(E sen bu kha) 知院 등이 중앙티베트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티베트를 방문하자 장춥 걜챈은 이들에게 분쟁 지역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는 이들에게 팍모두 만호의 관할권을 주장하기 위해 과거 쿠빌라이가 팍모두 만호에게 발급한 성지를 비롯한 각종 문서를 제시하였다. 당시 소송을 주관한 다르마 걜챈은 이에 대하여 "이같이 온전한 조서, 문서들이 있으니 분쟁의 원인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며 놀라운 반응을 드러냈다. 이때의 판결로 인해 장춥 걜챈이 처음 만호장에 임명될 당시의 관할지로 인정받은 쑥, 추씨는 야상 만호의 것으

128) *si tu bka' chems*, p.46.14-20;『朗氏家族史』, p.113. 이때 왕자는 鎭西武靖王으로 보이며, 장춥 걜챈이 宣政院의 箚付를 받은 것은 만호장이 직제상 宣政院의 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그가 제사의 법지를 받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장춥 걜챈과 갈등을 벌인 상대는 싸꺄 뻰첸이었기 때문에 뻰첸과 같은 교파 출신인 제사에게 이 문제를 진정해도 해결될 가능성이 낮았을 것이다. 게다가 당시 제사는 과거 자신을 견제한 전력이 있던 뀐가 걜챈이었다. 따라서 장춥 걜챈의 입장에서 볼 때 제사의 법지를 받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줄 대상에서 제사를 배제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129) *si tu bka' chems*, pp.46.20-47.3;『朗氏家族史』, p.113.

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팍모두 만호의 관할지로 인정받았는데, 이때 인정받은 영역은 바로 과거 쿠빌라이가 팍모두 만호의 관할지로 인정해 준 지역들이었다.[130]

이 무렵 장춥 걜챈이 구금당하는 사건은 당시 그를 둘러싼 불리한 정세와 원조의 권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동시에 보여준다. 당시 宣政院 관원으로 중앙티베트를 방문한 왕축 쬔뒤(Dbang phyug brtson 'grus)는 독룸빠(dog rum pa)라는 지역으로 장춥 걜챈을 꾀어내어 구금한 뒤 만호장 직에서 내려올 것을 협박하였다. 그는 동시에 전임 만호장 걜챈 꺕의 조카로 알려진 쇠남 걜챈(Bsod nams rgyal mtshan)을 차기 팍모두 만호장으로 임명시키는 계획을 실행하였다. 이는 얼핏 보았을 때 팍모두 만호장 직을 둘러싼 내부의 소동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이때 쇠남 걜챈은 帝師 뀐가 걜챈이 조정에 주청하여 팍모두 만호장으로 내정된 인물이었다. 또한 장춥 걜챈이 독룸빠에서 구금된 뒤 이송된 장소는 챌파 만호의 중심지인 챌 궁탕(tshal gung thang)[131]이었다. 즉, 이상의 과정은 장춥 걜챈을 만호장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야상 만호-챌파 만호-싸꺄 측의 정치적 암투로, 앞서 밝힌 초기 팍모두파 주변의 세력 갈등이 반영된 사건이었다.[132]

이 사건에서 짚어볼 부분은 쇠남 걜챈의 만호장 임명 과정에서 대칸에 의한 임명 조서까지 내려졌다는 언급이다. 『司徒遺訓』에서는 장춥 걜챈을 구금한 왕쬔, 즉 왕축 쬔뒤가 뀐가 걜챈의 편에서 쇠남 걜챈을 만호장으로 임명하는 조서를 만들었다고 기술하고 있다.[133] 또한 챌파 측 기록인 『紅冊』에는 장춥 걜챈이 "쇠남 걜챈의 聖旨(lung)를 가지고 다투었다"는 기술을 남기고 있다.[134] 사료들의 서술로 볼 때 이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은 쇠남 걜챈이

---

130) *si tu bka' chems*, p.53.5-12, "'di 'dra'i 'ja' sa yig rigs bzang po 'dug pa la rtsod rgyu ci yod/"; 『朗氏家族史』, pp.117-118.

131) 현 西藏自治區 拉薩市에서 동남쪽으로 약 20km에 위치.

132) Leonard W. J. van der Kuijp, 1991, pp.277-327; Olaf Czaja, 2013, pp.281-284.

133) *si tu bka' chems*, p.48.11-13; 『朗氏家族史』, p.114.

134) *deb ther dmar po*, 1363/1961, p.75.1-2; 『フゥランテプテル』, p.191. 원문은 "rgyal mtshan skyabs gyi nu'o bsod nams rgyal mtshan gyi lung gis brtsad". 日

조서, 즉 대칸의 승인을 거쳐 팍모두 만호장으로 임명된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쇠남 걜챈의 만호장 임명이 대칸의 동의를 얻은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다음은 장춥 걜챈을 구금한 왕축 쬔뒤가 장춥 걜챈에게 일시적으로 만호장직을 내려놓는다면 다시 만호장직을 되돌려주겠다는 회유에 대한 장춥 걜챈의 대답이다.

> "황제도 이 같은 聖旨를 감히 내리지 않으시는데 당신은 황제보다 뛰어난 자인가! 나와 쇠남 걜챈을 각자 말과 조(mdzo)[135]에 태우고 조정에 奏請하는 자로 보내라! 宣政院에 주청한 뒤에 [누구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이 합당한지 합당치 않은지를 조정에서 따질 것이다."[136]

장춥 걜챈의 대답은 조정, 그리고 대칸의 공식적인 판결을 따르겠다는 것이었다. 장춥 걜챈은 중앙티베트 만호장의 임면권이 최종적으로 대칸에게 귀

譯에서는 쇠남 걜챈이 조서가 있다는 내용을 생략한 채 번역하였으나, 티베트 사료에서는 황제의 말씀, 즉 聖旨를 뜻하는 lung이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司徒遺訓』의 내용을 따라 쇠남 걜챈 역시 성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편이 적절하다. 中譯도 티베트 단어 lung을 고려하여 "勅封"으로 번역하였다. 『紅史』, p.109, "堅贊郊的孫子索南堅贊也受到勅封." 야마모토 메이시 역시 최근 연구에서 쇠남 걜챈이 조서를 가지고 다투었다고 번역하였다. 山本明志, 2021, p.8. 한편, 차야는 『紅冊』의 내용을 근거로 장춥 걜챈이 『司徒遺訓』에서 뀐가 도르제와 달리 쇠남 걜챈이 조서를 가졌으며 만호장 임면이 일어난 사실을 생략하였다고 보았다. Olaf Czaja, 2013, p.122. 하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장춥 걜챈은 제사 뀐가 걜챈이 쇠남 걜챈을 만호장으로 만들고자 한 일과 왕축 쬔뒤가 쇠남 걜챈의 임명조서 작성에 참여한 사실 등을 그대로 기술하였기 때문에 장춥 걜챈이 『司徒遺訓』에서 쇠남 걜챈의 만호장 임명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35) 야크와 소의 교배종.

136) *si tu bka' chems*, p.50.5-9, "rgyal pos kyang 'di 'dra'i lung 'byon mi phod/ khyed rgyal po bas mi lhag/ nged dang/ bsod nams rgyal mtshan/ rang rta dang mdzo gyis la/ gong du zhu ba la thongs/ swon cing dben du zhus nas/ las ka gtod 'os mi 'os/ gong du bsdur ba yin"; 『朗氏家族史』, p.116; Leonard W. J. van der Kuijp, 1991, p.283.

속된다는 전통적인 원칙을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왕축 쬔뒤는 이같은 장춥 걜챈의 제안을 묵살하였고, 해당 사건은 장춥 걜챈에게서 만호장직을 거두지 못한 채 석방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만약 쇠남 걜챈이 대칸의 승인을 얻어 장춥 걜챈의 후임 만호장에 임명된 것이라면, 장춥 걜챈의 위와 같은 제안은 대칸의 명령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왕축 쬔뒤는 장춥 걜챈이 제안한 조정에서의 최종판결을 수용하지 않았을뿐더러 만호장도 박탈하지 못한 채 그를 석방하였다. 필자는 이 사건의 결과가 쇠남 걜챈이 대칸에 의해 차기 팍모두 만호장으로 공인받았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만약 쇠남 걜챈의 임명이 대칸의 공인을 받은 것이라면, 처음부터 장춥 걜챈을 속여서 구속할 이유가 없다. 또한 장춥 걜챈은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팍모두 만호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차기 만호장 쇠남 걜챈에 대한 내용은 이 사건 이후로 『司徒遺訓』을 비롯한 당시 티베트 사료에서 등장하지 않고 있다.

『紅冊』의 관련 기술도 다시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해당 구문은 전후 맥락이 끊어진 채 갑작스럽게 등장하고 있어 매우 어색하다.[137] 필자는 어색한 서술이 된 원인으로 『紅冊』의 저자이자 장춥 걜챈의 구금사건에 가담한 챌파의 만호장인 뀐가 도르제의 입장을 고려해보고자 한다. 요컨대 그는 해당 사건의 명분을 만들기 위하여 『紅冊』에 의도적으로 聖旨(lu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닐까. 환언하면 뀐가 도르제는 실패한 음모에 역사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였고, 그 결과 쇠남 걜챈에게 마치 대칸의 "聖旨"가 내려졌다고 해석할 여지를 만들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장춥 걜챈의 회고도 쇠남 걜챈에게 성지가 내려진 것처럼 조작하여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던 음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술한 결과로 보고자

137) 『紅冊』에서 이 구문의 바로 앞부분은 장춥 걜챈이 만호장에 취임하고 晉王의 조서를 얻었다는 대목이다(각주 134번 참고). 사료의 서술대로라면 장춥걜챈은 만호장에 임명된 뒤, 다시 쇠남 걜챈이 만호장으로 임명되는 조서를 얻어 만호장직을 두고 다투었다고 기술한 셈이 된다. 앞서 팍모두 만호장 임면 사례에서 차기 만호장이 강제로 교체될 경우에는 전임 만호장의 파면이 선행되었음을 감안하면 이 구문은 매우 어색하게 보인다.

한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장춥 걜챈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대칸의 정치적 권위를 자신의 편에 끝까지 붙잡아 두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팍모두 만호장 장춥 걜챈은 초기부터 관할지 분쟁, 싸꺄 뻰첸 및 기타 관원들과의 갈등 등 여러 정치적 문제를 맞닥뜨렸다. 그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원 황제, 즉 대칸을 비롯한 몽골 지배층의 정치적 권위를 활용하였다. 이는 당시 중앙티베트에서 원의 정치적 영향력이 작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14세기 중앙티베트의 역사에서 몽골제국이 여전히 중요한 정치적 배경이었음을 증명한다.

Ⅲ. 1350년대 전후 장춥 걜챈의 행적과 元과의 관계

1. 세력 확대 및 장춥 걜챈과 팍모두의 부상

Ⅱ장에서는 장춥 걜챈의 팍모두 만호장 취임 및 초기 행적을 중심으로 14세기 초중반 중앙티베트에도 기존 몽골인 지배층의 정치적 권위가 유효하였음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원대 후기라고 일컬어지는 14세기 중반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되었는지 장춥 걜챈을 통해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한다.

장춥 걜챈의 만호장직을 둘러싼 위기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1349년 前 싸꺄 뻰첸 왕축 뻴(Dbang phyug dpal)은 팍모두 만호의 분쟁 지역이던 짱라야르똑(gtsang la yar gtogs)을 차지하기 위해 야상 만호 및 챌파 만호와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 장춥 걜챈을 구금하였던 왕축 쬔뒤가 군대를 이끌고 네우동으로 진격하였고, 팍모두 만호가 관할하는 사찰과 민가에 피해를 입히며 장춥 걜챈을 압박하였다. 그러나 당시 싸꺄 뻰첸인 쇠남 뻴(Bsod nams dpal)과 위(dbus) 지역 수령들, 그리고 댄사틸의 주지이자 장춥 걜챈의 형인 데와르 섹빠(Bde bar gshegs pa, 즉 닥빠 걜챈) 간의 중재가 이루어져 전면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왕축 쬔뒤는 회군하면서 장춥 걜챈의 동생 쇠남 상뽀(Bsod nams bzang po)를 팍모두 만호장으로 앉혔다.[138]

쇠남 상뽀의 팍모두 만호장 임명과 관련하여 퀘입(Kuijp)은 쇠남 상뽀가 『司徒遺訓』에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한 적이 없으며, 『漢藏史集』, 『티베트王臣記』 등에 기술된 팍모두 만호장 계보에도 등장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형식적인 임명으로 간주하였다.[139] 필자 역시 쇠남 상뽀는 기존 절차에 따라

---

138) *si tu bka' chems*, pp.51.5-52.16; 『朗氏家族史』, p.116.

139) Leonard W. J. van der Kuijp, 1991, pp.284-285. 하지만, 『司徒遺訓』의 관점은

대칸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식적인 임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다만, 쇠남 상뽀의 실제적인 임명과는 별개로 친동생이 만호장에 임명되며 사태가 마무리된 것은 장춥 걜챈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쇠남 상뽀의 만호장 임명은 과거 자신을 제거하려고 했던 왕축 쬔뒤에 의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상은 여전히 장춥 걜챈의 정치적 입지를 위협한 사건으로 보인다.

장춥 걜챈의 입장에서는 과거 쇠남 걜챈의 사례와 이번 쇠남 상뽀의 사례 등으로 인해 자신의 정치적 지위가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는 팍모두 만호장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방법은 원조로부터 자신이 팍모두 만호장임을 다시금 확인받는 것이었다.

> (宣政院 분원 관인 曰) "네(장춥 걜챈)가 간다면 제일 좋다. 그러지 못하면 자기 대리인이나 다른 훌륭한 자 1명을 보내라! 그러면 마음속의 바람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한 뒤에 쇤걜(Gzhon rgyal)都元帥가 중간에서 [티베트어로] 통역하였다...(중략)...(장춥 걜챈 曰) "청하는 물건으로 大司徒 이름이 새겨진 인장을 청합니다. 萬戶에 필요한 원형 銀印, 만호의 [부세] 절반 감면, 民戶들이 養生하는 동안에 다르갠(darqan으로 추정) 등을 청합니다"고 하자 쇤걜都元帥가 말하길, "**사도의 인장과 만호의 인장은 [동시에] 가질 수 없다. 둘 중 하나를 골라라"라고 하였고 "그렇다면 만호의 [인장을] 청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사람을] 보냈다.[140]

팍모두 만호장들의 계보를 통시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司徒遺訓』에는 그가 만호장이 되기 이전 팍모두 만호의 내력이 기술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체 텍스트의 핵심은 장춥 걜챈 자신의 행적을 밝히는 것이었다. 오히려 쇠남 상뽀가 만호장이 되었다는 기술이 바로 상대측이었던 장춥 걜챈의 기록에서 등장한다는 점은 쇠남 상뽀가 일시적이나마 정치적으로 대두되었음을 암시한다.

140) *si tu bka' chems*, pp.90.10-91.11, "khyed rang 'gro ba byung na rab/ ma byung na mi mngo'am/ gzhan drag pa gcig thong/ nang zhus grub zer nas gzhon rgyal du dben shwas sul brgyud byas byung/...(중략).../zhu rgyu la/ ta'i si tu'i ming dang dam kha zhus/ khri skor la dgos pa'i dngul gyi dam kha/ sgor mo/ khri

위 내용은 1350년경 장춥 걜챈이 중앙티베트를 방문한 宣政院 分院 관인의 조언에 따라 조정에 사신을 파견하려 할 때 이루어진 대화이다. 그는 이미 1324년에 조정의 공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호장의 상징물인 인장을 청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사도의 인장과 만호의 인장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만호의 인장을 요구하는 모습이다. 이때 장춥 걜챈이 대사도 대신 만호의 인장을 청한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조정으로부터 만호의 인장을 다시 받는다면 그가 팍모두 만호의 수장이라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부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1350년 즈음까지 지속된 위기는 그의 정치적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만호장직의 안정을 바라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상 요청을 정리한 장춥 걜챈은 원조에 직접 사신을 파견하였다. 14세기 중반 무렵에도 중앙티베트의 만호장이 원조에 사신을 파견하여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확인받는 모습은 둘 간의 정치적 연결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나는] 셰랍 도르제(Shes rab rdo rje)와 왕축(Dbang phyug)을 필두로 하여 조정에 파견하였고, 그달에 웬빠(dben pa, 宣政院 分院 관인)의 사람 융장(yung 'jang) 다라카체(다루가치), 욀자 테뮌(ol ja the mun, 울제이 테무르)이라는 자를 같이 보냈다...(중략)...宣政院의 연회 중에 셰랍 도르제 일행이 도착하였다. 관인들이 승상에게 이야기하였고, 丞相이 황제를 알현하고 돌아온 다음날 셰랍 도르제 일행은 황제를 알현하였고, 알현은 잘 되어서 "시기의 법도에 따라서 할 것들을 처리하라"라고 말씀하신 **聖旨를 내보내셨으니**, 萬戶에 필요한 圓形 銀印 2개, 만호의 민호 가운데 站戶의 역참 업무를 포함하지 않는 부세는 무엇이든 절반을 감면하는 宣政院의 箚付, 큰 賜與, 즉 金으로 된 요대와 왕, 왕자가 자신의 말을 타고 조정에 오고 웬빠는 역참의 말을 타고 조정에

---

sgor gyis dud phyed 'chag/ mi sde ma pos bar gyi dar rgan rnams zhus byas/ gzhon rgyal du dben sha na re/ **si tu'i dam kha dang/ khri skor gyi gnyis ka mi 'grub/ gang rung cig 'grub zer/ 'o na khri skor gyi zhu** byas nas brdzangs/"; 『朗氏家族史』, pp.144-145.

오라고 말씀하신 **聖旨를 내보내셨기에** 도캄[지역] 이상 모든 이들에게 [역참으로 인한] 왕자와 宣政院의 危害가 없어지게 되었다.[141]

장춥 걜챈이 파견한 사행은 대칸을 알현하여 성지를 내려받았다. 앞서 만호장의 임면이 대칸에 의해 이루어진 과거 사례들을 비추어 볼 때, 이 성지는 장춥 걜챈이 팍모두 만호장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춥 걜챈이 사행을 통해 얻어낸 내역 가운데 부세 감면 등의 조치는 만호장으로서 장춥 걜챈의 입지를 강화해줄 수 있는 조치들이었다. 중앙티베트의 부세는『漢藏史集』에 등장하는 관련 기록을 통해 일면을 알 수 있다. 몽골은 티베트 정복 이후 호구조사를 실시하였고, 중앙티베트에서 과세

---

141) *si tu bka' chems*, pp.91.3-92.2, "/shes rab rdo rje dang/ dbang phyug gis mgo byas gong du brdzangs/ de'i zla la dben pa'i mi yung 'jang da ra kha che/ ol ja the mun shes bzhin btang/...(중략).../swon cing dben gyi ston mo'i thog tu slebs 'dug pa/ mi dpon rnams kyis chings sang la zhus/ chings sang gis gong ma'i drung du zhus nas sleb pa'i sang/ gong ma'i drung du mjal nas/ mjal 'phrad legs ching tshe'i lugs bzhin bya ba rnams bsgrubs gsung ba'i **lung bud nas**/ khri skor la dgos pa'i dngul gyi dam kha sgor mo gnyis/ khri skor gyi mi sde 'jal dudkyi 'jams dud kyi 'jams ma gtogs pa'i khral chu ci yin phyed 'chag tu phyug gsung ba'i swon ching dben gyi bca' hu/ gnang byin che ba/ gser gyi ska rags dang/ dbang rgyal burang rta la shog gsung ba dang/ dben pa 'ja' mo 'chos kyi shog gsung ba'i **lud bud pas**/ mdo khams yar bcad thams cad la rgyal dben gyi gnod pa med pas/";『朗氏家族史』, pp.145-146. 한편, 馬睿, 易奎伍은 이 사건을 근거로 이때부터 원조가 장춥 걜챈의 승리를 인정해줄 수밖에 없었으며, 팍모두 정권 설립 노력을 지지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馬睿, 易奎伍, 2016, p.4. 그러나, 이는 장춥 걜챈의 후반기 행적을 고려하였을 때 재고의 여지가 있다. 성지를 내려 그 만호에 유리한 일을 지시한 것은 팍모두 만호만 해당되지 않았으며, 앞서 보았듯이 챌파 만호장들도 이른 시기부터 대칸을 영접하고 각종 물품과 성지를 받아왔다. 또한 장춥 걜챈은 이 이후에도 여러 사건들을 겪으며 아직 중앙티베트에서 확고한 승리자로 올라서지 못한 상태였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이 사료에서도 만호장으로서의 역할에 한정하여 자신의 요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자신만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노력을 보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기준에 해당하는 호구를 “몽골戶(hor 'dud)”로 설정하였다.[142] 그중 역참과 관련된 부세는 초기 중앙티베트 만호에 속한 호구 중 역참 업무를 부과받은 호구가 직접 파견되어 인력과 물자를 조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상가(Sang gha, 桑哥)의 개혁을 거친 뒤에는 해당 호구에서 가축, 고기 등 역참에 필요한 물품만을 역참에 주둔하는 몽골군에게 보내주는 형태가 되었다.[143] 그러나 그 뒤로도 역참에 의한 폐단은 꾸준히 지적되었다. 실제로 陝西 奉元路에서 泰定 2년(1325년) 정월부터 6월까지 약 반년간 티베트 승려들의 역참 이용횟수를 계산하였을 때, 약 200회가 집계되었다.[144] 이처럼 역참의 이용이 잦아질수록 역참의 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중앙티베트 각 만호들의 부담 역시 늘어났을 것이다. 상기한 인용문 후반부에서 왕자, 즉 몽골 諸王의 역참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은 1350년대까지도 역참의 폐단이 중앙티베트에 중요한 문제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145]

이시기 티베트의 역참이 큰 문제였다는 사실은 다른 사료에서도 확인된다. 『紅冊』에는 장춥 걜챈과 동시대 인물인 까르마派(kar ma pa)의 고승 뢸빼 도르제(Rol pa'i rdo rje)가 토곤 테무르의 초청을 받아 대도로 가게 된 일화가 있다. 이때 그는 역참을 이용하여 대도로 갈 것을 제안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참호들이 매우 기뻐하였다고 한다.[146] 뢸빼 도르제는 티베트에서

---

142) 최소영, 2019, pp.316. 이때 몽골호가 될 수 있는 기준은 집, 호구수, 토지, 가축 등을 종합한 것이었다.

143) 최소영, 2019, pp.346-347.

144) 山本明志, 2008, pp.261-263.

145) 『經世大典』「站赤」에는 티베트로 향하는 물품이동과 관련된 驛站에게서 보고된 폐단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다. 관련 내용은 山本明志,「モンゴル時代におけるチベット・漢地間の交通と站赤」,『東洋史研究』 67-2, 2008 참고. 또한 『漢藏史集』에 따르면 상가가 이미 13세기 후반 직접 티베트에 방문하여 역참의 개혁을 주도하여 현지민들의 부담을 낮추어 주었다고 하였으나,「站赤」에는 그 이후에도 티베트 路程에 있던 역참들이 대도에서 티베트로 돌아가는 승려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역참의 부담이 지나치게 컸음이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역마 당 무게를 1百斤 이하로 제한하고 최대한 역마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안건도 올라왔지만, 티베트 승려들은 대칸 및 몽골 고위층과 가까웠던 탓에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웠다. 최소영, 2021b, pp.212-215.

대도로 가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보시품을 받아 대도에서 티베트로 돌아오는 상황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역참의 이용량이 적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마저도 참호들에게 큰 부담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역참의 폐단을 줄이고 기타 부세를 감면해준다는 성지를 받은 장춥 걜챈은 팍모두 만호장으로서의 입지를 더 확실하게 다질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는 원조가 그에 대한 호의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장춥 걜챈이 당시 원조에 대한 정치적 관계를 중시하였다는 것은 다음 사례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사례는 『司徒遺訓』에서만 확인되며, 중앙티베트에서 웬빠(dben pa)로 대표되는 宣政院과 걜부(rgyal bu), 즉 왕자로 등장하는 몽골 제왕 간의 갈등 양상을 그리고 있다.

> 후에 웬빠(宣政院 분원 관인)가 궁탕에 이르셨을 때, 거기에서 都元帥와 (디궁 만호의) 곰빠 둘이 웬빠를 회견하고 사정을 보고한 뒤에 곰빠는 북쪽에 왕자 형제의 영접을 위하여 가셨고 都元帥는 웬빠의 代辨을 맡아 이곳(네우동)으로 오셨다. 나도 쌈얘 숭까르에 영접을 위하여 갔다. 웬빠를 이곳에서 영접하였는데, 왕자가 도르제 뻴(Rdo rje dpal) 司馬와 샹뽀 남카 뻴(Zhang po gnam mkha' dpal)을 (나에게) 보내서 "웬빠에게 복속하지 말라"고 하는 口信을 몰래 보냈지만 **詔書, 分院의 인장, 관직 등이 (웬빠에게) 있었기 때문에 조서를 듣고 웬빠에게 복속하고**...(후략)[147]

---

146) *deb ther dmar po*, 1363/1981, p.112.17-26; 『紅史』, p.100; 최소영, 2022, pp.135-138.

147) *si tu bka' chems*, p.90.3-10, "rting la dben pa gung thang du phebs dus/ der du dben sha dang/ sgom pa gnyis mjal/ rgyu mtshan rnams zhus nas/ sgom pa byang la rgyal bu sku mched kyi bsu ba la thegs/ du dben shwas dben pa'i mgo lung byas nas tshur byung/ rang res kyang bsam yas zung dkar du bsu ba la phyin/ dben pa tshur gdan drangs kyang/ rgyal bus rdo rje dpal zi ma dang/ zhang po nam mkha' dpal mngangs nas/ dben pa la ngo ma lta zer ba'i sbel kha (lan) gcig zur du bskur byung na'ang/ **'ja' sa hun dben gyi dam kha khrims ra dang bcas 'dug pas/ 'ja' sa nyan/ dben pa la ngo lta byas**..(후략)"; 『朗氏家族史』, p.144.

사건의 시발점은 장춥 걜챈의 복속 대상 문제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기서 등장하는 왕자는 종래 중앙티베트에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鎭西武靖王으로, 이때의 왕자는 테무르 부카의 증손자 아라트나슈리(Aratnaśri)이다. 그는 1332년 3대 까르마빠 랑중 도르제(Rang byung rdo rje)를 종교적 스승으로 삼고, 1356년에는 4대 까르마빠 뢸빼 도르제(Rol pa'i rdo rje)에게 보시하였을 만큼 선조들처럼 중앙티베트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148] 위 인용문은 그가 중앙티베트를 방문하였을 때 宣政院 分院의 관인도 동시에 중앙티베트를 방문한 상황을 말하고 있다. 이때 왕자, 즉 鎭西武靖王 아라트나슈리는 부하를 보내어 장춥 걜챈에게 宣政院에 복속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하였지만, 장춥 걜챈은 이를 거부하고 宣政院을 선택하였다.

페텍은 이 사건에 대하여 宣政院 分院이 관직 및 분원의 인장을 가지고 있었음을 근거로 그 지위가 왕자보다 높았다고 보았다.[149] 하지만 장춥 걜챈의 입장에서 복속문제는 양측의 지위 고하만으로 결정을 내릴 만큼 단순하지 않았을 것이다. 鎭西武靖王이 과거 자신의 취임을 비롯하여 전임 만호장 쇤누 욘땐의 파면을 주관하는 등 오랫동안 팍모두 만호 사무에 관여해왔다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그를 거스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한 鎭西武靖王은 1285년 디궁의 난 당시 중앙티베트에 군사 작전을 펴기도 하였다. 즉, 그는 기본적으로 유사시 티베트에 무력을 행사할 수 있었끼 때문에 장춥 걜챈은 최악의 경우 鎭西武靖王과의 군사적 충돌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춥 걜챈이 조서를 비롯한 조정의 증빙들을 강조하며 宣政院을 지지한 것은 그가 원조가 가지는 정치적 명분과 정당성에 높은 가치를 두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150]

---

148) Luciano Petech, 1990, p.110.

149) Luciano Petech, 1990, p.111.

150) 현실적으로 鎭西武靖王이 이 시점 무렵에는 과거처럼 세력이 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쿠빌라이의 아들, 손자가 西平王-鎭西武靖王으로 활동하던 13세기 중엽에는 民政과 軍政을 총괄하는 宣慰使司都元帥府가 설치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측면에서 鎭西武靖王이 개입할 여지가 많았다. 1285년 디궁의 난 때 鎭西武靖王이 디궁파를 진압하기 위해 군사행동을 펼친 것도 그러한 맥

장춥 걜챈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왕자 측과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음은 이러한 정황을 잘 보여준다.

> 웬빠가 야르독강다(yar ‘brog sgang 'dra)[151]로 가신 뒤 왕자 형제의 신하가 (디궁의) 곰빠로 필두를 삼아서 궁탕에 이르셔서 “나에게 복속을 다시 해!”라고 말씀하심에, “이전에도 반란한 적 없었지만 성지가 이르셨기에 복속은 한 번 웬빠에게 하였고 지금 다시 복속하라는 일은 하지 않았다(않겠다)”하여 가지 않자 **곰빠(Sgom pa)가 왕자에게 청하여서 “공까르(gong dkar)[152] 이곳은 저희 디쿵빠(디궁파)가 세운 곳이므로 빼앗아서 저희에게 주시기를 청합니다” (라고) 청하였고 (왕자는) “취하여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왕자의 교대자(케식)와 사(bza')軍을 디궁 측으로 삼아 짱라야르똑(gtsang la yar gtogs)에 있는 가옥 28채 가량이 불에 의해 타버렸고, 모든 山河에 盜匪가 생기니 많은 人畜에게 위해를 입혔다. 그뒤 웬빠가 야르독에서 랍쭌(rab btsun)으로 오시자 왕자도 탕꺄(thang skya)[153]에서 욀(yol)의 거처로 가셨다. 그동안 연락은 대인 딩주(mi chen ding ju)[154]와 쇤걜(gzhon rgyal) 都元帥, 곰빠가 하

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하지만, 1292년 烏思藏納里速古魯孫等三路宣慰使司都元帥府가 설치된 이후 宣政院에서는 해당 기구를 통해 직접 중앙티베트의 군정을 관할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군사적 기능을 맡았던 鎭西武靖王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아유르바르와다가 티베트의 군사 사무를 宣政院에 예속시키는 조치를 단행한 사실은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한다(각주 59번 참조). 결과적으로 군사활동을 기반으로 중앙티베트에 관여해온 鎭西武靖王의 영향력은 宣政院 중심의 통치체제가 확립되어가면서 점차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장춥 걜챈이 宣政院 측을 따른 것은 이러한 정세변화를 의식하고 판단한 결과일 것이다.

151) 위(dbus)지역와 짱(gtsang)지역 사이에 위치한 야르독(yar 'brog)호수 일대로 추정. 현 西藏自治區 羊卓雍湖.

152) 라싸 남쪽 40km 지점. 현 西藏自治區 貢嘎縣.

153) 라싸 동북부 50km 지점. 현 西藏自治區 唐加縣.

154) 여기에서 등장하는 딩주는 다른 티베트 사료에서 같은 이름을 더 확인할 수 있다. 『紅冊』에는 토곤 테무르가 4대 까르마빠 뢸빼도르제를 초청하기 위해 파견한 일행에서 “[선정]원의 관료인 딩주 院使(dben gyi mi dpon ding ju dbon dpon)”, 즉 宣政院使로 소개되어 있다. *deb ther dmar po*, 1363/1981, p.111.21; 『紅史』, p.99; 최소영, 2022, pp.132-134. 한편, 최소영은 『紅冊』의 위 기사 이후

였고, **왕자 형제, 딩주, 곰빠의 음모로 웬어른(웬빠)의 품에서 웬(宣政院)의 印章과 위대한 詔書를 강취하고 숭뻴왕후뻰(gzung dpa dbang hu spun)을 죽이고서 몽골도원수의 인장과 예물을 딩주에게 주고서 (그를) 몽골도원수에 임명하고자 하였다**.[155]

이후 왕자는 다시 장춥 걜챈의 복속을 요구하였지만, 장춥 걜챈은 이미 한 번 宣政院에 복속하였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그리고 장춥 걜챈의 복속 문제에서 비롯된 갈등은 디궁 만호가 관할지를 노리고 왕자 측에 가담하면서 심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장춥 걜챈의 복속을 두고 벌어진 宣政院과 鎭西武靖王 간의 알력다툼에 티베트 현지의 관할지 다툼이 혼재된 것이다. 왕자 측은 공까르(gong dkar)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디궁 만호의 요청을 들어

에 鎭西武靖王 다르마(Dhar ma)와 군사적 충돌을 준비하다 뢸빼 도르제의 중재로 멈춘 디주 핑창(Di ju phing chang)이라는 인물도 딩주 원사와 동일인물로 보았다. 최소영, 2022, p.127. 『司徒遺訓』의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딩주라는 자는 티베트 관련 사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관료였으며, 처음에는 鎭西武靖王의 편에 섰다가 이후 모종의 불화로 인해 鎭西武靖王과 갈등을 벌였던 것으로 보인다.

155) *si tu bka' chems*, p.94.1-15, “dben pa yar 'brog sgang 'dra la thegs rting/ rgyal bu sku mched kyi blon po/ sgom pas mgo byas nas gung thang du slebs/ rangre la ngo blta ba yang yang shog zer bala sngar yang ngolog pa med na'ang/ lung byon pas ngo lta thebs gcig dben pa labyas/ da yang yang ngo lta dgos pa'i las ma byas nas ma phyin cing/ **sgom pas rgyal bu la zhus nas/ gong dkar 'di nged 'bri khung pas brtsigs payin pas/ blangs nas nged la gtod pazhu zhus 'dug(/) sbe len byas nas gtod pa yin gsungs 'dug(/)** rgyal bu'i res pa dang/ bza' dmag 'bri khung pas byas nas/ gtsang la yar gtogs su khang pa nyi shu rtsa brgyad tsam mes bsregs/ ri klungs thams cad du rkun jag byas nas/ mi phyugs mang po la gnod pa bskyal/ de rting dben pa yar 'brog nas rab btsun du slebs/ rgyal bu yang thang skya nas yol gzims khang du byon/ de'i bar du sul rgyud mi chen ding ju dang/ gzhon rgyal du dben sha/ sgom pas byas nas/ **rgyal bu sku mched/ ding ju/ sgom pa'i nang gros la/ dben rgan gyi lag nas dben gyi dam kha dang/ 'ja' sa chen mo 'phrog(/) gzung dpal dbang hu spun bsad nas/ hor du dben sha'i dam rtags/ ding ju la byin nas/ hor du dben shwa la bsko/**”; 『朗氏家族史』, p.147.

주는 형태를 취하였으나, 디궁 측 군대에 왕자의 케식이 가담하였다는 점을 볼 때 사실상 디궁 만호의 요청을 앞세워 자신에게 복속하지 않은 장춥 걜챈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필자는 이상의 사건으로부터 이 시기 중앙티베트 정세의 몇 가지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팍모두 만호 외에도 중앙티베트의 만호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몽골 지배층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장춥 걜챈의 복속 문제는 디궁 만호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었으나, 디궁 만호 측에서는 이 사건을 이용하여 장춥 걜챈에 대한 인식이 악화된 왕자 편에 가담하였고 관할지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는 Ⅱ장에서 장춥 걜챈이 몽골 지배층의 권위를 활용했던 모습이 당시 중앙티베트 만호들에게 보편적인 현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14세기 중반까지도 몽골 제왕, 특히 鎭西武靖王 계통이 중앙티베트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漢藏史集』은 대칸의 계보을 제외하면 西平王과 鎭西武靖王 가계를 특별히 기술하였다.[156] 이는 중앙티베트에서 진서무정왕의 힘이 오랫동안 발휘되었다는 역사적 배경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때 宣政院과 鎭西武靖王이 중앙티베트 만호를 두고 대립한 것은 초기 원조가 鎭西武靖王을 통해 중앙티베트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던 상황과 달라졌음을 시사한다. 즉, 鎭西武靖王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중앙티베트에 독자적인 힘을 행사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진서무정왕 측이 모의한 계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왕자 측은 宣政院의 법적 근거인 分院의 인장과 조서를 빼앗고 왕자 측 인물인 딩주를 몽골도원수에 임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왕자 측이 宣政院을 견제하고 중앙티베트에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모습으로 보인다.[157] 이 갈등은 宣政院

156) 최소영, 2019, pp.306-307.

157) 페텍은 이 모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Luciano Petech, 1990, p.111. 하지만 차야는 사료에서 “陰謀(nang gros)”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傳言이며,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나오는 숭뻴왕후뻰 등이 뒤에 다시 등장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 모의는 계획에 그쳤으며,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Olaf Czaja, 2013, pp.137-138. 필자는 후자의 견해를 수용하였다.

分院 관인에 대한 왕자 측의 직접적인 공격으로 이어졌는데, 『司徒遺訓』에 따르면 이 사건 이후 왕자 측이 야를룽짱포(yar rlung gtsang po)강 북쪽으로 이동하던 웬빠를 급습하였다.[158] 이때에도 장춥 걜챈은 웬빠를 군사적으로 보호하였고 원조를 지지하는 자신의 태도를 견지하였다.

이 사건에서 宣政院을 지지한 장춥 걜챈은 이후 디궁 만호에 대한 군사적 승리를 거두면서 강력한 정치적 명분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디궁파에 대하여 "세첸 황제(se chen=薛禪, 즉 쿠빌라이)에게 화살통을 여는 자"라며 비판하였고, 반대로 자신에 대해서는 "세첸 황제에게 화살통을 여는 자를 감시하는 자, 싸꺄파 라마를 존숭하는 자"로 묘사하였다.[159] 이는 장춥 걜챈이 디궁파가 과거 싸꺄파 정권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는 정치적 약점을 건드린 것이다. 그리고 그는 동시에 대칸에 충성하는 자신의 모습을 강조하였다. 즉, 장춥 걜챈은 자신이 원조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주변 만호와 벌인 갈등에서 자신의 행위를 대칸을 지키는 것으로 정당화시킨 것이다. 이는 과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원조를 활용하던 모습에서 나아가 자신의 공격 행위를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장춥 걜챈의 변화된 입지를 보여준다. 그가 꾸준하게 자신의 행동을 원조의 뜻에 반대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조정의 지지를 유지하고자 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을 것이다.[160] 환언하면 장춥 걜챈이 개인적으로 가진 몽골에 대한 인식과는 별개로 변화하는 중앙티베트 정세에서 원조의 정치적 권위를 계속해서 활용하였음을 보여주며, 이것이 그가 중앙티베트를 장악할 수 있었던 한 요인일 것이다.[161]

---

158) *si tu bka' chems*, p.95.5-6; 『朗氏家族史』, p.148.

159) *si tu bka' chems*, p.98.13-14, "khye se chen rgyal po la dong pa kha byed/ nged se chen rgyal po la dong pa kha 'byed po rtog pa byed/ nged sa skya pa bla mar 'khur/"; 『朗氏家族史』, p.150.

160) 馬睿, 易奎伍, 2016, p.4.

161) 최소영, 「13~14세기 몽골의 침입과 지배에 대한 티베트인들의 인식」, 『중앙아시아연구』 23-1, 2018, pp.88-90. 갬블과 양모초 역시 장춥걜챈이 가진 몽골인 황제에 대한 태도는 "양면적"이었으며, 황제로부터 법적인 지지를 구하고자 노

2. 大司徒 受封과 元朝와의 관계

장춥 걜챈의 대표적인 별칭인 '大司徒'는 그의 후반기 행적에 수여되었다. 대략적인 수여과정은 다음과 같다. 1357년 新年 직후, 중앙티베트를 방문한 宣政院使(혹은 副使) 이라오(Yi la'o)는 장춥 걜챈에게 황제의 성지가 내려졌고, 상으로 그에게 大司徒의 封號와 印章을 수여할 것이라는 소식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대사도 수여를 위한 印章과 封誥를 가진 일행이 당시 싸꺄파의 고승 쇠남 로되(Bsod nams blo gros)를 모시기 위한 宣旨欽差 루걜(Klu rgyal) 斷事官 일행과 합류하여 중간에 지체되었다.[162] 결과적으로 장춥 걜챈은 그 이듬해인 1358년 신년에 정식으로 대사도에 임명되었다.[163]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춥 걜챈은 1357년 전에 이미 대사도를 원한 바 있다. 그렇다면, 대사도라는 직위가 그에게 어떠한 의미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元史』「百官志」에서 묘사되는 대사도는 그 관위의 치폐와 開府가 자유로웠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연한 관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164] 이는 대사도에 임명된 인물이 시기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그 실제적인 지위도 명확히 규정짓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元史』에서 확인된 대사도는 총 56명이나, 대부분 어떠한 이유로 대사도를 수여받게 되었는지까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중 추증된 인물은 13명이므로 생전에 대사도를 받은 인물은 43명이다.[165] 이들의 출신성분을 살펴보면 한인, 몽골인, 위구르인, 네팔인

력하면서도 그들에게 헌신적인 태도는 아니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Ruth Gamble & Yangmotso, 2015, p.153.

162) *si tu bka' chems*, p.150.1-14; 『朗氏家族史』, pp.188-189. 차야는 페텍이 tu shri mgon을 斷事官으로 이해한 것에 반대하고, 明代 확인되는 관직인 都事官으로 보았다. 필자는 퀘입의 논증을 수용하여 해당 단어가 斷事官이며, 몽골어 ǰarγučі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Leonard van der Kuijp, "Jambhala: An Imperial Envoy to Tibet During the Late Yuan,"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13-4, 1993, pp.529-538.

163) *si tu bka' chems*, p.158.16-21; 『朗氏家族史』, p.196.

164) 『元史』 卷85 「百官一」, p.2120.

165) 『元史』 「列傳」에 등장하는 대사도는 총 28명인데, 그 가운데 13명이 追贈되었

등 다양하며, 대사도에 임명된 시기도 쿠빌라이대부터 토곤 테무르대까지 폭넓게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대사도 수여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시상적인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43명 가운데 티베트인으로 비정될 수 있는 인물은 泰定 4년(1327년)에 등장하는 "亦憐真乞剌思(Ye [shes] rin chen grags으로 추정)[166]" 단 한 명으로, 태정제는 그를 大承華普慶寺總管府의 다루가치로 임명하면서 대사도를 함께 수여하였다.[167] 그렇지만, 이 인물과 장춥 걜챈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시기적으로도 약 30년의 차이가 있으며, 장춥 걜챈은 중앙티베트 현지 관원으로서 대사도에 임명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앙티베트에서 대사도에 임명된 만호장은 없었는가. 팍모두 만호와 인접한 챌파의 만호장들은 대대로 司徒 혹은 大司徒를 수여받았다고 전해진다.[168] 일례로 당시 장춥 걜챈과 경쟁한 챌파 만호장 뀐가 도르제도 1334년 이후에 사도를 수여받았다.[169] 또한 그의 아들 게렉 상뽀(Dge legs

---

다. 즉, 약 절반에 달하는 인물이 死後에 대사도에 임명된 것이다. 또한 南宋의 마지막 황제 趙昰도 남송 멸망 직후 쿠빌라이로부터 檢校大司徒를 수여받았다. 『元史』 卷9 「世祖六」, 至元十三年, p.182, "五月乙未朔, 伯顔以宋主顯至上都, 制授顯開府儀同三司, 檢校大司徒, 封瀛國公."; 卷127 「伯顔傳」, pp.3112-3113, "五月乙未, 伯顔以宋主至上都, 世祖禦大安閣受朝, 降授宋主昰開府儀同三司, 檢校大司徒, 封瀛國公."이는 대사도라는 직책이 定員 외적으로 유연하게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며, 원대에 대사도라는 직능을 명확히 정의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66) 티베트어 한문표기의 재구는 稲葉正就, 「元の帝師に關する研究」, 『大谷大學研究年報』 17, 1965를 참고하여 추정하였다.

167) 『元史』 卷30 「泰定帝本紀二」, 泰定四年, p.677, "丙子, 命亦烈赤領仁宗神御殿事, 大司徒亦憐真乞剌思爲大承華普慶寺總管府達魯花赤, 仍大司徒." 대승화보경사는 仁宗 아유르바르와다가 大德 연간에 조모 裕聖后를 기리기 위해 大都에 수건한 佛殿이었다. 이후 至大 元年에 아유르바르와다가 황태자에 임명되자 사원으로 확장되었고, 이에 총관부를 두어 관리케 하였다. 이후 몇 차례 명칭의 개편이 이루어지다가 泰定 4년(1327년) 다시 대승화보경사총관부가 설치되었다.

168) 최소영, 2022, p.284.

169) *deb ther dmar po*, 1363/1981. pp.102.18-103.5; 『紅史』, p.92; 최소영, 2022, pp.129-131. 뀐가 도르제의 異名은 씨뚜 게왜로되(si tu dge ba'i blo gros), 챌빠

bzang po) 역시 『궁탕志』에서 “대사도” 또는 “사도”로 소개되어 있다.[170] 반면, 역대 팍모두 만호장들 가운데 장춥 걜챈을 제외하면 사도 혹은 대사도에 임명된 인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중앙티베트의 만호장들 사이에서도 지위상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앙티베트에는 팍모두, 챌파, 야상 등을 비롯하여 여러 만호가 존재하였으나, 그 규모나 세력은 각기 달랐다(지도 1 참조).[171] 그중 중앙티베트에서 가장 중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라싸(lha sa)를 근거지로 삼은 챌파 만호는 만호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궁탕志』에 따르면 챌파 만호는 대대로 대칸들의 影堂을 지어 추모하였다. 또한 라싸를 관할하였기 때문에 티베트의 古刹 조캉(jo khang, 大昭寺), 라모체(ra mo che, 小昭寺) 등을 보수 및 관리하였다.[172] 이처럼 중앙티베트에서 챌파 만호가 가지는 특별한 위치는 같은 위(dbus)지역에 위치한 장춥 걜챈에게 충분히 경쟁상대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장춥 걜챈은 1352년경 세력을 확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챌파 만호장 뀐가 도르제에게 승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일한 만호장에 불과하였으며, 오히려 챌파 만호장은 대대로 이어진 대칸과의 관계를 통해 정치적 지위면에서 이점이 있었다. 따라서 장춥 걜챈이 원조로부터 대사도를 받는다면, 대대로 황실의 총애를 받아온 챌파 만호와 위상이 같아지거나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장춥 걜챈의 입장에서 대사도라는 칭호는 실제 대사도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나 직능을 노렸기 때문이라기보다 그것을 통해 높은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사도(tshal pa si tu) 등이다.

170) *gung thang dkar chag*, p.37b.4-5; Per K. Sōrensen & Guntram Hazod, 2007, pp.202-203. 다만, 게렉 상뽀의 경우 처음에만 “대사도”로 지칭되어 있고, 이후 서술에서는 황제로부터 “사도”의 명칭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 정확히 어떠한 칭호를 받았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171) 최소영, 2010, pp.66-68.

172) 최소영, 2022, pp.274-278; Per K. Sōrensen & Guntram Hazod, 2007, p.189. 챌파 만호는 이를 근거로 하여 몽골 황실로부터도 많은 보시를 받았다.

다른 한편으로 원조는 왜 1357년이라는 시점에 장춥 걜챈에게 대사도의 호칭을 내려주었는가. 이시기 장춥 걜챈은 앞서 다루었던 여러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팍모두 만호를 넘어서 중앙티베트 전역으로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다. 일례로 장춥 걜챈은 1350년경 벌어진 디궁 만호와의 갈등에서 처음으로 팍모두 만호의 관할지 밖인 공까르(gong dkar)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이는 이전까지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던 모습에서 전환된 것으로, 선행 연구에서도 장춥 걜챈의 진출에 주목한 바 있다.[173]

그의 변화된 입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은 1354년 걜와 상뽀(Rgyal ba bzang po)의 정치적 복속을 받은 일과 이로 인해 벌어진 걜와 상뽀의 구금 사건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준 일일 것이다. 원래 걜와 상뽀는 앞에서 다룬 장춥 걜챈의 구금 사건에서 싸꺄 뻰첸으로서 가담하였던 전력이 있어 장춥 걜챈과는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관계였다. 그러나 1350년대 들어 그는 장춥 걜챈과 상호 존중 하에 원만한 관계를 성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두고 차야는 이미 이 시점에 장춥 걜챈은 위지역의 실력자로서 그 지위가 분명하였기 때문에 걜와 상뽀도 화의를 통해 그의 지위를 인정해준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174] 필자도 이에 동의하며, 싸꺄 측에서는 위지역의 세력들을 모두 제압한 장춥 걜챈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 결과로 장춥 걜챈은 이전에 장악한 공까르지역을 완전히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장춥 걜챈과 화의를 마친 걜와 상뽀는 싸꺄로 돌아오자마자 구금을 당하였다. 이는 당시 제사 뀐가 걜챈의 두 아들 최끼걜챈(Chos kyi rgyal mtshan)과 로되걜챈(Blo gros rgyal mtshan)에 의한 소동이었다.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취한 이유로 장춥 걜챈과 적대관계였던 뀐가 걜챈 계통, 즉 싸꺄파 라당 가운데 하캉라당(lha khang bla brang) 계열의 불만에 의한 것이었다는 선행연구의 지적이 있다.[175] 또한 이 사건에는 라당(bla brang) 간의 세

---

173) Olaf Czaja, 2013, pp.132-133.

174) Olaf Czaja, 2013, p.143.

175) Luciano Petech, 1990, p.145. 陳慶英 역시 이 시기 라당 간의 반목문제를 제기

력 갈등 외에도 걜와 상뽀 자신의 이권문제 및 싸꺄파 내부의 현안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176] 결과적으로 걜와 상뽀의 구금은 장춥 걜챈에게 짱(gtsang)지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명분이 되었다. 짱지역으로 진출한 그는 싸꺄파 인물들을 소집하여 갈등을 중재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걜와 상뽀의 아들로부터 싸꺄 뻰첸의 인장을 확보하여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에서도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이로써 장춥 걜챈은 걜와 상뽀를 석방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같은 해 추믹(chu mig) 지역에서 걜와 상뽀의 완전한 복속을 받아내어 짱지역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장춥 걜챈의 행보를 살펴보았을 때, 원조는 중앙티베트에서 가장 유력한 실력자가 된 장춥 걜챈을 대사도에 임명함으로써 그의 지위를 인정해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Ⅲ장 1절에서 다루었듯이 장춥 걜챈은 과거 만호의 인장과 대사도의 인장을 동시에 원하였으나, 결국 대사도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감안하면 원조가 1357년 그를 대사도에 임명한 것은 그가 처음 원했던 요구사항을 온전히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하여 陳慶英은 원말 각지의 농민봉기와 조정 내부의 혼란으로 인해 원조가 수도와 멀리 떨어진 티베트에까지 힘을 발휘할 수 없었고, 따라서 장춥 걜챈의 지위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장춥 걜챈의 대사도 임명은 티베트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며, 원조가 정식으로 장춥 걜챈에게 싸꺄 정권을 대체하여 중앙티베트의 행정권을 준 것으로 평가하였다.[177]

원조가 장춥 걜챈을 대사도에 임명함으로써 그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증대

하였다. 즉, 과거 帝師 뀐가 로되가 나눈 4개의 라당 가운데 시똑라당, 린첸강라당, 뒤최라당은 걜와 상뽀를 지지하였고, 하캉라당은 왕쬔을 지지하였다. 그 결과로 인해 장춥걜챈은 짱(gtsang)지역으로 진입할 명분이 생겼으며, 걜와 상뽀 자신도 결과적으로 이 갈등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다. 陳慶英,「元代烏思藏本欽紀略」,『陳慶英藏學論文集』, 2006, p.309.

176) Olaf Czaja, 2013, pp.145-147.

177) 陳慶英, 張雲, 熊文彬 主編,『西藏通史: 元代卷』北京: 中國藏學出版社, 2015, p.132.

시킨 것은 분명하다. 그는 1358년 신년에 대사도에 임명되었는데, 그 직전에 싸꺄의 고승들을 비롯하여 중앙티베트의 모든 관인과 고승을 자신이 머물고 있던 추믹(chu mig)지역으로 초청하였다.[178] 그는 앞서 1357년에 이미 자신이 곧 대사도에 임명될 것을 알고 있던 상태였다. 따라서 1358년 신년에 그가 중앙티베트의 인사들을 모은 것은 신년의례를 주도함과 동시에 자신의 대사도 수봉 장면을 선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었을 것이다. 즉, 대사도 수봉은 장춥걜챈에게 분명한 증표로써 중앙티베트의 실권자가 된 그의 입지를 재확인시켜주는 의미가 있었다.

다만, 원조가 장춥 걜챈에게 대사도의 호칭을 내려준 것만으로 싸꺄 정권을 대체하고자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기존의 중앙티베트의 실질적 행정수장인 싸꺄 뻰첸, 그리고 제사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일개 만호장에게 대사도 호칭이 더해졌다고 해서 기존 체제를 혁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싸꺄 뻰첸이었던 걜와 상뽀가 장춥 걜챈에게 복속한 사례를 보았을 때 이미 장춥 걜챈이 실질적으로 중앙티베트의 행정에 개입할 여지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新紅冊』(deb ther dmar po gsar ma), 『티베트王臣記』 등 후대 사료에서 그가 중앙티베트 각지에 요새를 짓고 지방장관격인 "종뻰(rdzong dpon)"을 파견하며 15가지 법령을 새로 제정하였다는 등의 기록은 이를 뒷받침한다.[179] 이러한 서술들은 장춥 걜챈이 당시 중앙티베트 정세에 주도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을 시사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조가 장춥 걜챈을 통해 싸꺄 정권을 대체할 의도가 있었다면 '대사도 장춥 걜챈'이라는 인물이 기존 체제의 실권과 지위를 상회해야 타당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대사도로서 장춥 걜챈의 지위는 『司徒遺訓』 안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앙티베트에서 대사도라는 지위가 대칸

---

178) *si tu bka' chems*, p.158.16-17; 『朗氏家族史』, p.205.

179) Pan chen Bsod nams grags pa, *rgyal rabs deb ther dmar po gsar ma*, New Delhi: International Academy of Indian Culture, 1538/1968, p.59b.3-4; 班欽·索南查巴, 黃顯 譯, 『新紅史』, 拉薩: 西藏人民出版社, 2002, p.56; *gangs can yul gyi rgyal blon gtso bor brjod pa'i deb ther*, pp.161.3-4, 162.2-4; *The Song of the Queen of Spring or A History of Tibet*, pp.109-111.

의 스승으로서 백여 년 동안 큰 존숭을 받았던 제사의 지위를 압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180]

또한 이 무렵 장춥 걜챈은 이미 중앙티베트에서 세속권력의 일인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호장의 소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중앙티베트의 만호장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임무 가운데 하나는 大都로 향하는 사신단 혹은 승려의 호송업무였다. 앞서 제사 뀐가 걜챈이 장춥 걜챈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었던 것도 만호장으로서 자신을 호송해야 하는 임무를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춥 걜챈은 만호장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좋지 않은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357년에 여전히 대도로 향하는 사절단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그 접대를 담당하였다. 그는 싸꺄 뻰첸의 명령으로 위(dbus)지역을 통과하는 싸꺄파 고승 쇠남 로되(Bsod nams blo gros)의 호송을 위해 위지역의 千戶 및 萬戶에게 호송에 필요한 탈것과 음식들을 나누어 준비하도록 할 것을 전달받았고, 그대로 시행하였다.[181] 여기서 그가 위지역의 승려 호송업무를 총괄하는 모습은 그의 커진 위상을 보여준

---

180) 이는 대표적으로 「釋老傳」에서 확인할 수 있다. "[帝師는] 백년 간, 조정에서 공경되고 예우받으며 신뢰하는 것이 그 지극함을 사용하지 않음이 없었다. 비록 황제, 황후, 황비, 공주일지라도, 모두 그로 인하여 戒를 받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큰절을 올렸다. 正衙의 朝會에서 百官들이 도열하면, 제사 또한 간혹 한켠의 자리에 앉아 있는다. 또 매번 황제가 새로 즉위할 때, 칭송하고 보호하도록 하는 조서를 내렸으며, 반드시 章佩監에게 신칙하여 구슬을 엮어 글자를 만들어서 하사하였으니, 무릇 그를 중히 여김이 이와 같았다." 『元史』 卷202, 「釋老傳」, pp.4520-4521, "百年之間, 朝廷所以敬禮而尊信之者, 無所不用(其至). 雖帝, 后, 妃, 主, 皆因受戒而爲之膜拜. 正衙朝會, 百官班列, 而帝師亦或專席於坐隅. 且每帝即位之始, 降詔褒護, 必敕章佩監絡珠爲字以賜, 蓋其重之如此." 사실상 명예직에 가까운 상태로 다수의 인물에게 수여되던 대사도가 황실로부터 매우 융숭한 대접을 받는 제사의 지위를 넘는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181) *si tu bka' chems*, p.153.8-11; 『朗氏家族史』, p.192. 물론 이때의 장춥 걜챈은 이전처럼 뀐가 걜챈에게 핍박받던 상황이 아니었다. 그는 쇠남로되에게 빠르게 위지역을 통과할 것을 재촉하였고, 이에 쇠남 로되는 장춥 걜챈이 하캉라당(lha khang bla brang)의 수입과 음식들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그러자 장춥 걜챈은 과거 하캉라당이 팍모두 세력의 재산을 빼앗고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였던 사실을 거론하며 쇠남 로되의 인식을 비판하였다.

다. 그렇지만 그가 여전히 형식상 싸꺄 뻰첸의 명령을 받아 수행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싸꺄 정권이 여전히 존재하였으며, 장춥 걜챈이 싸꺄 정권을 대체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그가 이러한 태도를 유지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필자는 원대 후기까지 장춥 걜챈과 갈등을 벌인 집단, 즉 싸꺄파 내 反장춥 걜챈 세력이 원조와 가까웠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그를 지속적으로 견제했던 하캉라당(lha khang bla brang) 출신인 뀐가 걜챈은 1330년대 초반부터 제사를 맡아 1358년경 사망할 때까지 약 30여 년 동안 활동하였다. 이는 역대 제사들의 재임 기간을 통틀어 비교하여도 독보적이다.[182] 이러한 상황은 하캉라당 출신 제사가 원 황제, 즉 대칸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점을 의미하며 그 자체로 장춥 걜챈에게는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장춥 걜챈은 언제라도 조정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의 이러한 인식은 1350년대 말 大都로 떠나는 쇠남 로되에게 "너희 叔姪이 나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나는 이곳에서 되갚아주겠다"며 협박을 한 데서 명확히 알 수 있다.[183] 이때 숙부는 바로 제사 뀐가 걜챈을 지칭하는 것으로, 장춥 걜챈은 말년까지 정적이 조정에서 자기를 음해할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던 것이다.[184]

이는 그가 마지막으로 파견한 사절단 일화에서도 알 수 있다. 그는 1360년 전후로 셰랍 따시(Shes rab bkra shis)를 필두로 하는 사절단을 조정에 파견하여 황제에게 그간의 일을 보고하였는데, 사절단은 이때 그를 견제하는 宣政院使 다르마키르티(Dar ma kir ti), 제사의 屬下 등으로부터 갖은 핍박을 당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장춥 걜챈의 사절단이 조정에 도착하기 전에 황제에게 장춥 걜챈이 반란을 일으켜 싸꺄를 침공하였으며, 싸꺄의 大殿을 마굿간으로 만들어버리고 관청을 탈취하였다며 모함하였다. 그러나 셰랍 따시 일행이 황제를 알현하여 장춥 걜챈의 모함을 풀고, 그의 후임 만호장으로 싸꺄 린첸(Sha+skya rin chen)을 임명하는 封誥, 虎紐印과 함께

182) 이하는『元史』卷202,「釋老傳」및 稻葉正就, 1965, pp.79-156.를 참고하여 역대 제사의 출생일-사망일, 제사 취임일-퇴임일을 정리한 표이다.

<표 3> 元代 역대 帝師表

「釋老傳」名	티베트어 본명 (wylie 표기)	출생일	제사취임일	퇴임일	사망일	사망 장소
①八思巴	('phags pa) blo gros rgyal mtshan	乙未 (1235)	至元7년 (1270-1271)	至元11년 3월?(1274)	至元17년 11월 (1280)	sa skya
②亦憐眞	rin chen rgyal mtshan	戊戌 (1238)	至元11년 3월 (1274)	至元 16년 (1279-1280)	左同	臨洮
③答兒麻八剌乞列	darmapālarakṣita	戊辰 (1268)	至元19년 12월 (1283)	至元 23년 (1286-1287)	丁亥 (1287)	mdo khams의 Tre maṇḍala
④亦攝思連眞	ye shes rin chen	戊申 (1248)	至元23년 12월 (1286-1287)	至元 28년 (1291-1292)	至元 31년 (1294-1295)	五台山
⑤乞剌斯八斡節兒	grags pa 'od zer	丙午 (1246)	至元28년 12월 (1291-1292)	大德7년 (1303-1304)	좌동	조정
⑥輦眞監藏	'jam dbyangs rin chen rgyal mtshan	戊午? (1258)	大德8년 1월 (1304)	大德9년 1월(1305)	좌동	조정
⑦相兒加思	sangs rgyas dpal	丁卯 (1267)	大德9년 3월 (1305)	延祐元年 (1314-1315)	좌동	조정
⑧公哥羅古羅思監藏班藏卜	kun dga' blo gros rgyal mtshan dpal bzang po	己亥 (1299)	延祐2년 2월 (1315)	泰定4년 2월(1327)	좌동	
⑨公哥列思八冲納思監藏班藏卜	kun dga' legs pa'i 'byung gnas rgyal mtshan dpal bzang po		泰定4년 4월 (1327)	天曆2년 (1329-1330)		大都
⑩輦眞吃剌失思	rin chen bkra shis (또는 rin chen grags)		天曆2년 12월 (1329-1330)	天曆2년 12월?(1329)	좌동?	
이하는 「釋老傳」에 등장하지 않는 제사						
⑪公哥兒監藏班藏卜	kun dga' rgyal mtshan dpal bzang po	庚戌 (1310)	至順3년 3월 (1332) 착임	戊戌 (1358-1359)	좌동	대도
	⑫bsod nams blo gros rgyal mtshan dpal bzang po	壬申 (1332)	辛丑 (1361)	壬寅 10월(1362)	좌동	대도
(攝帝師)喃迦巴藏卜	rnam rgyal dpal bzang po					

일부 제사는 제사 퇴임시점과 사망시점이 일치하지 않으나, 뀐가 걜챈은 사망할 때까지 大都에서 제사직을 수행하였다. *sa skya'i gdung rabs*, p.402.2;『薩迦世系史』, p.254.

183) *si tu bka' chems*, p.154.4-6, “da dung yang khu dbon gyis gnod pa bskyal na/ nga de'i lan 'dir byed/”;『朗氏家族史』, p.192.

그가 이전에 세력권을 확장한 공까르(gong dkar), 린뿡(rin spungs)[185] 등지를 팍모두의 관할권으로 인정해주는 조서를 얻어 돌아왔다.[186]

이 일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장춥 걜챈의 우려, 즉 조정에서 정적의 음해가 실재하였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정적의 음해 중 장춥 걜챈이 싸꺄를 침공하고 사원을 마굿간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은 결국 장춥 걜챈이 싸꺄 정권을 전복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싸꺄 정권이 장춥 걜챈의 정치적 부상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마지막으로 장춥 걜챈이 원조에 사행을 파견한 사실은 그가 당시까지 자신의 행보에서 원조를 등한시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즉, 이상의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장춥 걜챈은 말년까지 원조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장춥 걜챈은 시간이 지날수록 싸꺄파와 원조가 쇠락하는 등 중앙티베트를 둘러싼 정치적 지형이 변하였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187] 다만,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한 것은 변화된 정세 속에서도 그가 말년까지 원조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중앙티베트에서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장춥 걜챈 혹은 팍모두 만호만의 특징이 아니라 중앙티베트 만호 전체가 가진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상 장춥 걜챈의 행적은 당시 원조와 중앙티베트 만호 간의 정치적 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즉, 팍모두 만호장 장춥 걜챈의 행보에는 13세기 중반 이래로 중앙티베트와 몽골 지배층이 맺어온 정치적 관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그가 원조가 사여한 '大司徒'라는 별칭으로

---

184) 퀘입은 후대 티베트 사료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장춥 걜챈의 시대화, 즉 '팍모두 정권기'는 안정된 것이 아니었으며 그의 생애 후반기에도 여전히 정적들과 갈등을 해결하고, 원조에게 자신의 음해를 해명하는 등의 모습을 볼 때 후대의 평가는 당시의 인식과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Leonard W. J. van der Kuijp, 1991, pp.305-308.

185) 야르독(yar 'brog)에서 북서쪽 약 50km 지점. 현 西藏自治區 仁布鄉.

186) *si tu bka' chems*, p.195.1-11; 『朗氏家族史』, pp.224.

187) 山本明志, 2021, pp.15-16.

기억되는 이유에도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결론

1322년 장춥 걜챈이 팍모두 만호장으로 등장하였을 때 이미 중앙티베트는 몽골의 지배층과 오랜 역사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당시 중앙티베트는 원조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싸꺄파가 관할하고 있었지만, 중앙티베트 각지에 형성된 만호장들은 임명을 위해 大都를 오갔고, 팍모두 만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1240년 돌라다이의 중앙티베트 침입으로 시작된 몽골과 티베트의 관계는 장춥 걜챈이 등장할 무렵에 이르면 약 80여 년이 지난 시점으로, 그동안 몽골은 티베트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대칸을 비롯한 몽골 지배층은 막대한 보시를 중앙티베트로 보냈고, 불교 교파의 고승을 대도로 초청하면서 물적, 인적교류가 이루어졌다. 원조가 중앙티베트를 다스리기 위하여 실시한 여러 제도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안착하였고, 장춥 걜챈은 이렇게 만들어진 중앙티베트의 정치환경, 즉 몽골 지배층의 정치적 권위가 작동하는 환경을 바탕으로 성장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장춥 걜챈의 행적에서 드러나는 몽골제국의 흔적을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Ⅰ장에서는 먼저 팍모두 만호가 몽골 지배층과 처음 관계를 맺게 되는 13세기부터 장춥 걜챈이 등장하기 전인 14세기 초까지의 상황을 다루었다. 팍모두 만호는 불교 교파인 팍모두파를 중심으로 뭉케의 분봉을 통해 형성되었다. 이때 팍모두 만호는 諸王 훌레구의 관할지가 되었고 일찍부터 경제적, 정치적인 관리를 받았다. 이때 팍모두 만호는 훌레구의 정치적 지위를 십분 활용하여 자신의 세력을 유지 및 확대하고자 시도하였다. 즉, 팍모두 만호는 초기부터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몽골 지배층의 정치적 권위를 활용하였다. 그밖에 팍모두 만호와 몽골 지배층은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이상의 관계를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팍모두 만호는 쿠빌라이계 제왕인 西平王-鎭西武靖王과도 관계를 맺

게 되었다. 이들은 팍모두 만호만 관할한 것은 아니었으나, 유사시 티베트에 군사 사무를 담당하였으며 팍모두 만호장의 임면에 개입하기도 하였다. 주목할 점은 이때 몽골 제왕이 일방적으로 중앙티베트 사무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팍모두 만호가 먼저 만호장 임면을 요청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으로, 이는 중앙티베트에 몽골의 정치적 지배력이 안착하였음을 시사한다.

원조에서는 중앙티베트를 지배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결과 宣政院, 帝師, 宣慰使 등의 제도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중앙티베트에 설치된 만호장들도 이러한 제도 안에서 운용되었으며, 팍모두 만호장의 임면사례를 통해 원조가 실제로 중앙티베트에 정치적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검토하였다. 원조의 정치적 영향력은 팍모두 만호뿐만 아니라 챌파 만호, 디궁 만호 등 중앙티베트의 여러 만호를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Ⅱ장에서는 장춥 걜챈이 만호장으로 취임하고 난 이후 그의 초기 행적을 분석하여 몽골 지배층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인하고, 나아가 그가 그 힘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장춥 걜챈은 전임 만호장의 파면으로 인해 만호장에 취임하였으며, 그 과정에는 제사와 宣政院 관원의 개입이 있었다. 그는 현지에서 선제적으로 만호장 임명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대칸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나, 이후 사신을 파견하여 대칸의 공인을 받음으로써 만호장 임명을 마무리하였다. 이는 기존의 팍모두 만호와 원조가 맺은 정치적 관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때 그가 詔書뿐만 아니라 鎭西武靖王의 令旨과 帝師의 法旨 등을 모두 받아온 점은 만호장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된다. 한편, 그는 관할지 분쟁에서 챌파 만호, 야상 만호, 그리고 帝師 뀐가 걜챈 등에 의해 불리한 입장에 놓이자 몽골 지배층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피력하였다. 또한 과거 팍모두 만호에게 내려진 대칸의 문서를 내세워 팍모두 만호의 이권을 주장하였으며, 강제구금되어 만호장직을 잃을 뻔한 상황에서도 대칸의 권위를 내세움으로써 정치적인 우위를 가지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Ⅲ장에서는 장춥 걜챈이 중앙티베트의 제일의 실력자로 발돋움하는 시점 전후의 행적을 분석하였다. 장춥 걜챈은 불안정한 만호장의 지위를 극복하기

위해 원조로부터 만호의 인장을 사여받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파견된 사행은 만호장 인장과 함께 대칸의 성지수여라는 결과를 불러왔고, 이는 그의 정치적 지위를 강화하는데 일조하였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같은 원조와의 관계는 중앙티베트에서 宣政院과 鎭西武靖王이 갈등을 벌일 때 그가 宣政院을 지지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장춥 걜챈은 이후 세력을 넓힐 때 자신을 대칸 편에 위치시켰으며 이는 몽골인 지배층이 여전히 유효한 정치적 수단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그가 대사도를 수봉하는 장면에서도 두드러진다. 그는 정치적인 지위를 상승시키기 위해 원조의 정치적 권위를 구하였고, 대사도는 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가 끝까지 원조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했던 배경으로 그의 적대세력이 원조에 오랫동안 존재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요컨대 장춥 걜챈은 중앙티베트의 일인자가 된 뒤에도 여전히 몽골 지배층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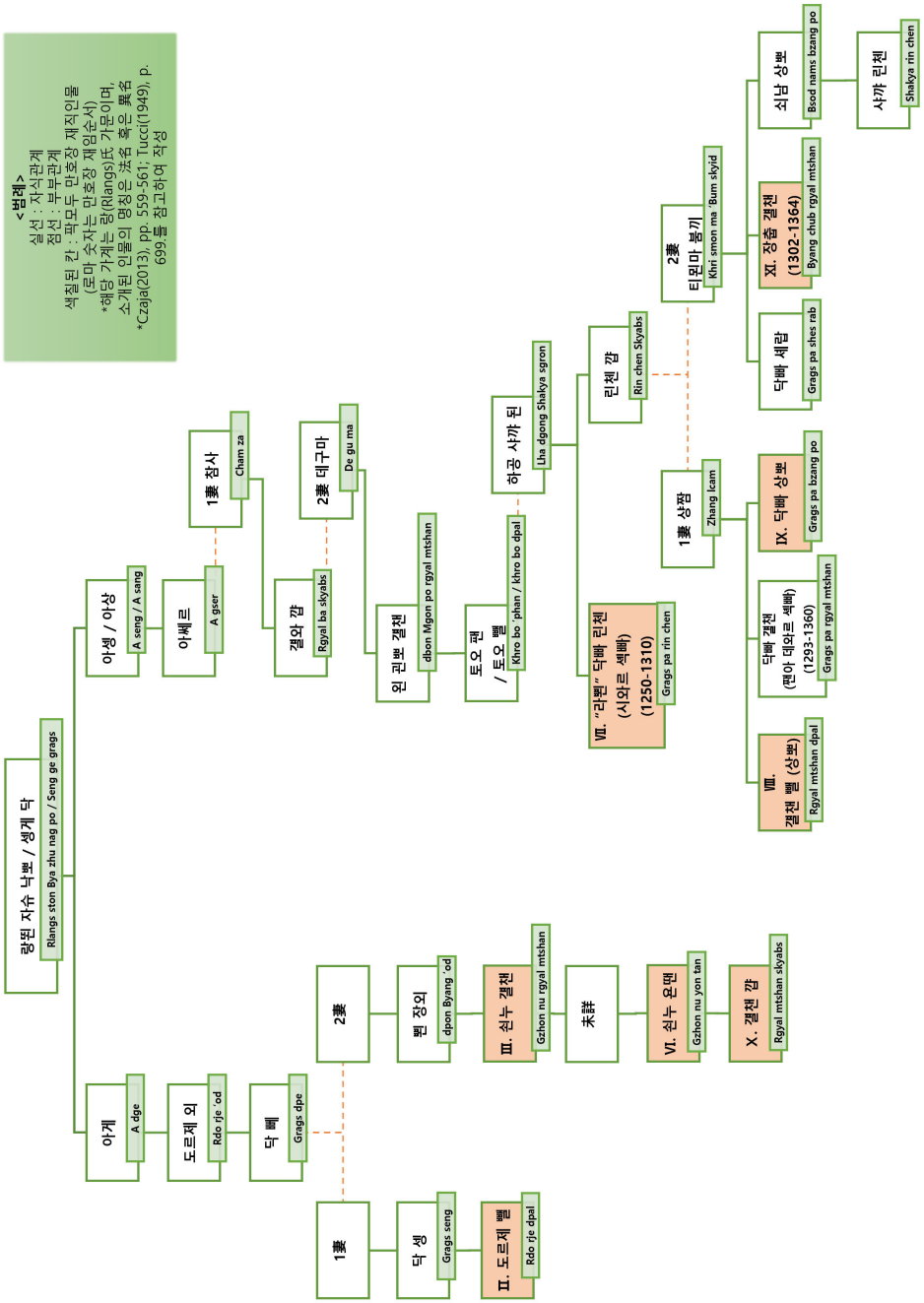
이상 장춥 걜챈의 행적을 검토한 결과, 그는 몽골인 조정의 정치적 권위를 인정하는 바탕 하에서 자신의 세력을 성장시켜나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중앙티베트가 몽골제국과 맺어온 역사적 관계를 고려할 때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당시 다른 어떤 인물보다 속인 정치가로서의 모습이 두드러지는 장춥 걜챈의 행적에서 몽골제국의 흔적을 살펴보는 것은 몽골제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이른바 '원대 후기'에도 티베트에서 유효한 수준으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東方皇帝는 이전에도 (우리를) 마음에 두고 있었으니, 계속 그러하다면 황제의 법을 준수하고, 金字使臣의 迎送을 잘 하도록 하라"는 그의 유언은 13세기부터 시작된 몽골제국의 영향력이 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188] 이는 싸꺄 시대, 팍모두 시대라는 시대구분 이전에 확인되는 역사상이며, 이시기 중앙티베트의 역사를 이해할 때 몽골제국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환기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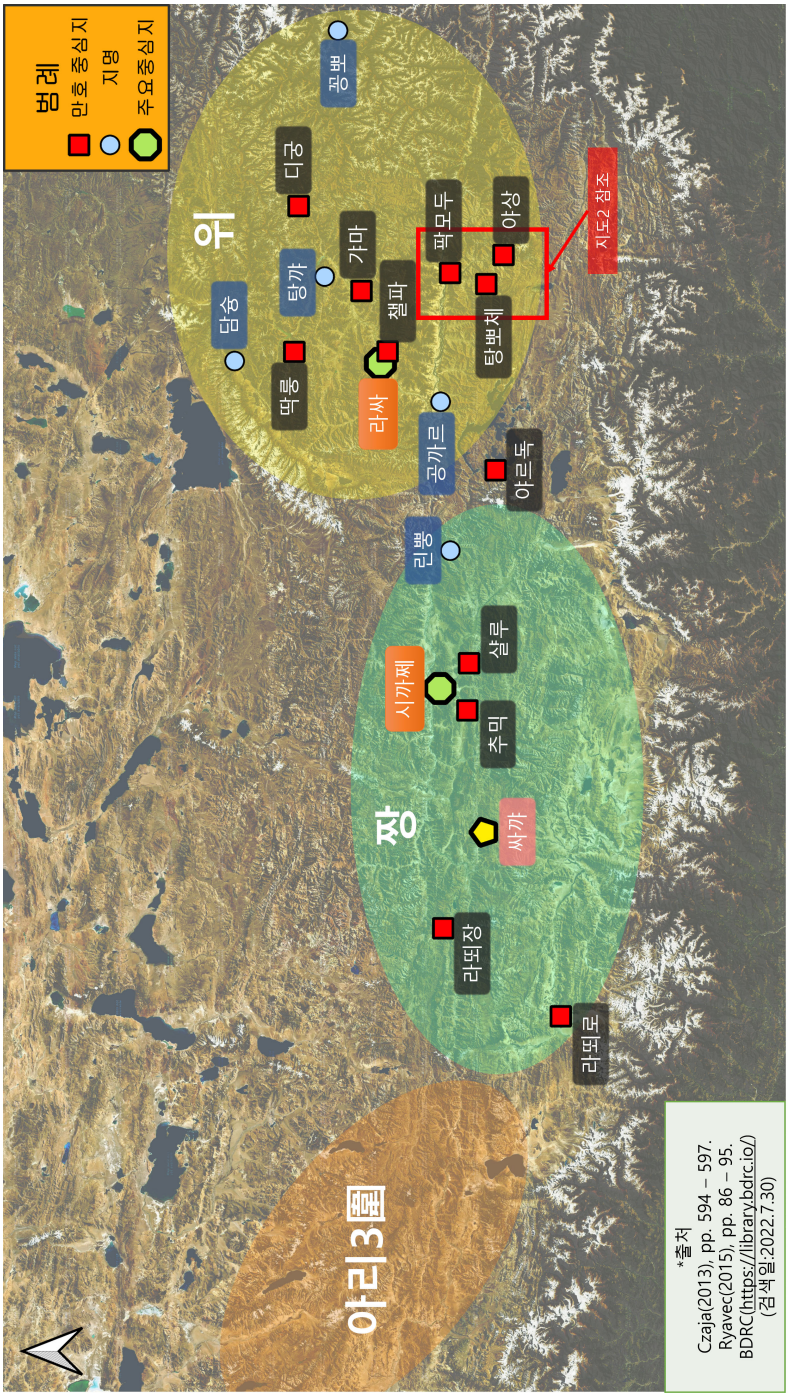
188) *si tu bka' chems*, p.259.13-15, "shar rgyal pos sngar yang thugs la 'dogs kyi yod pas/ da dung thug la 'dogs shing 'dug na/ rgyal po khrims bzung/ gser yig pa'i skyel bsu zhabs tog gis/"; 『朗氏家族史』, p.289.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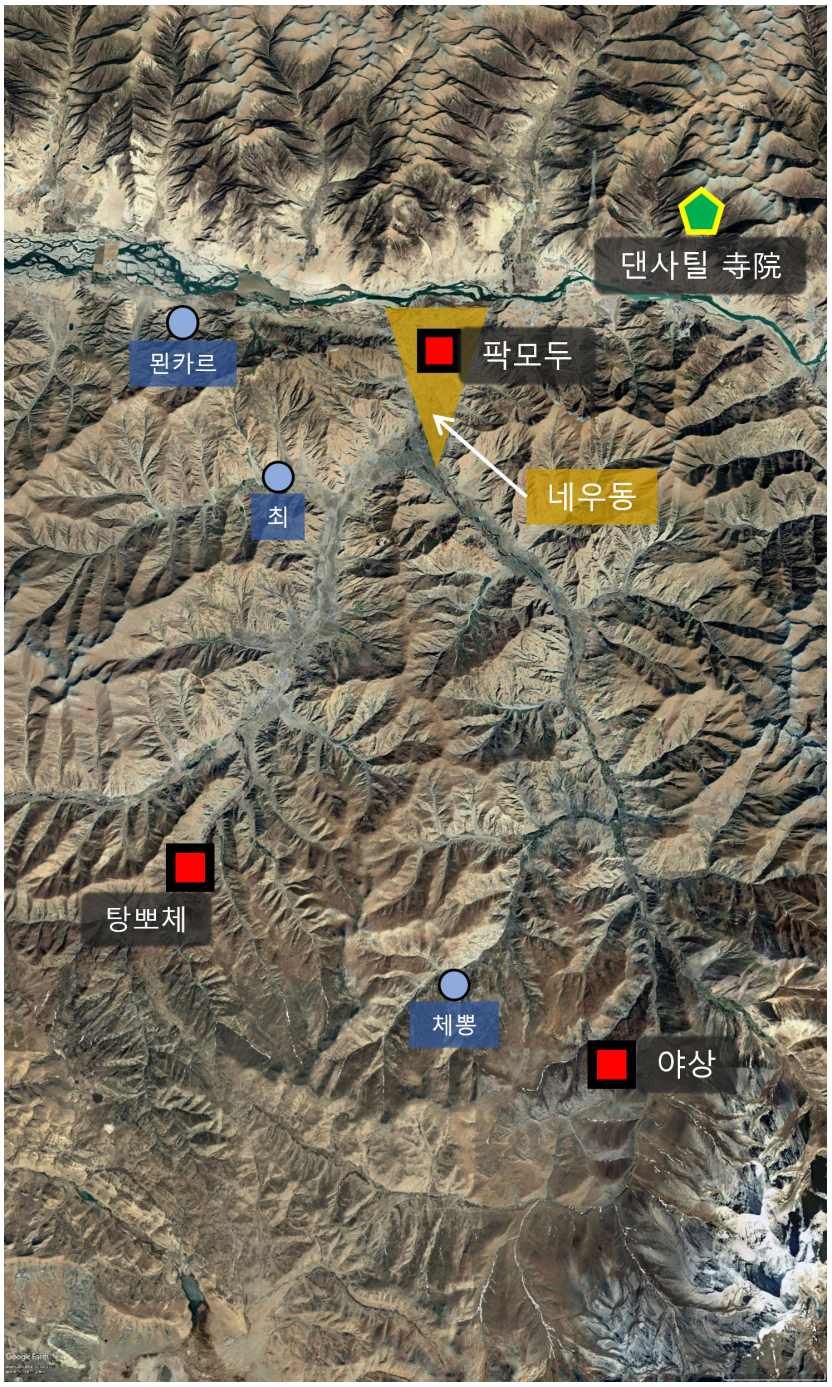
[도 1] 장춥 걜챈 家系 개요도



[지도 1] 14세기 중앙티베트



[지도 2] 야를룽지역 확대도



참고문헌

Ⅰ. 사료

1. 한문

『元史』(宋濂 等 撰, 北京: 中華書局, 1976)

『永樂大典』(明鈔本, 四庫全書存目叢書補編, 濟南: 齊魯書社, 2001)

『佛祖歷代通載』(釋念常, 北京圖書館古籍珍本叢刊,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88)

『大元聖政國朝典章』(元刊本, 北京: 中國廣播電視出版社, 1998)

2. 티베트어

『싸꺄世系史』(sa skya'i gdung rabs, 1629)

A myes zhab Ngag dbang Kun dga' bsod nams. *Dzam gling byang phyogs kyi thub pa'i rgyal tshab chen po Dpal ldan Sa skya pa'i gdung rabs rin po che ji ltar byon pa'i tshul gyi rnam par thar pa ngo tshar rin po che'i bang mdzod dgos 'dod kun 'byung,* Delhi: Tibetan Bonpo Monastic Centre, 1629/1975.

阿旺貢噶索南 著, 陳慶英, 高禾福, 周潤年 譯註, 『薩迦世系史』, 拉薩: 西藏人民出版社, 1989.

『司徒遺訓』(si tu bka' chems, 1364)

Byang chub rgyal mtshan. *ta si Byang chub rgyal mtshan gyi bka' chems mthong ba don ldan*, Lhasa: Bod-ljongs mi dmangs dpe skrun khang, 1364/2013.

大司徒 絳求堅贊 著, 贊拉阿旺, 余萬治 譯, 陳慶英 校,『朗氏家族史』, 拉薩 : 西藏人民出版社, 2020.

『디궁法嗣』('bri gung chen po'i gdan rabs, 1803)

'bri gung che tshang bzhi pa bstan 'dzin pad+ma'i rgyal mtshan. *nges don bstan pa'i snying po mgon po 'bri gung pa chen po'i gdan rabs chos kyi byung tshul gser gyi phreng ba*, Lhasa: bod ljongs bod yig dpe rnying dpe skrun khang, 1803/1989.

直貢·丹增白瑪堅參, 克珠群佩 譯,『直貢法嗣』, 拉薩: 西藏人民出版社, 1995.

『漢藏史集』(rgya bod yig tshang, 1454)

Dpal 'byor bzang po, G.yas ru Stag tshang pa. *Rgya Bod kyi Yig tshang mkhas pa dga' byed chen mo 'dzam gling gsal ba'i me long*, edited by Kunsang Topgyel and Mani Dorji, Thimphu, Bhutan, 1454/1979, vol. 1-2.

達倉宗巴·班覺桑布, 陳慶英 譯,『漢藏史集』, 西寧 : 青海人民出版社, 1454/2013.

『티베트王臣記』(gangs can yul gyi rgyal blon gtso bor brjod pa'i deb ther, 1643)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5th Dalai lama. *gangs can yul gyi sa la spyod pa'i mtho ris kyi rgyal blon gtso bor brjod pa'i deb ther rdzogs ldan gzhon nu'i dga' ston dpyid kyi rgyal mo'i glu dbyangs*, in *gong sa lnga pa chen po'i gsung 'bum*, Gangtok: Sikkim Research Institute of Tibetology, vol. 19(pod dza pa), 1643/1993.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5th Dalai lama. *The Song of the Queen of Spring or A History of Tibet*, translated by Zahiruddin Ahmad, New Delhi: International Academy of Indian Culture and Aditya

Prakashan, 2008.

『궁탕志』(gung thang dkar chag, 1782)

Ngag dbang bstan 'dzin 'phrin las rnam rgyal, 'Jog ri ba. *Gung thang dpal gyi gtsug lag khang byung rabs dang bcas pa'i dkar chag 'gro mgon zhal lung bdud rtsi'i chu rgyun*, Lhasa: tshal gun thang mgon, 1782/2016.

Per K. Sørensen & Guntram Hazod, *Rulers on the Celestial Plain: Ecclesiastic and Secular Hegemony in Medieval Tibet: A Study of Tshal Gung-thang*, Wien: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vol. 1.

「톡둑빠 서한」(13c)

rgyal po chen po go pe la phul ba in Phag gru'i spyan snga rgyal ba thog brdugs pa'i bka' 'bum las, in *'Bri gung du slob dpon rnam gnyis la springs pa, in 'Bri gung bka' brgyud chos mdzod chen mo*, Lhasa: 'bri gung mthil mgon, 2002, vol. 43.

『新紅冊』(deb ther dmar po gsar ma, 1538)

Pan chen Bsod nams grags pa. *rgyal rabs deb ther dmar po gsar ma*, New Delhi: International Academy of Indian Culture, 1538/1968.

班欽·索南查巴, 黃顯 譯,『新紅史』, 拉薩: 西藏人民出版社, 2002.

『紅冊』(deb ther dmar po, 1363)

Tshal pa Kun dga' rdo rje. *Deb ther dmar po*, Gangtok: Namgyal Institute of Tibetology, 1363/1961.

Tshal pa Kun dga' rdo rje. *Deb ther dmar po*, Lhasa: Mi rigs dpe skrun khang, 1363/1981.

稲葉正就, 佐藤長 譯, 『フゥランテプテル: チベット年代記』, 東京: 法藏館, 1964.
蔡巴・貢噶多吉 著, 东噶・洛桑赤列 校注, 陳慶英・周潤年 譯, 『紅史』, 北京: 中國國際廣播出版社, 2016.

3. 페르시아어

『集史』
Rashīd al-Dīn Ṭabīb, *Jami'u't-Tawarikh: Compendium of Chronicles*, translated by W. M. Thackston, Cambrigde: Harvard University, Department of Near Easter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1998-1999.
라시드 앗딘, 김호동 역주, 『集史-칸의 후예들』, 파주 : 사계절, 2005.
————, ————, 『集史-일 칸들의 역사』, 파주 : 사계절, 2018.

4. 기타

카르피니・루브룩, 김호동 역주, 『몽골제국기행』, 까치, 2015.

Ⅱ. 연구서

1. 단행본

권용철, 『원대 중후기 정치사 연구』, 온샘, 2019.
최소영, 『보시, 티베트와 몽골을 잇다』, 경인문화사, 2022.
출팀깰상, 테즈카 토시아키 編, 차상엽 譯, 『티벳문화입문』, 씨아이알, 2011.

西藏自治區藏醫院 編著,『公元1-2100年六曆對照西藏萬年曆(3)』, 拉薩: 西藏人民出版社, 2016.

沈衛榮,『西藏歷史和佛教的語文學研究』,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0.

———,『大元史與新清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9.

張雲,『元代吐蕃地方行政體制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17.

陳慶英,『陳慶英藏學論文集』,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2006.

陳慶英, 張雲, 熊文彬 主編,『西藏通史: 元代卷』北京: 中國藏學出版社, 2015.

陳得芝,『蒙元史研究叢稿』, 北京: 人民出版社, 2005.

張志强 主編,『重新講述蒙元史』, 北京: 三聯書店, 2016.

佐藤長,『中世チベット史研究』, 京都: 同朋舍, 1986.

石濱裕美子 編著, 김한웅 역,『티베트, 달라이라마의 나라』, 이산, 2007.

Czaja, Olaf, *Medieval Rule in Tibet: The Rlangs Clan and the Political and Religious History of the Ruling House of Phag Mo Gru Pa : With a Study of the Monastic Art of Gdan Sa Mthil*, Wien: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2013.

Petech, Luciano, *Central Tibet and the Mongols : the Yüan-Sa-Skya period of Tibetan history*, Rome: Instituto italiano per il Medio ed Estremo Oriente, 1990.

Ryavec, Karl, *A Historical Atlas of Tibet*,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5.

Schaeffer, Kurtis R., Kapstein, Matthew T. and Tuttle, Gray eds., *Sources of Tibetan Tradi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3.

Shakabpa, Tsepon Wangchuk D., *One Hundred Thousand Moons: An Advanced Political History of Tibet*, translated by Derek F. Maher, Leiden : Brill, 2010, vol. 1.

Sørensen, Per K. & Hazod, Guntram(2007), *Rulers on the Celestial Plain:*

Ecclesiastic and Secular Hegemony in Medieval Tibet: A Study of Tshal Gung-thang, Wien: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Tucci, Giuseppe, *Tibetan Painted Scrolls*, Roma: La Libreria Dello Stato, 1949, vol. 1-2.

2. 논문

김석환, 「13~14세기 몽골제국 勅令制度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김성수, 「明朝와 番僧」, 『명청사연구』 40, 2013.

김웅학, 「몽골제국의 고려 지배와 王綧의 정치적 위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김호동, 「몽골제국과 '大元'」, 『歷史學報』 192, 2006.

최소영, 「13세기 후반 티베트와 훌레구 울루스」,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13세기 후반 티베트와 훌레구 울루스」, 『중앙아시아연구』 17-1, 2012.

———, 「13~14세기 몽골의 침입과 지배에 대한 티베트인들의 인식」, 『중앙아시아연구』 23-1, 2018.

———, 「15세기 티베트 저작 『漢藏史集(Rgya bod yig tshang)』譯註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대칸의 스승: 팍빠('Phags pa, 八思巴, 1235-1280)와 그의 시대」, 『동양사학연구』 155, 2021a.

———, 「몽골제국 시기 티베트 승려에 대한 보시와 그 운송 문제 고찰」, 『중앙아시아연구』 26-2, 2021b.

馬睿, 易奎伍, 「元朝末期西藏地方政權盛衰與中央政府的關系」, 『四川民族學院

學報』25, 2016-4.
沈衛榮,「元代烏思藏十三萬戶行政體制研究(一)」,『西藏研究』, 1988-1.
———,「元代烏思藏十三萬戶行政體制研究(二)」,『西藏研究』, 1988-2.
西道加,「藏譯本《唐書・吐蕃傳》對傳統藏文史書的影響」,『西藏研究』, 2016-6.
陳慶英,「元朝在西藏所封的白蘭王」,『西藏研究』, 1983-4, pp.29-33.
———,「元代烏思藏薩迦政權及其與蒙古皇室的關系」,『青海社會科學』, 1986-3, pp.93-103.
———,「夏魯的元朝帝師法旨」,『西藏民族學院學報』1988-4

山本明志,「モンゴル時代におけるチベット・漢地間の交通と站赤」,『東洋史研究』67-2, 2008.
————,「モンゴル時代のチベットにおける都元帥」,『チベット・ヒマラヤ文明の歴史的展開』, 京都 : 臨川書店, 2018, pp.25-38.
————,「「サキャパ時代」から「パクモドゥパ時代」へ-チベット語典籍史料における記述の変遷をめぐって-」,『東洋史研究』79, 2021, pp.1-34.
乙坂智子,「サキャパの權力構造 : チベットに對する元朝の支配力の評價をめぐって」,『史峯』3, 1989, pp.21-46.
————,「元朝チベット政策の始動と變遷」,『史峯』20, 1990, pp.49-65.
————,「元朝の對チベット政策に關する研究史的考察」,『横浜市立大學論叢』, 55, 2004.
稲葉正就,「元の帝師に關する研究」,『大谷大學研究年報』17, 1965.

Atwood, Christopher, "The First Mongol Contacts with the Tibetans," *Trails of the Tibetan Tradition: Papers for Elliot Sperling*, edited by Roberto Vitali, Dharamsāla, India: Amnye Machen Institute, 2014, pp.21-46.
Gamble, Ruth & Yangmotso, "Servant-like Lords and Heavenly Kings: Jangchup Gyeltsen and the Fifth Dalai Lama on Governance and

Kingship", *Cahiers d'Extrême-Asie*, 24, 2015.

Haw, Stephan G., "The Mongol conquest of Tibet,"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4-1, 2014, pp.37-49.

Hazod, Guntram, "A Note on the g.Ya'-bzang/Phag-mo-gru-pa Border Dispute in the 14th Century", *Civilization at the Foot of Mount Sham-po*, edited by Tsering Gyalbo et al., Wien: Verlag der Ö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2000.

Jampa Samten and Dan Martin, "Letters to the Khans, Six Tibetan Epistles of Togdugpa Addressed to the Mongol Rulers Hulegu and Khubilai, as well as to the Tibetan Lama Pagpa," *Trails of the Tibetan Tradition- Papers for Elliot Sperling*, edited by Roberto Vitali, Dharamsala, India: Amnye Machen Institute, 2014.

Kuijp, Leonard W. J. van der, "On the Life and Political Career of Ta'i si tu Byang chub rgyal mtshan (1302-?1364)", *Tibetan History and Language. Studies dedicated to Uray Géza on His Seventieth Birthday*, edited by Herausgegeben von Ernst Steinkellner, Wien : Arbeitskreis für Tibetische und Buddhistische Studien, Universität Wien, 1991.

————————————, "Jambhala: An Imperial Envoy to Tibet During the Late Yuan,"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13-4, 1993.

————————————, "The Kālacakra and the Patronage of Tibetan Buddhism by the Mongol Imperial Family", *The Central Eurasian Studies Lectures* 4, 2004.

Prazniak, Roxann, "Ilkhanid Buddhism: Traces of a Passage in Eurasian History",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56, 2014.

Shakabpa, Tsepon Wangchuk D., "The rise of Changchub Gyaltsen and the Phagmo Drupa Period", *Bulletin of Tibetology*, 17, 1981.

Sperling, Elliot, “Hulegu and Tibet”, *Acta Orientalia Academiae Scientiarum Hungaricae*, Tomus XLIV, 1990.

Wylie, Turrel, “The First Mongol Conquest of Tibet Reinterpreted,”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37-1, 1977, pp.103-133.

Abstract

Political History of Central Tibet and the Mongol Empire in the early and mid-14th-Century

— Focused on the deeds of Phagmodru Myriarch Jangchub Gyeltsen —

Lee, SeungJong

Department of Asi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hen discussing the history of Tibet, the Mongols constitute one of the most important outside forces for Tibetans. Central Tibet (Dbus gtsang) was politically subordinated to the Mongol Empire (1206-1368), and this historical experience has come to be considered as important for both Tibet and Mongolia. Thus far, most previous studies of the history of Central Tibet during the Mongol Empire period have mainly focused on a series of events that took place in the 13th-century, including the Mongol invasion of Tibet, the activities of Sakya Pandita (Sa skya Pandita, 1182-1251) and Phagpa ('Phags pa, 1235-1280), and the political system of the Great Khan

Khubilai (1215-1294). Although a few studies have dealt with 14th-century Central Tibetan history, they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background, that is, the Mongol Empire. Therefore, through the deeds of Jangchub Gyeltsen (Byang chub rgyal mtshan, 1302-1364) who was the most representative figure in 14th Tibetan history, this article attempts to offer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Central Tibet during the Mongol Empire period.

Since Mongolia first invaded in 1240, the fourth Great Khan Möngke (1209-1259) enfeoffed Central Tibet to Tolui's princes. At this time, the Phagmodru myriarchy, which was enfeoffed to Hülegü (ca. 1218-1265), attempted to secure interest in Central Tibet through a political relationship with Hülegü. Afterwards, the fifth Great Khan Khubilai established his rule by reorganizing Central Tibet around the Sakyapa sect (Sa skya pa), and myriarchies in Central Tibet, including the Phagmodru myriarchy, strengthened their political relationships with the Yuan dynasty(元朝).

The appointment process of Jangchub Gyeltsen, who took office in 1322 as the eleventh chief of the Phagmodru myriarchy, reflects the political order established by the Mongol Empire in Central Tibet. His appointment was carried out locally because he unexpectedly became the head of the Phagmodru myriarchy, but he completed the appointment process in accordance with the existing method in which all heads were accredited through the Great Khan. In this way, Jangchub Gyeltsen appeared on the political stage based on the authority of the Yuan dynasty, and in the early days of his chiefdom he attempted to overcome the difficult situation by utilizing the authority of the Great Khan, Zhen-xi wu-jing wang (鎮西武靖王), and Xuan-zheng Yuan (宣政院) in conflicts with surrounding forces such as the Tselpa(Tshal pa) myriarchy and the Yabzang (G.ya' bzang) myriarchy.

The political growth of Jangchub Gyeltsen can be understood comprehensively when considering the background, thas is, the Mongol Empire. He remained in contact with the Yuan dynasty and sought approval from the Great Khan to stabilize his position. His typical nickname “Ta-si-tu (大司徒)” can also be seen as a result of his effort to take a favorable political position during the process of forming a hegemony in Central Tibet in the 1350s. This circumstance provided justification for him consistently to keep the Yuan dynasty in mind. The fact that he was conscious of political pressure by Ti-shi (帝師) even after conquering Central Tibet proves this.

The deeds of the Phagmodru myriarch Jangchub Gyeltsen remind us that the background of the Mongol Empire w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14th-century history of Central Tibet. In other words, the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Mongolia and Tibet which began in the 13th-century had a practical influence in Central Tibet in the early and mid-14th-century. This suggests that the political legacy of the Mongol Empire continued in the 14th-century history of Central Tibet, transformed from the Sakya period to the Phagmodru period.

Keywords : Central Tibet, Phagmodru (Phag mo gru), Myriarch (萬戶長), Jangchub Gyeltsen (Byang chub rgyal mtshan), the Mongol Empire, Yuan dynasty (元朝), Ta-si-tu (大司徒)

Student Number : 2019-28823